

南濟州郡 大靜邑 上·下摹里

現地學術調查報告

(1998. 7. 31~8. 3)

調査經緯 •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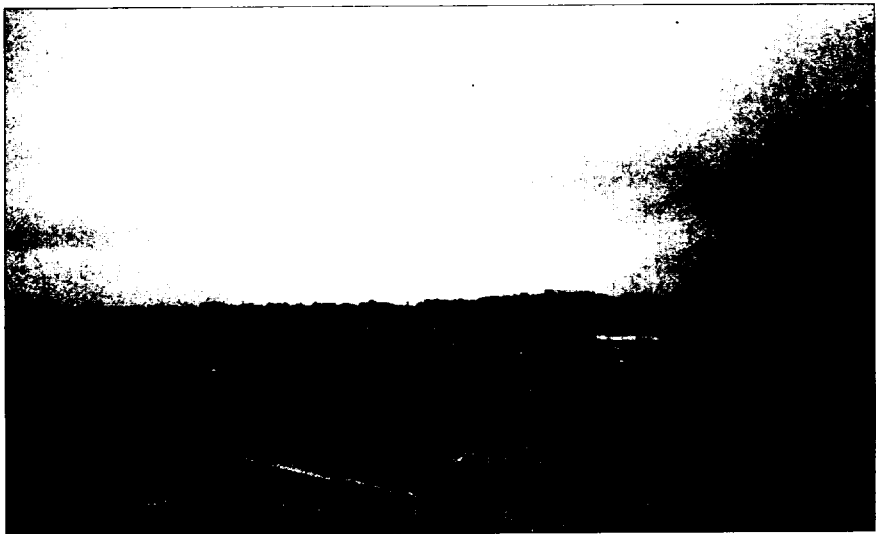
마을개황 • 145

方言 • 170

民謠 • 217

說話 • 249

信仰 • 320



상모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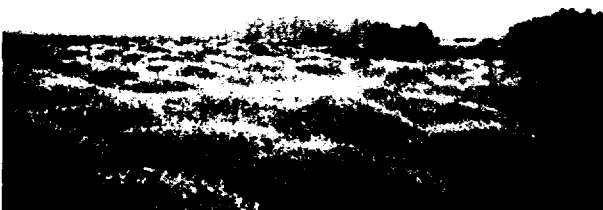


上·下臺里 學術調查報告



◀ 신영물

알뜨르 비행장 터 ▶



◀ 백조일손 묘지

調查經緯

우리 국어교육과에서는 1976년부터 매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술조사를 벌여왔다. 올해로 벌써 20번째가 된다. 그동안 현지 학술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에 응용해 봄으로써 이론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방언, 민요, 설화, 신앙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지역 사회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국어국문학의 시야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왔다. 아울러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구성원들 간의 협동심을 고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학술조사는 1998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마을은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였다. 1차 사전답사는 5월 27일에 있었다. 대정읍의 기초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마을 이장님을 만나고 몇몇 제보자에 대한 소개도 받았다. 2차와 3차 사전답사는 여름방학 중에 이루어졌다. 이때부터는 각 반별 제보자를 본격적으로 섭외하였으며, 각 반 반장들도 마을 주민들과 미리 만나서 본조사 시에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해 두었다. 또한 숙식과 취사, 교통과 같은 제반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마을 현황 전반에 걸친 예비자료를 수집하였다. 6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답사자료집 작성에 들어갔다. 기초자료는 도서관 향토자료실을 이용하였고, 지도와 마을현황지를 읍사무소에서 얻어 활용하였다. 하지만, 작년 답사자료집과 백록어문을 가져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제보자들에게 학술조사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기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조사에는 재직 교수, 재학생, 그리고 동문이 참가하였다. 현승환(마을개황), 최규일·김태곤(방언), 윤석산(민요), 안성수·문성숙(설화), 손오규(신앙) 교수가 각 분야별로 지도를 하였다. 그리고, 고창근·변성구·강정식·변태우·장희철·강영기 등 여러 동문이 참가하였다. 참가 학생은 다음과 같다.[()속은 학년].

上·下裏 學術調查報告

- 마을 개황 : 고진숙, 문지원, 이선애, 백운자, 양중호(3), 양정환,
한선미(2), 고정녀, 현미주, 문석희(1)
- 방 언 : 이은희, 김은정(3), 김애리, 김상희, 현금미(2), 강보경,
김지연, 이정민, 고경민(1)
- 민 요 : 임순심, 김은주, 이지윤, 부상력(3), 김초롱, 양정생(2),
한유숙, 범설아, 송경은, 현지애(1)
- 설 화 : 김은영, 오윤정(3), 송지연, 이태은(2), 송지혜, 현지현,
강연주, 조소민(1)
- 신 앙 : 김지현, 고성희(3), 강건후, 이항숙(2), 백일화, 김나영,
강현영, 양현숙(1)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일(7월 31일) : 오전 9시 30분에 학교에 집결하여 인원과 장비를 점검하였다. 10시에 학교 버스로 출발하여 11시경 숙식 장소인 대정읍 상모2리 대동 노인회관에 도착하였다. 오후 1시까지 숙소를 정리하고 점심식사를 마쳤다. 그리고는 마을 노인회장님으로부터 간단히 마을 소개를 들었다. 2시부터 각 반별로 조사 준비를 하고, 3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제2일(8월 1일) : 첫날의 대략적인 조사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오전, 오후, 저녁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제3일(8월 2일) : 지금까지의 조사를 자체 평가한 다음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밤에는 교수와 재학생, 동문이 어우러지는 행사인 '국교인의 밤'을 마련하였다. 이 행사를 전체적인 조사 현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정리하는 기회로 삼았다.

제4일(8월 3일) :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고 마무리하여 12시에 귀로에 올랐다.

조사에 도움을 주신 대정읍 상·하모리 주민과 이장님, 그리고 숙소를 제공해주신 대동 노인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여 지도해 준 교수님과 여러 동문선배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땀흘리며 조사를 맡은 각 조사반의 반장과 반원들, 참가자의 건강에 힘쓴 여러 학우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한다.

마을개황

목 차

- I. 自然環境
- II. 歷史的 背景
- III. 人文環境
- IV. 産業環境
- V. 歲時風俗

I. 自然環境

대정읍은 동경 126° 10' 에서 126° 18', 북위 33° 16' 에서 33° 19' 사이에 위치하며 50개의 자연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상모리와 하모리는 대정읍의 중심 마을이다. 지금도 읍소재지로 여러 면에서 중심지 구실을 하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군들이 활주로와 격납고 등을 갖춘 비행장을 이 곳에 마련하여 운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6·25동란 때는 육군 제1훈련소가 설치되어 많은 장병을 양성한 바도 있다. 지금도 일본군 비행장터에는 격납고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다. 또한 육군 제1훈련소 자리는 여전히 군부대로 활용되고 있다.

상모리와 하모리는 모슬포로 불린다. 제주도 서남부권의 중심지로서 이 일대에서는 가장 활발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상·하모리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마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곳 사람들은 상업이나 어업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넓은 농토를 지니고 있어 농사일도 중요한 생업이다.

이 곳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유배지로 주목되었을 뿐이다. 이는 곧 바다 건너 육지와 멀리 떨어진 제주섬 중에서도 최남단에 해당된다는 지리적 환경 탓이다. 옛날에는 토지가 척박하고 모진 바람과 비가 많아 생활과 영농에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모슬포는 발달한 기술의 혜택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비교적 살

기 좋은 곳이 되었다. 이제는 어느 마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농산물과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잘 단장된 포구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농사일을 겸해서 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배를 타는 사람보다 물질을 하는 해녀가 더 많다.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과도 사람이라고 한다.

이곳의 평균기온은 가장 추운 1월이 5~6°C로 성산포보다 조금 높고, 가장 더운 8월은 26.3°C이다. 연중 강우량은 1,600mm~1,800mm이고 비오는 날은 100여일 정도로 일조 시간이 짧다. 상·하모리에서는 현재 하모2리에 위치하고 있는 용천수인 '신영물'에서 식수를 얻었고 일부는 우물물을 식수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모두 상수도를 이용한다.

과거 상·하모리는 토질이 좋지 않아 보리와 조 등을 주로 경작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수확량이 많고 수익성이 높은 농작물인 감자, 고구마, 콩, 참깨, 마늘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모슬포에는 읍사무소가 자리잡고 있고, 오일시장과 매일시장도 들어서 있다. 그러나 주변 마을에 비하여 매우 유리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상·하모리는 행정구역상 상모1·2·3리와 하모1·2·3리로 구분된다. 이처럼 행정구역이

구분되기 이전에는 상모리는 이교동·산이수동·대동·서상동·중하동·서하동으로 불렸으며, 하모리는 하동·영수동·당전동·돈지동·서상동·상동·중하동으로 불리었다. 그러다가 1985년 8월 1일에 지금과 같은 행정구역으로 나뉘었다.

마을 동남쪽 바닷가에는 송악산이 있고, 마을 북쪽에는 모슬봉이 있다. 그 사이



대정읍 사무소

에 평탄한 경작지가 널리 펼쳐져 있다. 예전에는 송악산에서 방목을 하였다고 한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군들이 해안절벽 이곳저곳에 굴을 파서 대포를 설치하고 미군기에 대항하였다고 한다. 모슬봉은 상모리 마을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 오름 남쪽 사면에서 마을제를 지냈었다고 한다. 하모리에는 '멜케'라는 곳이 있는데, 이는 '멜' (멸치)이 많이 잡혔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이곳을 통하여 활발한 어업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II. 歷史的 背景

상모리는 현재 행정상으로 상모1리·상모2리·상모3리로 구분되고, 하모리는 하모1리·하모2리·하모3리로 나뉘어 있다. 오늘날처럼 행정구역이 나뉘기 전에는 상모1리에는 이교동·산이수동, 2리에는 대동·서상동, 3리에는 중하동·서하동이 있었고, 하모1리에는 하동, 2리에는 영수동·당진동, 3리에는 돈지동·서상동·상동·중하동이 있었다.

언제부터 상모리 지경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정확한 문헌 기록은 없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유물·유적을 통해서 주민이 거주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상모리 지역에서 확인되는 선사시대의 유적으로 대표되는 것이 산이수동 유적이다. 이 유적은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기원전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상모리 지경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모리 지경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이 산방산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속칭 '박씨밭' 일대이다. 이 부근에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봉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계속하여 상모리에 거주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졌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시기는 주민들이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里制가 아직 정착되기 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모리의 설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된다. 단지, 상모리 지경에 예로부터 사람이 거주해 왔음을 확인하는 정도이다. 더구나 고려시대 상모리 지경에 촌락이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耽羅郡(耽羅縣)의 屬縣으로 존재하고 있던 山房縣(山房村)에 딸린 자연적인 촌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상모리의 설촌에 대한 口傳을 들어보면, 중문에 살던 淸州 鄭氏와 南平 文氏가 단산의 서쪽에 있는 '들메기'에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절왓'이란 곳으로 옮겨 살다가 '대동'으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 상모리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들메기'에 살기 이전에 '한굴'이란 모슬봉 동쪽의 물이 나는 곳에 먼저 살았다는 설도 있다.

상모리에 처음 들어온 姓氏로는 鄭氏, 姜氏, 文氏가 있다. 처음 상모리에 들어온 사람은 鄭舞龍씨와 姜价福씨이다. 처음 상모리에 들어온 문씨는 알지 못한다.

상모리가 번창하자 사람들이 하모리로 넘어와서 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하모리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470년 전에 유배 온 古阜 李氏라 한다. 이때부터 비로소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마을이 커지면서 작은 마을이 생기게 되어 현재와 같이 나뉘게 되었다. 상모리와 하모리의 경계는 지금은 공사 때문에 잠시 치워놓은 '거옥'이라는 돌하르방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상모리는 모슬봉에서 솟아난 용천수가 흐르면서 이루어진 개울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으로 경계를 삼았다고 한다. 서상동과 대동은 '뒤통물 냇골'이란 개울이 경계가 되고, 대동과 이교동은 '이도리 냇골'이 경계가 되었다. 상모리 대동을 중심으로 하여 그 서쪽에 있는 마을을 서상동이라고 한다. 이교동은 대동과 연결되는 다리가 두 개 있다고 하여 이교동이라 한다는 설과 '이더리'(이들이 → 이드리)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다. 서하동은 서쪽 밑에 있다 하여 유래된 것이고, 중하동은 마을 가운데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산이수동은 '산이물'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하모리는 중하동을 중심으로 도로를 경계로 삼아 마을을 나누었다. 중하동 위쪽 마을을 상동, 서쪽 마을을 서상동이라 하고,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하동이라 하였다. 당전동은 옛날 당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또한 영수동은 '신영물'을 중심으로 부락이 형성되었다는 데서 이름 지어졌다고들 한다.

Ⅲ. 人文環境

상·하모리에는 1997년 12월 31일 현재 3,223가구 10,430명이 살고 있다.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인구 현황

(단위: 세대, 명)

리 별	세대	인 구			연 령 별					
		계	남	여	20세 미만		20~60세 미만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합 계	3,233	10,430	5,114	5,301	1,600	1,513	3,046	2,870	468	918
상모리	1,259	4,099	2,042	2,056	613	588	1,239	1,109	190	359
상모1	260	832	417	415	101	109	273	217	43	89
상모2	647	2,167	1,067	1,100	331	332	634	600	102	168
상모3	352	1,100	558	541	181	147	332	292	45	102
하모리	1,962	6,331	3,072	3,245	987	925	1,807	1,761	278	559
하모1	154	516	253	263	85	75	151	144	17	44
하모2	839	2,805	1,371	1,431	432	417	818	812	121	202
하모3	969	3,010	1,448	1,551	470	433	838	805	140	313

(1997. 12. 31 현재, 대정읍사무소 제공)

마을 자생단체로는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원로회, 어촌계 등이 있다. 이런 마을 자생단체들은 마을마다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하게 상모2리는 대동과 서상동이 각기 다른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를 조직하고 있다. 어촌계는 상모리와 하모리 각 하나씩 있다. 한편 상·하모리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원로회라는 특이한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상모리에서는 전임이장단 협의회가 마을의 일을 의논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마을문고와 경로당을 함께 운영하여 마을 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상모리와 하모리의 각종 규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모1리 마을회 규약

전문

상모1리 마을에 사는 우리마을 사람일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마을의 일을 남에게 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힘을 모아 처리하여 잘 살고 복된 새마을을 이룩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마을 총회의 결의로써 이 규약을 제정한다.

1985년 1월 7일

白鹿語文 第15輯(1999. 2.)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우리마을 일을 우리 스스로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새마을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상모1리 마을회라 칭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약은 상모1리 마을에 사는 주민이 지켜야 한다.

제4조 (사무실 위치) 사무실은 상모리 2652-2번지에 둔다.

제5조 (약정사항) 상모1리 마을에 사는 모든 주민은 다음 사항을 지키고 실천한다.

- ① 근면·자조·협동정신으로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 ② 검소한 생활과 가정의례 준칙을 지킨다.
- ③ 도박과 미신을 버리고 명랑하고 부지런한 생활을 한다.
- ④ 마을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꾸며 향토문화재를 보호한다.
- ⑤ 서로 돕고 이웃과 화목하며 예의를 지킨다.
- ⑥ 그밖에 마을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천한다.

제6조 (총회)

1. 마을일을 의논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남계주군 대정읍 상모리 2652-2번지에서 개최한다.

제7조 (회원)

1. 총회의 회원은 상모1리 마을에 사는 각 세대주의 세대주가 된다. 다만, 세대주가 회원이 될 수 없을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세대내의 성년자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회원이 된다.
2. 회원은 상모1리 마을에서 이사를 감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3. 전 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잃더라도 미리 정해진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해진 권리를 계속 갖는다.

제8조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논하여 결정한다.

1. 새마을 지도자를 선임하고 동 개발위원회를 조직하는 일.
2. 마을 규약을 개정하는 일.
3. 마을 장기 계획과 새마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일.
4. 예산결산을 승인하는 일.
5.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련되는 일.
6. 마을 공동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일.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제9조 (총회)

1. 총회에는 회장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 회장은 리장이 되며 총회의 일을 책임지고 회의 시는 의장이 된다.
3. 서기는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년 1회(1월), 임시총회는 회원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 (의결)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장이 결정한다.

제12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일을 하여야 한다.
 - 가. 공동작업에 참가하는 일.
 - 나. 그 밖의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지키는 일.
2. 회원은 다음 것을 이용하고 받을 수 있다.
 - 가. 마을 공동 재산을 이용하는 일.
 - 나. 공동 사업으로 얻어진 이익금을 나눠 받는 일.

제13조 (사업진행)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상모리 마을 개발위원회에 맡겨 집행케 한다.

제14조 (사업보고)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진행상황을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끝나면 사업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의 집행 내용을 총회에 문서로 보고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감사보고) 개발위원회의 감사위원은 개발위원회의 사업진행상황을 수시 감시하며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 진행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

1. 마을 기금은 회비, 찬조금 (성금포함)과 사업수입금으로 한다.
2. 마을회 운영비는 마을리민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기금관리) 기금은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 중 한 명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제18조 (기금운영)

1. 기금은 마을사람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기금이 출납상황을 출납부에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3. 출납부는 새마을 지도자 책임 하에 작성, 관리한다.

제19조 (세부사항) 이 규약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써 따로 정한다.

제20조 (기록보존) 회장은 총회운영에 관한 각종 기록에 정확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8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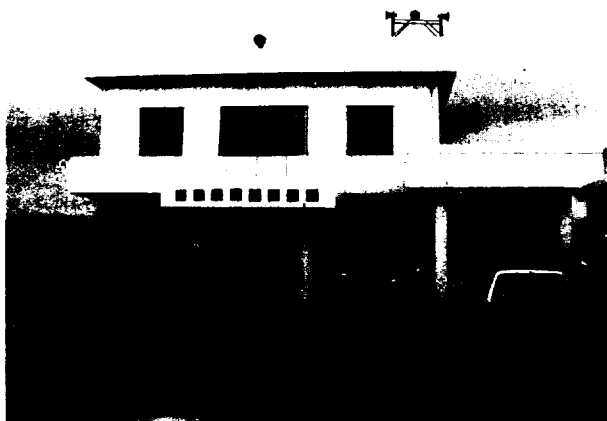
상모3리 마을 회칙

제1장 총 칙

상모리는 옛부터 우리 조상들의 정착하여 황무지를 개척, 발전시켜 왔으며, 1914년 5월 14일 토지 세부 측량시 상·하모리 경계가 확정되었다. 그 후 1985년 7월 1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남제주군 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 상모리를 1, 2, 3리로 분리하였으며, 본 리는 서하동과 중하동의 2개 부락을 통합하여 상모3리가 되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조상의 얼을 받들어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복지 마을을 이루기 위해 온 리민의 총의를 모아



상모3리 마을회관

上·下裏里 學術調查報告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코자 한다.

제1조 (명칭) 본 마을의 명칭은 상모3리 마을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 리의 사무실은 상모리 4022번지의 상모3리 마을 회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은 상부 상조하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굳게 뭉쳐 복지 마을 건설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각 주민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 (회원의 자격) 상모3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회원이 된다.

제5조 (회원 자격 상실) 주민등록상 전출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마을 공동재산을 이용하는 일
- 2) 마을 공동작업에 참여하는 일
- 3) 리운영비를 납부하는 일
- 4) 그밖에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키는 일

제7조 (임원 및 임원수) 주민의 소득 증대 및 권의 보호와 부락 발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리장 1인
2. 2개 동장
3. 재산 관리자 약간명
4. 각반 반장 1인(9인)
5. 개발위원 약간명
6. 자문위원(원로위원)
7. 감사 2인

제8조 (임원의 임무)

1. 리장 : 마을을 대표하고 총회 및 개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동장 : 새마을 지도자직을 겸임하며 새마을 사업 추진과 해당 동의

행정 업무를 분담, 리장을 보좌하고 협의하여 리 발전에 협조한다.

3. 재산관리자 : 마을회 재산 전반을 관리 보존한다.
4. 반장 : 해당 반의 업무를 분담, 동장과 리장을 보좌하고 민심파악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협조한다.
5. 개발위원 : 리장이 상정한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확정한다.
6. 자문위원 : 원로회원으로 마을의 제반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7. 감사 : 본회 회계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시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1. 리장, 개발위원, 재산관리자, 감사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유임할 수 있다.
2. 동장과 반장은 해당 동 및 반의 형편에 따라 정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1. 리장, 개발위원, 재산관리자, 감사는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 동장 및 반장은 해당 동 및 반에서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보수)

본 마을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나 관계기관의 지원에 따라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2조 (총회)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리장이 개발위원회를 거쳐서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리장 또는 개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리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규약 재정 및 개정
2. 예·결산 심의
3. 마을 공동재산 취득 및 처분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심의 확정

上·下臺里 學術調查報告

5. 리장 및 임원 선출

6. 개발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안건 및 개발위원회로 위임할 사항을 의결
제14조 (회의의 정족수)

1. 정기총회 :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집행하고 정원의 미달일 경우 2차 공고해서 참석 인원으로 개최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은 세대당 하나이다.)
2. 기타회의 : 회원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 본 규약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총회 및 개발위원회에서 의결된 새마을 사업
2.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장 재 정

제16조 (기금의 구분) 기금은 리공금과 운영비로 한다.

제17조 (기금의 조성) 본회의 기금은 사업수입금과 찬조금(성금포함) 및 운영비로 조성한다.

제18조 (기금의 운영) 예산 및 예산집행은 총회 또는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리장이 집행하며 결산 총회 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20조 이 규약의 유권 해석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및 개발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21조 리장은 각종 회의 및 운영 사항을 정확히 기록, 보존한다.

제22조 주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는 리장은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모든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이 규약은 1985. 9. 5부터 시행한다.

부녀회는 경로회에서 하는 어버이날 행사에 도움을 주고 폐품 수집과 자선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기금으로 경로당, 리사무소 건립에 기부를 하는 한편 불우 이웃을 돕는 데 힘쓰고 있다. 부녀회에는 자신이 원할 때 가입할 수 있고 57세가 되면 자동 탈퇴하게 된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행해지며, 체육대회 등을 통해

서 친목을 다지고 있다. 각 리마다 인원수는 다르지만 50~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모리에는 각 리마다 원로회가 구성되어 있다. 1992년도에 마을마다 원로회를 만들어 마을에서 하는 활동에 자문기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원로회 회장은 만 55세 이상 된 사람으로 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원로회는 마을 일에 대한 자문을 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펴고 있다. 태극기를 구입하여 태극기 사랑운동을 실천하고, 문패 달기, 불우이웃 돕기, 마을 향사 주변 잡초제거 활동, 폐품수집, 해수욕장 자연정화 활동, 마을 대청소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원로회는 리마다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정지역 원로회 회장단이 모여 대정읍 마을 원로회 회장단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원로회 규약은 다음과 같다.

○○마을 원로회 규약(안)

제1조 (명칭) 원로회의 명칭은 “○○원로회”(이하 “원로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마을원로분들의 오랜 경륜과 경험등 축적된 의견을 마을일에 반영하여 마을의 전통을 수호하고, 윤리관을 확립하며, 청소년을 선도함은 물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정신적 지주로서 마을의 안녕과 질서확립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제3조 (구성) 원로회는 55세 이상의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5~10인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망이 있는 분
2. 지역봉사, 주민선도 활동실적이 현저한 분
3. 지역에서 가급적 조상 누대로 장기 거주한 분

제4조 (위촉) 원로회의 위원은 리개발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5조 (기능) 원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의 전통 수호, 윤리관 확립 (삼강오륜 등), 청소년선도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일
2. 주민간의 이해증진을 통하여 마을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3.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군수 및 읍면장이 마을원로회에 자문을 구하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는 사항에 응하는 일

4. 리개발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응하는 일
5. 마을발전을 위한 방안을 리장과 개발위원회와 협의 후 행정기관인 군·읍면에 건의하는 일

제6조 (임원) 원로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을 두되 위원중에 초고연장자로 한다.
2.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중에 선임한다.

제7조 (직무) 원로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원로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 전반을 담당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 (회의) 1. 원로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 (의결) 원로회의 모든 의결은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위원 만장일치제로 결정한다.

제10조 (재정) 원로회의 재정은 마을운영비, 창조금,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제11조 (통보) 1. 원로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리장과 마을개발위원회에 통보한다.

2. 리장과 마을개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예절적 차원에서 원로회에 통보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년회에서는 매년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어버이날 행사를 부녀회와 같이 마련한다. 그 외에도 하모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불우이웃 돕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은 30~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모리 이교동 마을회관

노인회 회원들은 지역 원로로서 모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을 청소와 폐품수집 등 살기좋은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을 쓰고 있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게이트 볼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여가 활동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노인들과 경기를 하면서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노인회 회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모리 노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상모리 이교동 노인(복지)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의 목적은 부락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윤리도덕을 위한 선도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상모 1리 이교동 부락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상모리 이교동 부락내 거주하는 남녀로서 연령은 65세 이상 희망자에 한한다.

제5조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신규회원은 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하고 사망 및 이주할 경우에는 자동 탈퇴된다.

제6조 본회의 부서 및 임원은下記와 같다.

1) 의장 1인

上 · 下 學里 學術調查報告

- 2) 부회장 2인(남, 녀)
- 3) 총무 1인
- 4) 간사 5인
- 5) 이사 10인, 고문 4명

제7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제8조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체적인 책임과 회를 운영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有故時) 본회를 대표한다.
3. 총무는 재정과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4. 간사는 동원을 전담한다.
5. 이사는 본회 전역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6. 고문은 본회 전반에 대한 지도를 한다.

제3장 재 정

제9조 본회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회비를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회의 운영비는 내외 찬조금으로 회를 운영한다.

제10조 본회의 회비는 총회시 정하고 각자가 총무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4장 집 회

제11조 본회의 집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집회일은 음력 정월 16일로 한다.

1. 임시총회는 임원과 집사가 필요하다고 요청 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 본회의 의안결의는 다수결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동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본회 총회 시에는 하기사항을 부의 한다.

1. 결산보고
2. 규약 수정
3. 임원선출
4. 회의에 대한 운명계획

제14조 회원 중 무단 퇴회자에게는 본회에 자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15조 본회의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하며 규약 찬동자는 별지와 같다. 또, 본 회칙에 미비한 사람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서기 1988. 3. 4 (양) 1. 16 (음)

하모2리 노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하모2리 노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소는 하모2리 경로당내에 둔다.

제 2 장 목적과 사업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 상부상조의 인보정신과 우리의 전통적 민속 양식인 충국효친사상의 계승발전을 꾀하고 노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 경조사시 적극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건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족고유의 전통적 미풍양속의 전승발전과 인보정신의 함양
2. 회원의 의료혜택을 위한 지정의료기관에서의 질병치료 안내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본 마을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2. 정회원은 본회 가입을 희망한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특별회원은 본 회원의 가족 또는 보호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上·下峯里 學術調查報告

1. 회장 : 1인
2. 부회장 : 남3인, 여1인
3. 이사 : 남5인, 여2인
4. 감사 : 2인
5. 고문 : 10인 이내
6. 총무 : 1인

제7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임된 회장은 지부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 유고시 그 후임자는 제1부회장이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무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의 회무를 집행한다.
3. 이사 : 이사는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4. 감사 : 감사는 회계연도의 사업 및 회무를 감사하고 매년 총회 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총무 : 총무는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며, 본회의 회계사무를 행한다.
6. 고문 : 본회의 고문을 두어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추대하며 회의 운영상 중요한 일 발생 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장 회의

제10조 (회의종류)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운영에 대한 제반규칙의 규정에 관한 사항

- 제12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요청시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제13조 (회의 성립)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결정을 행사한다.
- 제14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15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는 총회에 부임할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제16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시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결 가부동수시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회 계

- 제17조 (기금조성) 본회의 기금적립은 보조금 또는 후원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
- 제18조 (경비) 본회 회원의 사망시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 적금금에서 사용한다.
1. 회원사망시
 2. 사업추진시 :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 제19조 (회계감사) 감사는 년 1회 이상 회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한다.
-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1조 (보고승인) 회장은 매년초 다음의 서류를 작성,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이사회 회의록

부 칙

- 제1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대한노인회의 제반규정을 적용 시행하고 기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 본 규약은 199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모슬포가 대정읍의 중심지가 된 것은 오일시장이 서고 매일시장이 생기면서 부터였다. 오일시장은 조선시대부터 서게 되었고, 매일 시장은 1950년대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대정읍 지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주요기관도 이 지역에 들어서게 되었다. 대정읍사무소가 소재하고 있고, 학교도 많이 자리잡고 있으며, 병원을 비롯하여 많은 관공서가 들어서게 되었다.

상·하모리에는 대정고등학교, 대정여자고등학교, 대정중학교, 대정초등학교가 있다. 이렇게 학교가 많이 설립된 것은 이곳이 대정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통의 발달도 그 까닭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대정고등학교는 상모2리에 있다. 1952년 대정중 병설 6학급으로 인가받아 현재까지 5,65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대정여자고등학교는 현재 하모3리에 있다. 1963년 개교하여 현재까지 30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대정중학교는 하모2리에 있다. 1946년 대정공립 초급중학교로 개교하여 현재까지 51회 14,020명의 졸업생이 이 학교를 거쳐갔다. 대정초등학교는 상모2리에 있다. 1908년에 개교하여 현재 86회 13,363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1416년 제주도가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3현 체제로 개편되면서 대정현청이 보성리에 자리잡았다. 그러니, 본래 대정읍 지역의 중심지는 보성리 일대였던 셈이다. 그래서 이 마을 일대를 대정골이라 한다. 1933년 현재 위치인 상모리에 대정면 사무소가 자리잡은 뒤부터 오늘날까지 상·하모리가 대정읍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중심지인 만큼 대정농협, 모슬포수협 등이 들어서 있고 많은 병원이 있다.

그밖에 대정읍개발협회란 조직이 있는데 대정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문제를 논의하는 단체이다. 이 대정읍개발협회에서는 남표장학금을 두어 학생을 선발하여 집행하고 있다. 남표장학금은 남표라는 제일교포가 1억원을 기탁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모1리에서는 협성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IV. 產業環境

이 마을은 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어 많은 발작물이 생산되고 있고 바다를

끼고 있어 풍부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오일시장과 매일시장이 상주하고 있어 상업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은 반농반어를 생업으로 삼거나 상업을 겸하고 있다.

리별 지목별 면적

(단위: m/ha)

	계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도로	묘지	잡종지	기타
합계	1485.8	957.7	2.3	12.4	178.7	80.8	75.2	28.5	132.7	17.7
상모	1143.2	763.8	1.5	9.7	134.7	41.6	50.9	21.8	109.6	9.6
하모	342.6	193.9	0.7	2.7	44.0	39.2	24.3	6.7	23.1	8.1

<1998. 1. 1 현재, 대정읍사무소 제공>

상·하모리의 농토는 비옥하여 농산물과 수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다. 현재 많이 경작되는 농작물은 감자, 고구마, 콩, 참깨, 준저리, 마늘 순이다.

1997년도 하작물 재배면적 조사 집계표

(단위 : ha/호, ()안은 농가수)

	가을감자	고구마	일반콩	흰콩	준저리	녹두	조	참깨	마늘	양파	쪽파	양배추	대파
상모1	229.20 (142)	69.3 (83)	6.97 (12)	5.58 (9)	20.23 (35)	0 (0)	0.33 (2)	9.33 (42)	8.10 (23)	0 (0)	3.42 (9)	7.11 (11)	1.9 (4)
상모2	489.50 (200)	50.7 (63)	1.00 (2)	55.1 (82)	20.77 (24)	0.28 (2)	0 (0)	27.4 (95)	14.2 (47)	2.67 (3)	0.47 (2)	1.33 (1)	1.0 (3)
상모3	117.93 (81)	33.0 (52)	3.70 (8)	8.07 (18)	15.10 (27)	0.17 (2)	0 (0)	8.52 (44)	2.56 (8)	0 (0)	0 (0)	1.00 (1)	0 (0)
하모1	35.23 (49)	3.13 (11)	3.60 (9)	0 (0)	0.27 (1)	0 (2)	0.67 (0)	5.62 (30)	8.10 (28)	0.17 (1)	6.18 (34)	15.1 (32)	8.3 (24)
하모2	64.60 (71)	7.13 (17)	3.60 (6)	14.8 (28)	15.22 (27)	0.73 (4)	0 (0)	1.50 (8)	10.8 (56)	0 (0)	0.14 (1)	0 (0)	0 (0)
하모3	53.02 (84)	4.39 (11)	2.90 (8)	64.2 (110)	30.80 (69)	3.58 (19)	0 (0)	7.91 (32)	79.1 (157)	0.83 (2)	1.42 (3)	0.40 (1)	0 (0)
합계	989.48	167.7	21.77	147.9	102.39	5.43	0.33	60.3	123.2	3.67	11.6	24.9	11.

<대정농협 제공>

상모리 공동목장은 송악산에 있으나, 현재 이곳이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어 공동목장의 기능은 상실한 상태이다.

상·하모리에는 향포구가 있어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향포구를 살펴보면 표 <향포구 현황>과 같다.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가축·양봉 현황

	소		염소		말		개		양봉	
	마리	농가수	마리	농가수	마리	농가수	마리	농가수	마리	농가수
상모1리	560	21	12	2	75	3	53	40	70	1
상모2리	130	7	17	2	42	2	77	61	230	2
상모3리	19	2	50	1	2	2	91	55	0	0
하모1리	301	7	0	0	0	0	39	33	0	0
하모2리	14	1	0	0	0	0	128	95	205	2
하모3리	30	2	0	0	0	0	116	103	0	0
합계	1621	40	79	5	119	7	504	387	505	5

<1998. 1. 1 현재, 대정읍사무소 제공>

항포구 현황

항포구명	항종	시설현황		수용능력		어선현황	
		방파제(m)	물양장(㎡)	항내면적(㎡)	수용능력	15톤미만	15톤이상
모슬포항	1종	서734, 동254	625	119,000	233척/10톤	242	7
운진항	2종	579	150	0	0	11	0
산이수동	소규모	55, 선착장50	0	0	0	2	0

<대정읍사무소 제공>

V. 歲時風俗

상·하모리에는 예전부터 육지와 연결하는 포구가 있어서인지 제주도에는 없는 독특한 생활 풍속이 많았다. 제주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풍속들이 포구를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 놀이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다른 마을과는 달리 이 마을은 많은 놀이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월

연날리기 : 정월이 되면 연을 날리거나 연싸움을 한다. 동별로 연싸움을 하여 마을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마을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월이 되면 연싸움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제기차기, 팽이치기, 구멍치기(일명 엽전치기)라는 놀이를 하였다.

떡점보기 : 정월이 되면 여러 사람이 모여 떡점을 보았다. 떡을 치기 전에 자기 이름을 써 넣어 떡이 잘 익으면 자신의 운세가 좋다고 여기고 떡이 설익었을 때는 자신이 운세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 액운을 없애기 위해 굿을 하였다고 한다.

신구간 : 이 마을에서도 이사를 하거나 집을 고치는 일을 신구간에 하였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신구간이라 하여 아무 때고 이사를 하고 집을 고치지는 않았다. 마을에 있는 정시(地官)에게 물어서 신구간 중에 좋은 날을 택하여 이사를 하고 집을 고치고 하였다고 한다.

2월

영등 : 영등할망이 오는 날인 초하루부터 영등할망이 떠나가는 열 나흘까지는 영등할망이 들어와서 바다에 씨를 뿌리고 간다고 한다. 이 영등할망이 오는 날에는 집에서 빨래를 하지 않았는데 특히 흰 빨래를 하면 집안에 구더기가 생긴다고 하여 빨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날 영등할망이 입은 옷에 따라서 날씨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영등할망이 우장(비옷)을 입고 오면 그날은 비가 오고 영등할망이 큰치마를 입고 오면 바람이 세게 불고 옷을 잘 차려 입고 오면 날씨가 춥다고 한다.

입춘 : 새봄이 되면 집집마다 한해의 소원이나 복을 빌었다. 그래서 입춘이 되면 금기하는 것이 많았다. 특히 여자의 바깥출입을 금하였다고 한다. 이 마을은 여자의 출입을 금기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밭에 가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날 여자가 이웃 집을 방문하거나 밭에 가면 그해 밭에 '검질'(김)이 무성해 진다고 해서 삼갔다. 이날은 금전거래도 하지 않았다. 이날 돈이 나가면 그해 돈이 계속 나가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빌린 돈이 있을 지라도 갚지 않고 다른 날 갚았다고 한다.

4월

초파일 :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등을 달고 집안의 안녕을 빌었다. 또한 이날 비로소 갓난 아기의 머리를 깎았다. 다른 날에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이날 머리를 깎으면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한다. 이 때는 스님처럼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린다.

上 · 下裏里 學術調查報告

한식 : 한식을 4대 명절로 치고 아주 크게 지냈다고 한다.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 제사를 지낸다. '산담' (묘소 주위를 에두른 돌담)을 정비하거나 묘비를 닦고 돌보는 일을 이때 한다.

5월

단오 : 단오가 되면 여자들은 쪽으로 머리를 감고 그네를 타거나 널을 뛰었다고 한다.

6월

닭 먹기 : 6월이 되면 여름 건강을 위하여 집집마다 닭을 잡아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유월 스무날'로 잘 알려져 있는데 더운 여름을 보내며 원기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때 닭을 잡아 먹음으로써 잃었던 원기를 회복한다.

마소 올리기 : 집집마다 소와 말이 있었는데 여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집에 있는 소와 말을 모아 송악산으로 올려 방목을 하였다고 한다. 이 소와 말은 주인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올라가서 지키거나 샳을 주고 한 사람에게 지키게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갈증이 만들기 : 6월이 되면 풋감을 이용해서 갈증을 만들었다. 이 갈증이는 노동복이다. 여름날에도 이 옷을 입고 일하면 통풍이 잘 돼서 시원하다. 일을 하고 나서도 빨래가 쉬워서 비누가 없던 옛날에는 물에 몇 번 헹구기만 해도 깨끗해졌다. 이처럼 갈증이는 노동복으로 적합하여 많이 만들어 입었다.

개역 : 보리가 익으면 보리쌀을 볶은 뒤에 갈아 미숫가루를 만들었다. 이를 '개역'이라고 한다. 이는 여름 별미로써, 영양간식으로써, 일을 가거나 더위를 피할 때 많이 먹었다고 한다.

7월

칠월칠석 : 칠월칠석이 되면 사람들은 절을 찾아가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밤이 되면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달을 구경하러 나갔다고 한다.

백중 물맞기 : 백중날이 되면 가까이 있는 '서림물'에 가서 물을 맞았다고 한다. 여름에 더위타지 말라고 물을 맞는 것이라 하기도 하고 이 날 물을 맞으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도 한다. 이 날 물을 맞으러 가면서 '개역' (미숫가루)

등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먹으면서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8월

초하루 : 가족이 모두 모여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벌초를 한다.

추석 : 팔월 보름이 되면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차례를 지낸 뒤 사람들이 모여 보름달을 보면서 강강술래를 하거나 줄넘기, 고무줄 등의 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이날 솔잎을 넣어 찐 송편과 팥, 녹두, 콩가루, 미숫가루 등을 고물로 넣어 만든 새미라는 떡을 만들었다. 이밖에도 절편, 솔편, 메밀로 만든 중개, 약개라는 떡이 있다. 예전에는 메밀가루나 밀가루로 만들었으나 지금은 계란으로 만드는 우찌이라는 것도 있다.

출 बे기, 말뚝 줍기 : 겨울철 소나 말이 먹이가 부족한 것을 대비하여 사람들은 '출'(꼴)을 베어 말려서 저장하였고 수확이 끝나면 조나 고구마의 줄기를 말려서 저장하였다가 먹이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미리 겨울 한철 땀감으로 쓰기 위하여 마소를 방목했던 산에 가서 말라 있는 똥을 주워 저장해 두었고, 억새를 베어 오거나 솔방울을 주워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확 후 밭에서 조 뿌리를 캐어 그것을 땀감으로 썼다고 한다.

11월

동짓날 : 동짓날에는 팔죽을 쑤어 먹었는데 팔죽을 쑤어서 집안사람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이렇게 팔죽을 쑤어 나누어 먹어야만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 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널을 뛰면서 보냈다고 한다.

지붕잇기 : 이 마을은 띠로 집을 이는데, 매 해마다 지붕의 띠를 새로 이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번씩 지붕을 갈아 이었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도와 가면서 집을 일었다고 한다.

12월

장 담그기 : 콩 수확이 끝나고 나면 콩을 이용해서 장을 담갔다고 한다. 이렇게 장을 담가 내년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믐밥 : 12월 31일 그믐날이 되면 집에서 정성을 들여 밥상을 차리고 이를 부

上·下臺里 學術調查報告

모님께 드렸다고 한다. 이를 큰상이라 하며 살아 계신 부모님께 대한 정성과 효도를 하기 위해 죽은 조상에게 하는 제사와는 다른 살아있는 밥이라고 하여 부모님께 드렸다고 한다.

方 言

목 차

- I. 농 업
- II. 어 업
- III. 식생활
- IV. 의생활
- V. 동 물
- VI. 지 명
- VII. 기 타

이번 방언 조사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어휘를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어업과 농업이 중심이 되는 곳이므로 이에 관한 어휘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방언을 표제어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표준어를 뒤에 제시하였다.

I. 농 업

1. 농작물

1) 곡류

(1) 보리 - 보리

- ① 솔보리 - 쌀보리 ② 맥주보리 ③ 것보리 - 걸보리

(2) 서숙 - 조

- ① 검은조 ② 노랑조 ③ 모인 조 : 메조 ④ 흐린 조 : 차조
- ⑤ 모살시리 : 막 모인 거. 조팡울이 족은 거.(조팡울이 마구 모여 있는 것)

上·下裏 學術調查報告

으로 크기가 작은 것)

- ⑥ 무시리 : 바닷가에 나는 건디 조팡울에 터럭난 거(바닷가에 나는 것으로 조팡울에 털이 난 것).

(3) 콩 - 콩

- ① 두불콩 : 밥을 지을 때 쓰이는 빨간 콩.
② 뽕새기콩 : 노란콩 ③ 검은 콩 ④ 보리콩

(4) 녹디 - 녹두

(5) 풋 - 팥

- ① 붉은풋 ② 흰풋

(6) 께 - 깨

- ① 검은께 ② 흰께 ③ 던덕께

(7) 멧덜 - 메밀

(8) 유채 - 유채

- ※ 유채로 만든 기름 : 녹물치름, 춤께로 만든 기름 : 춤지름

(9) 대죽 - 수수

- ① 비대죽 ② 새당대죽/사당대죽 ③ 강낭대죽(강낭대죽부룩이 : 옥수수)
⑤ 아즌대죽 : 조그만한 것. 크지 않은 것.

(10) 지슬 - 감자

(11) 감제/감저 - 고구마

- ※ 감제뎡구리 : 고구마줄기

2) 채소류

(1) 유(-잎) - 깻잎

① 개유 : 먹을 수 없는 거.

② 출유 : 먹을 수 있는 거. 걸로 행 기름 뺀다.(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름을 만든다.)

(2) 마농 - 마늘

① 패마농 : 쪽파 ② 곱대사니 ③ 드릅마농 - 달래

(3) 부루/상초 - 상추

(4) 놔빼 - 무

(5) 난쟁이 - 냉이

(6) 갯늬물 - 갯

(7) 새우리 - 부추

(8) 민네기 - 미나리

(9) 양애(-끈) - 양애

(10) 호박 - 호박

① ㄴ래호박 : 넓적하고 둥근 거(납작하고 둥근 모양).

② 갈라진 호박

③ 망대기 호박/통개호박

④ 콜락 : 식용이 아니고 박용 ※ 콜락박세기

⑤ 마디호박

上 · 下 藁 里 學 術 調 查 報 告

(11) 외 - 오이

- ① 물외 ② 춤외

(12) 가지 - 가지

(13) 버섯 - 버섯

- ① 돌똥버섯 ② 소낭버섯 : 독 이성 못 먹는 거(독이 있어서 못 먹는 것).

(14) 고사리 - 고사리

- ※ 배엽고사리 : 안 먹는 거. 까릿까릿한 고사리.

(15) 숙 - 썩

(16) 뽕이 - 뽕기

- ① 새뽕이 ② 어욱뽕이

(17) 고치 - 고추

- 풀고치 : 풋고추

(18) 동지 - 동지

2. 농기구

(1) 도깨 - 도리깨

- ① 아들 : 때리는 부분으로 춤나무나 윤누리나무(윤이 나고 누렁다)로 만듦.
② 어시 : 손잡이 부분으로 춤나무로 만듦.
③ 해롱이 : 아들과 어시를 연결한 부분.

(2) 소스랑

- 거름 낼 때 쓰는 것.

(3) 당그네 - 고무래

곡식을 널 때 짓는 것.

(4) 가라죽/가래죽 - 삽

밭을 디디면서 파는 거 보곤 가라죽이랜 허고(밭을 디디면서 파는 것을 가라죽이라고 한다.).

(5) 곡괭이 - 곡괭이

※ 삽괭이

(6) 도가리

쌀 보관하는 것으로 향아리 모양.

(7) 두지 - 뒤주

곡식을 많이 저장할 때 쓰임. 가시냥, 즈배냥으로 만듦.

※ 맥 : 곡식 담아 놓는 큰 거.

(8) 섬비/선비

씨 뿌린 다음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끄는 거.

(9) 멍석

곡식을 많이 널 때 사용.

※ 독석 : 동그란 모양으로 곡식을 적게 널 때, 구래(맷돌) 굴 때도 쓰임.

(10) 징 - 정

(11) 메 - 큰 망치

(12) 대패 - 대패

上·下裏里 學術調查報告

(13) 골쟁이 - 호미

(14) 도슬기착 - 도시락

- ① 도슬기 : 1인용 도시락
- ② 도슬기착 : 10인용 도시락
- ③ 체물고랑 : 대나무로 만든 차롱

(15) 따비

발 갈 때 쓰임.

(16) 산태/삼태

거름 낼 때 두 사람이 앞 뒤 사그네 들르는 거 보고 산태랜 했져(거름을 낼 때 두 사람이 앞 뒤에 서서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산태라고 했다).

(17) 쫄체 - 삼태기

거름 낼 때 혼자 들르는 거.

(18) 따까리

항아리 뚜껑.

(19) 나시 - 낫

(20) 체 - 체

- ① 얼맹이 : 곡식 찌꺼기 가리는 것으로 구멍이 큰 것.
- ② 거름체 : 구멍이 제일 작은 것.
- ③ 대체, 중체, 소체

(21) 망탱이/맹탱이

이것이 요새 말로 허민 가방이영 마찬가지로. 점심도 담양가고 바당에 고기 낚으러 갈 때도 가정가고 씨를 담양 놓기도 허고 거름을 담기도 허고 했져.(이

것이 요즘 말로 하면 가방과 마찬가지로. 점심도 담아가고 바다에 고기 낚으러 갈 때에도 가지고 가고 씨를 담아 놓기도 하고 거름을 담기도 했다.)

- ① 좁씨망태이 : 씨를 담양 밭디 강 뿌렸져(씨를 담아서 밭에 가 뿌렸다.).
- ② 대배기 : 허벅보다 죽은 거 보고 대배기랭 ㄴ른다. 이곳에도 씨를 담아 두기도 했져. 각자 집안마다 씨를 보관하는 게 틀려.(허벅보다 작은 것을 대배기라고 말한다. 이곳에도 씨를 담아 두기도 했다. 각 집마다. 씨를 보관하는 방법이 다르다.)
- ③ 거름착부지 : 쉼질메에 맹태이 두 개를 양쪽으로 실렁 거름을 놓고, 그걸 통틀엉 거름착부지랭 한다. 거름착이랭도 허고 착부지랭도 ㄴ른다.(소의 길마에 두 개의 맹태이를 양쪽으로 실어 거름을 넣는다. 이 모든 것을 거름착부지라고 한다. 거름착이라고도 하고 착부지라고도 말한다.)

(22) 보리클

보리 홀트는 거. 이것으로 보리를 골라냄.

(23) 방에 - 방아

- ① 물방에 : 쉼나 물이 빙빙 돌리는 것이 물방에랭 허고(소나 말이 돌리는 것을 말방아라고 하고).
- ② 남방에/도고방에 : 나무토막 행이네 찍는 거(나무토막으로 찍는 것).
- ③ 돌방에

(24) ㄴ래 - 멧들

(25) 구불태이

물 길 때에 물허벅을 지는 데 구불 아프지 않게 물구덕 사이에 넣는 거(물 길 때에 물허벅을 지는 데 허리가 아프지 않게 물구덕 사이에 넣는 것).

(26) 마께 - 방망이

- ① 물마께 : 빨래할 때 쓰는 거.
- ② 덩드렁마께 : 하르방들 짚 두드리는 거.

③ 다듬이마개 : 안반 위에서 다듬이마개로 두드렸져.

(27) 잠데 - 쟁기(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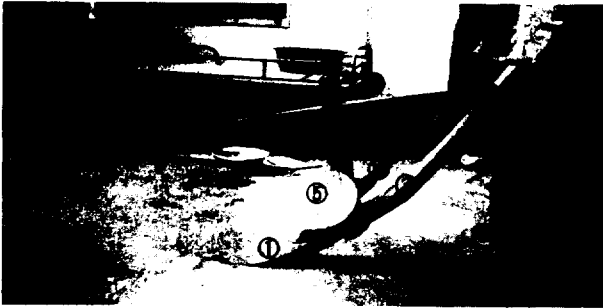


그림 1. 잠데

- ① 보습 : 땅 파는 거 ② 무클구멍 ③ 무클 ④ 양젯뚜루
⑤ 벧 : 벧 * 준경벧 : 쟁기의 벧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흙이 한쪽편으로만
가는데 준경벧은 흙이 골의 양편으로 갈리게 된다. 골갈리는 벧.
⑥ 돌벧이뿔 ⑦ 성외 ⑧ 설치못 ⑨ 설치 ⑩ 설치구멍
⑪ 벧맷국 : 벧이 빠지지 않게 고정.
⑫ 벧틀렛 : 벧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너무 기울어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것.
* 벧칼 : 벧에 흙이 붙어 흙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 벧의 흙을 긁어 내는
것.

(28) 질매 - 길마(그림 2)

맹탕이 두 개를 걸 수 있는 것으로 소 등에 얹는 것.

- ① 고들개 : 엉덩이에 걸쳐 질매가 앞으로 안 빠지게 하는 것.
② 오랑끈 : 소의 배에 묶어서 질매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 도금 : 등이 아프지 않게 질매와 소 등 사이에 넣는 것.

(29) 멍에

논밭을 갈 때 멍에를 소에 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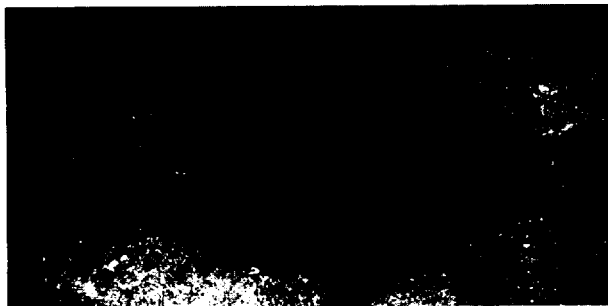


그림 2. 질메

- ① 멩에 ② 접개 ③ 섬비줄/선비줄
- ④ 등퀴 : 섬비줄이 땅에 흘러 내리지 않게 하고 잠대가 땅을 너무 깊게 파면 등퀴를 올리고 너무 얇게 파면 등퀴를 내려 땅 파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 ⑤ 벌레 ⑥ 오리묵

II. 어 업

1. 어류

(1) 돔

- ① 참돔 ② 자리돔 : 작은 거 ③ 갯돔 : 무늬 있고 검은 거.
- ④ 갯돔 : 바닷가에 나는 것으로 검은 줄 흰 줄 하나.
- ⑤ 똥이 : 머리 위에 혹 달린 거.

(2) 벤자리

깊은 데서 나고 회를 많이 먹지.

(3) 어랭이

이건 존존 해(이것들은 작아).

- ① 고맹이 : 어랭이보다 조금 작은 거.

上·下草里 學術調查報告

② 술맹이 : 고맹이보다 크고, 무늬가 있어 얼룩덜룩하고, 회로 먹는다.

(4) 고등어

① 돌고등어 : 깊은 수심에서 나는 거.

② 왕고등어 : 마라도 근해 약 150~170m에서 많이 잡힌다.

(5) 방어

고등베기 : 방어 중에서 젤 작은 거 이서(방어 중에서 제일 작은 것).

(6) 우럭

(7) 갈치

(8) 한치

(9) 껌주리 - 쥐치

좀 쥐새 비슷하지.

(10) 비끼

모래통에만 사는 건디, 이제 씨 몰라브렸져(모래에 사는 것인데 이제는 거의 멸종됐다.).

(11) 존다니 - 새끼상어

(12) 멧렁구리

대량으로 잡아서 사료로 많이 쓰지.

(13) 물꾸럭 - 문어

(14) 낙지

(15) 다금바리

등치가 크고 꺾은 색 나.

(16) 북바리

다금바리 종류에서 그것은 크지도 안히고 족지도 안히고 빨강혀고 진한 점
점이 많고 여러 개 박힌다. 이젠 이제 씨 말라세. 이것은 없어져.(다금바리
종류에서 그것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빨강고 진한 점이 여러 개 있다. 이것은
이젠 거의 멸종됐다.)

(17) 가다리

히라스 비슷한 거여. 이젠 거 씨 말라시네.(히라스와 비슷한 것이다. 이젠 거
의 멸종됐다.)

2. 패류 · 갑각류

(1) 구제기 - 소라

(2) 베말/보말 - 고동

① 수드리 : 호꿈 길고.

② 먹보말 : 새카맣혀고, 동글동글혀고, 딱지 있는 거고.

③ 메옹이 : 먹으면 메와. 껍데기가 좀 뜨나게 생겼지제 울룩불룩혀고, 색깔
이 호꿈 흰듯헌 거.(먹으면 매워. 껍데기가 좀 다르게 생겼지 울룩불룩하
고 색깔이 조금 흰 듯 한 것.)

④ 기드랭이 : 먹진 못해도 기어 다니는 거. 보말집 썩 다니는 거 이서.(먹
지는 못해도 기어 다니는 것으로, 보말집 써서 다니는 것.)

⑤ ㄱ메기 ⑥ 맛테살 ⑦ 문데기

수드리는 호고 쪼끔 지핀데 싯고 그 다음에 호꿈 높은 데는 먹보말 싯고 스
뭇 높은 데는 문데기 ㄱ메기 싯고 헌다(수드리는 크고 조금 깊은 데 있고 그
다음 조금 더 깊은 곳에는 먹보말 있고 더 깊은 곳에는 문데기, ㄱ메기 있다.)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3) 굽벗

- ① 물굽벗 : 딱지가 좀 동글동글하고 또 털이 호끔 달아진 거.
- ② 세굽벗 : 빨간 거. 거 잘 안 먹드라. 먹는 사람은 먹어도.
- ③ 게굽벗

(4) 귀살 - 성계

- * 숨 : 존존한 거. 가시도 존존하게 달린 거고. (귀살과) 알은 똑같은디 모양새가 다르지. 알맛도 다르고.

(5) 반지락 - 바지락

- 해양하고 조매난 거 찌개도 해먹고, 국도 해먹고 그런 거.

(6) 킹이/깡이 - 게

- ① 똥깡이 ② 놀깡이 ③ 돌깡이 ④ 삼깡이

(7) 바루 - 오분재기(떡조개)

(8) 생피 - 전복새끼

(9) 전복/생복 - 전복

(10) 물췌기 - 해파리

(11) 물미지리 - 말미잘

3. 해조류

(1) 미역

- ① 보리미역 : 2에 나는 거.
- ② 돌미역 : 호끔 짙은 디 나는 거. 좀 진 거.

③ 감태 : 이파리가 넓적넓적헌 건디 세고, 미역보단 좀 강하지. 뿌리가 미역은 나 손거치 납작허는디 감태 동글동글허여. 이거 막 물렁 스랑 재로 행으네 그거 화약에 들어간덴 해라.(잎이 넓적하고 미역보다 강하다. 뿌리가 미역은 나 손같이 납작한데 감태는 동글동글하다. 이것을 말려 태우면 그 재는 화약에 들어간다고 한다.)

※ 미역귀 : 미역의 일부분으로 등에 붙어 있는 부분.

(2) 툇

(3) 뭇 - 모자반

뭇은 두가지 싯나 두가지. 보통 먹는 것들은 이 줄기도 굵고 길고 안먹는 것은 길이가 좀 짧고, 줄기도 가늘고, 옛날엔 거름해난 거주.(뭇은 두가지 있다. 보통 먹는 것은 줄기도 굵고 길고 하지만 안먹는 것은 길이가 좀 짧고 줄기도 가늘다. 옛날에는 거름으로 썼다.)

(4) 우미 - 우뭇가시리

※ 우미 만드는 법

따오르는 흐뭇 볶주게. 볶오르는 물에 담가가지고 또 뱃에 널고, 또 다시 또 마르르는 물에 담강 다시 널고, 그럼 해영해져. 해영해지르는 마계를 가지고 마스른 자갈들 다 떨어지고나쁜 이제 삶아 막 삶아가지고 그 물 받쳐가지고 물떨어지는 것이 먹으론 우미야. 빨리 삶첸 허른 식초 흐뭇 나가가지고, 삶으르는 그것이 빨리 풀어져.(우미를 따오면 빨아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에 담가둔 후 햇빛에 널고 그것이 마르면 물에 담갔다다 다시 낸다. 그러면 하얗게 되어서 방망이로 두드리면 자갈들이 다 떨어진다. 그 다음에 오래 삶아 우미를 꺼내면 그 물이 우미이다. 빨리 삶으려고 하면 식초를 조금 넣으면 된다.)

(5) 파래/피래 - 파래

※ 갯파래 : 밧에 거름하는 거.

(6) 정각 - 청각

(7) 물릇

패마농 닭은 거.

(8) 구드리

숫에 낚 쭈엥으네 방 바를 때 쓰민 든든하고 들러지지 않히고 곰생이 안 피고 한다. 가시리도 풀로 쓴다. 구드리는 미역추룩 길주게.(술에 놓아 삶아서 방에 벽지 바를 때 쓰면 든든하고 들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곰팡이도 안 편다. 가시리도 풀로 쓴다. 구드리는 미역처럼 길다.)

(9) 패

가망허고 까릿까릿헌 거.

※ 넘패

4. 해너 관련 어휘

(1) 줌너 - 해너

① 상군 : 큰 줌너. 물질 잘 하는 사람.

② 고메기줍수 : 물질 배우는 사람.

③ 상천 : 물질 안 땀기는 사람은 상천.

※ 숨비소리 : 물 위로 올라와서 폐 속의 공기를 내뿜는 소리.

(2) 뽕돌/연철

이디(허리) 차사 내려가주. 거 안차든 물 아래 안 내려간다. 옛날엔 뽕돌 안 행 하나서. 속곳 입고 그냥 허여.(허리에 차야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안 차면 안 내려간다. 옛날에는 뽕돌 안하고 속곳 입고 그냥 했다.)

(3) 속곳

옛날의 해너복.

(4) 물적삼

속곳 위에 입는 윗 옷.

(5) 호맹이

(6) 비창

전복따는 거.

(7) 골갱이

소라 파내고 물구럭 심을 때(소라 파내고 문어 잡을 때).

(8) 소살

물고기를 쏘아 잡는 도구.

(9) 안경 - 물안경

(10) 망시리(그물 망시리)

해산물을 넣는 그물.

※ 조락 : 물속에 들어갈 때 허리에 차는 것으로 해산물(오분재기)이 너무 많이 채취되고 양손이 모자랄 때 이용한다.

※ 어음 : 망시리 엮어매는 것.

(11) 불턱

불 쬐는 곳.

(12) 밀 - 귀마개

(13) 태왁

콜락박세기로 만들.

※ 곤재노곳 : 태왁 옆에 썩우는 것.

(14) 홍사리

그물로 만든 건디 족은 거. 망시리 말고 그 옆에 드라매영 물구럭 심영 놓고
흐는 거.(그물로 만든 것인데 작은 것은 망시리에 넣지 않고 그 옆에 홍사리를
매여 놓아서 문어를 잡아 놓고 한다.)

5. 바람

- ① 하늬바람 : 북풍
- ② 마폭름/마바름/갈바름 : 남풍
- ③ 셋바름 : 동풍
- ④ 섯바름 : 서풍
- ⑤ 동하늬 : 북동풍(높새바람)
- ⑥ 동마폭름 : 동남풍
- ⑦ 서갈바름 : 남서풍
- ⑧ 섯하늬 : 북서풍

* 서쪽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물고기가 잘 안잡히고 동쪽과 북쪽
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물고기가 잘 잡힘.

6. 물때(음력)

* 물지 - 물때

- ① 일곱물 : 1일 ② 유답물 : 2일 ③ 아홉물 : 3일 ④ 열물 : 4일
- ⑤ 열흔물 : 5일 ⑥ 열두물 : 6일 ⑦ 부날 : 7일 ⑧ 혼주기 : 8일
- ⑨ 앓간주기 : 9일 ⑩ 혼물 : 10일 ⑪ 두물 : 11일 ⑫ 서물 : 12일
- ⑬ 너물 : 13일 ⑭ 다섯물 : 14일 ⑮ 여섯물 : 15일

* 조금 : 물이 나지도 들지도 않은 상태 부날, 한조기, 앓간조기가 이에 속함.
여섯물이 보름도 되고 그믐도 되고 한다. 좀녀들이 머슴 낵 물질을 하여 정안
허문 서물, 너물, 다섯물 때는 막 끄서비영 이래갔다 저리갔다 허는디 이 사흘은
잔잔헌 냥 그냥 이서.(여섯물이 보름도 되고 그믐도 되고 한다. 그때는 해녀들이

마음놓고 물질을 한다. 서물, 너물, 다섯물 때는 파도가 세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데 이 사흘은 잔잔한 채로 그대로 있다.)

Ⅲ. 식생활

1. 일상음식

1) 밥

① 곤밥 : 쌀밥 ② 보리밥 ③ 조밥 ④ 콩밥 ⑤ 풋밥 : 보리쌀+풋

2) 국

① 미역국 ② 물국 ③ 농빼국 ④ 갈치국 ⑤ 귀살국 ⑥ 솜국 ⑦ 보멸국
⑧ 호박잎국 : 호박잎 낱 밀가루 넣고 썩여 끓인 거(호박잎과 밀가루를 섞어서 끓인 것). ⑨ 우미국

3) 죽

① 흰죽
② 풋죽 : 동지 때 썩 먹는 거.
③ 호박죽 ④ 귀살죽 ⑤ 조개죽 ⑥ 강이죽
⑦ 구제기죽 ⑧ 바루죽 ⑨ 물구력죽 ⑩ 정각국 ⑪ 툫국
※ 좁쌀미음 : 노랑 좁쌀 백상으네 풀풀 끓인 거.

4) 반찬

(1) 짐치 - 김치

① 배치짐치 - 배추김치
② 츠마기짐치 : 농빼 우이 난 것이라 츠마기렌 한다(무우 위에 난 것을 츠마기라고 한다).
③ 깍대기짐치 - 깍두기 ④ 새우리짐치 - 부추김치

上·下裏 學術調查報告

⑤ 갯늬벌집치 - 갯김치 ⑥ 동지집치 ⑦ 물집치 - 물김치

(2) 생기리 - 무우말랭이

(3) 마농지 - 마늘 장아찌

※ 패마농지

(4) 젓 - 젓

① 멜젓 ② 자리젓 ③ 강이젓

(5) 두부

뒤세기콩 물에 컷당 ㄱ레에 곶양 잔치 때 썼져(노란콩 물에 담갔다가 맷돌에 갈아서 잔치 때 썼다).

(6) 묵 - 적

2. 제사·명절 음식

1) 떡

(1) 제사 때

① 침떡

② 곤떡 ③ 절벤 : 동구러헌 거. ④ 솔벤 : 반달모양.

③ 중괘 ④ 약괘

솔 곶아당 반죽행 칼로 끄친 떡인디 길쭉한 건 중괘고, 니기반득흔 건 약괘라. ㄱ말 ㄱ루로 만들기도 해주.(쌀을 갈아다가 반죽해서 칼로 자른 떡인데 길쭉한 것은 중괘, 네모난 것은 약괘라 하고 모밀가루로 만들기도 한다.)

※ 우찌 : 절벤 위에 놓는 달걀

(2) 명절 때

白鹿語文 第15輯(1999. 2.)

- ① 송편 : 송편 ② 지름떡 : 기름떡
③ 사미떡 : ㅁ떨 ㅁ루 넣 손으로 좁은 것에 감저나 넣으내 만들주(모밀가루를 반죽하여 손으로 조금 떼어내어 고구마를 놓아서 만든다).
- 2) 곤밥 - 쌀밥
※ 메/멧밥 : 제사때 올리는 밥.
※ 마지 : 절에 올리는 밥.
- 3) 국
바닷고기가 주(主)지.
갈치 곶은 건 안 쓰고 우럭, 북바리 곶은 참고기로 써서.
※ 계영/계영국 : 제사 때 올리는 국.
- 4) 적
① 목적 ② 구체기적 ③ 물구력적 ④ 바루적
⑤ 방어적 ⑥ 가다리적 ⑦ 다굽바리적
- 5) 탕쉬 - 채
① 고사리탕쉬 ② 미나리탕쉬 ③ 호박탕쉬 ④ 묵탕쉬
- 6) 생선구이
옛날엔 옥돔 어시난 우럭 쓰지. 이것도 참고기라.
- 7) 과일
요즘같이 종류는 많지 않고 배, 사과, 당유지만 썼지.
- 8) 술 - 청주
※ 유잔 : ㄴ잔 ㅁ라 유잔이랜 한다.
※ 술 만드는 과정

차좁쌀 물 담았당 도고방에로 찌엿 ㄱ루 곶앙 술오메기 만들엿 솟아내엿 조금 식힌 다음 막 손으로 뭉게엿 찌엿 달루아, 병어리 안 지게. 막 손으로 찌가믄 흐랑하게 다 찌정 흐끔 식으믄 그 물 낵 누룩 썩엿 물에 적당히 담앙 통개에 담앙 덮어 놔두믄 술이 왓탕왓탕 궤어. 그 술이 잘 익으믄. 그 궤는 짐이 꺼지믄 그 술이 곶라얏기 시작허엿 웃갈라(청주), 아랫갈라(탁주)가 나와. 밋갈라 우에 물 뜨면 두세달 이시믄 술이 새까맣게 익엿. 우에는 청주 곶앙 제주(祭酒)로 쓰고, 손님 대접하고 허당 밑에는 고소리 닦는 거라. 술고소리 솟디 낵 솟아가믄 소주가 빠정 독주가 나와.(차좁쌀을 물에 담갔다가 도고방에로 찌서 가루를 내어 그것으로 술오메기를 만들어서 삶는다. 조금 식힌 후 손으로 덩어리 안 지게 하며 마구 주무르면 그것이 연해진다. 조금 식으면 그 오메기 삶았던 물에 누룩놓고 주물렀던 술오메기를 넣어 항아리에 넣어 썩히면 술이 발효된다. 그 술이 잘 익으면 발효된 것이 가라앉으면 위와 아래를 갈라 두어 위에 것은 2~3일이 있으면 술이 까맣게 익는다. 그것은 청주로 제사에 쓰기도 하고 손님을 대접할 때 쓰기도 한다. 그리고 아래 것은 고소리에 닦는다. 고소리 술에 놓아서 삶으면 소주가 빠져 나온다.)

3. 기타

(1) 썩떡

(2) 빙떡

ㅁ궤ㄱ루 얇게 영 해낵 놉뻘 솟앙 패마농. 궤ㄱ루 낵 돌돌돌 말앙으네(모밀가루 얇게 지지고 그 위에 무 삶아서 패마농 깨가루를 놓은 것을 놓아 돌돌 말아서 만든다.).

(3) 귀주떡

보리 곶앙 막걸리 낵 피우믄 귀주떡이라(보리를 갈아서 막걸리를 놓아 발효시키면 귀주떡이 된다.).

(4) 인절미

차조로 만들든 맛아서.

(5) 조침떡

좁쌀로 만든 침떡.

(6) 순다리

밥 조금 쉬어 갈 때는 골ㄹ루 낱 버물려서 막걸리처럼 짜면 요즘 꼭 막걸리
닭아. 막 깨어갈 때 막 돌아. 2~3일 지나면 술맛이 나주. 순다리는 막 돌 때 먹
주.(밥이 조금 상하면 누룩을 놓아서 쉬어서 막걸리처럼 짜면 요즘 막걸리와 같
다. 발효가 되어가면 아주 달다. 2~3일 지나면 술맛이 난다. 순다리는 달 때 먹는
것이다.)

※ 누룩 만드는 방법

ㄹ래로 보리 골앙 ㄹ루로 물에 반죽행 뇌두든 막 떠. 물에 뜨면 꽃 피고 허민
방망이로 뺄상 만들어.(맷돌로 보리를 갈아서 가루로 물에 반죽해서 물에 두면
그것이 물에 떠서 발효가 된다. 그것을 방망이로 짚어서 만들어.)

(7) 감저 빼때기

ㄹ른 감저(말린 고구마).

4. 부엌용구

(1) 우금 - 밥주걱

(2) 남자 - 국자

(3) 배술기

밥 짓는 것.

(4) 장태 - 설거지통

上·下裏里 學術調查報告

(5) 곱박

떡 건지는 것.

(6) 박세기 - 바가지

① 낭박세기

② 콜락박세기

③ 솜박

④ 대왓세기 : 뒤주에서 쏘 거리는 거.

(7) 도고리 - 밥그릇

(8) 대접 - 국그릇

(9) 부지땡이 - 부지깽이

(10) 돛베 - 도마

* 모쿠실낭(멀구슬나무)으로 만든다.

(11) 구덕

① 세답구덕 : 빨래감을 가져가는 것.

② 송키구덕 : 나물 씻는 것.

③ 떡구덕 : 떡 놓는 것.

④ 돌랑지/조락바구니 : 물고기 넣는 것.

(12) 곱 - 성냥갑

* 박쇄 : 돌. 아주 옛날 성냥 없을 때 이것으로 불을 붙임.

* 끄스렁 - 그을음

(13) 살레 - 찬장

① 장방 : 큰 찬장

② 족은 살레 : 작은 찬장

* 장팡/장팡디 - 장독대

(14) 솟덕 - 부뚜막

솟 얹히는 디.

(15) 시리 - 시루

동그랗 흔 거 밑에 구멍 뚫라진 거 ㄱ루 낚으네 떡 치는 거.

(16) 상

① 도리상 : 밥상

② 켓상 : 제사상

③ 문전상 : 문전제 지내는 상.

④ 모셋상 : 제사상 앞에 놓는 자그마한 상.

(17) 보시

오목한 집시.

(18) 빙철

떡이나 묵 지질 때 쓰는 기구.

(19) 당그네/불그네 - 부삽

(20) 물항 - 물항아리

* 불채 - 재, 물코 - 수채

IV. 의생활

1. 노동복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1) 훗거

여름에 입음.

(2) 솜바지

겨울에 바지에 솜 넣 입었져.

(3) 갈중이 적삼, 몸빼

위에는 적삼에 감 들이고, 아래는 몸빼 맨들엉 감들영 입어(위에는 적삼에 감 물 들이고, 아래는 몸빼 만들어서 감물 들여서 입는다).

(4) 폴또매/손또매

팔이 흐끔 덜 버물랜(일할 때 팔이 덜 더러워지라고).

(5) 바데

베로 만든 소매 없는 옷.

2. 평상복

(1) 치메

미녕으로 짤 때 검은 물 들영으네 색색 놓으멍 입었주게(무명으로 집에서 만들 때 검은 물을 들이면서 색깔을 놓고 입었다).

※ 속곳(팬티)-고장중이(속바지)-속치메(속치마)-웃치메(두르는 치메)/겉치메/깍치메

(2) 저구리 - 저고리

(3) 두루막 - 두루마기

남자가 외출할 때 입음. 여름에는 홀두루막(베나 모시로 만듦).

(4) 쫓께 - 조끼

남자들이 평상복으로 저고리 위에 입을.

(5) 독다림 - 대님

한복 바지 밑에 매어주던 끈.

하르방들 독다림 청 입었져. 집에 이실 때 여자들은 위에 베적삼 입고 아래는 베중이 입었 다림 청 살고 남자들은 소중이에 중이만 입었져.(집에 있을 때 여자들은 위에 베적삼 입고 아래는 베중이 입어서 다림을 쳐서 생활했고 남자들은 소중이에 중이만 입었다.)

(6) 뚜데기/뜨데기 - 포대기

아기 업을 때 아기를 감싸는 천.

(7) 지성귀 - 기저귀

지저귀 새 감으로는 안허고 옷이나 헌 거 이시믄 헌다(새 천으로 안허고 옷이나 헌 것 있으면 한다).

옛날에는 갓난 아이 오줌 채우는 거 어섯져. 아기 구덕에 보릿대 깔앙 거기에 또 손박(소랑헌 그릇)에 불채(재) 담앙 오줌 그래 느리게 했져. 세 살까지는 위에만 적삼 입형 아래는 안 입형 살았져.(옛날에는 갓난 아이 지저귀 없었다. 아기 구덕에 보릿대를 깔아서 구덕 아래에 소랑헌 그릇을 놓아 그곳에 재를 넣어 오줌을 그곳에 내리게 했다. 세 살까지는 위에만 적삼 입히고 아래는 안 입혀서 생활했다.)

(8) 배부르기

아기들 배에 바람들지 말라고 배를 감싸 주던 것.

(9) 걸랭이

아기를 업을 때 쓰임.

(10) 보뵈창옷

베로 만든 것. 아기 태어났을 때 처음 입히는 것.

3. 상복

(1) 복치메

여자들이 두르는 치마.

(2) 머리착

탈상 후 머리에 매고 다니는 하얀 천.

(3) 짚뿔

상제들 앞에 놓는 것.

(4) 방장대

상제들이 짚는 지팡이. 어머니가 죽으면 머구냥으로 만들고 아버지가 죽으면 대즈냥(왕대)으로 만들.

(5) 두건, 건대

두건은 베로 모자 만들엉 쓰고 남자도 두건 위에 건대 쓰고 여자도 쓴다. 사위는 안쓰고, 딸, 며느리, 아들만 쓴다.

(6) 복곳

상제를 제외한 사람이 입는 거. 손주나 사위.

(7) 복수건

복친들이 쓰는 거. 먼 관당(친척)들.

(8) 띠

아들 상제들이 허는 거. 사위들은 어서.

(9) 행경 - 행전

사위도 찌고(끼고), 아들도 찌고, 손주라도 옷 못해줄 정도에는 행경하고 두건

은 쓰지.

(10) 제복

상복 위에 또 헌옷 걸치는 거 이서.

4. 예복

1) 여자 예복

(1) 창신

형겘으로 맨드랑 징 박앙 신어가민 쫄각쫄각 소리났져(형겘으로 만들어서 징을 박았다. 신어가면 쫄각쫄각 소리가 났다.).

(2) 장옷

시집갈 때 한복 위에 입는 옷. 초록으로 맨들고, 소매 끝동에는 자주로, 짓도 자주로, 굵도 길게 자주로 만든다.

(3) 쪽두리 - 족두리

(4) 보선 - 버선

(5) 빈네 - 비녀

새각시들은 머리 예찌고 빈네 꼬지고 탱기들이고 한다.

2) 남자 예복

(1) 풍덩이

새신랑이 쓰는 모자.

(2) 도포

上·下裏里 學術調查報告

새신랑이 입는 옷.

(3) 퀘지/관복

도복 위에 입는 옷으로 옆이 트임.

(4) 입제 - 갓

(5) 탕근

갓 속에 쓰는 탕건.

(6) 상통 - 상투

두루막 속에 입고 위에 도포 입고, 도복에 파랑헌 관복 입고, 사모관대 쓰고, 신은 가막창신 신고 경행 돌 탕 갖져.

※ 남저 - 함

5. 재봉용구

(1) 바늘 - 바늘

① 바늘 ② 맥바늘(할아방들 망태이 터지른 꼬매는 거 이서.)

※ 바늘귀 : 바늘귀

(2) 절레 - 바늘꽃이

바늘 꽃는 거.

(3) 윤디 - 인두

휘리(화로)에 불 살랑 지졌당 동전도 다리고, 고름도 다리고, 실밥도 누르고.

(4) 다리미

옷에 물 튀겨놔오네 절로 옷 잡아 땡경 일로 옷 잡아 땡경 옷 삭삭 쓸멍 다렸겨. 옛날에는 돌 아니면 옷 다리지 못했져. 후라이팬 닳은 거에 숯불 넣어서 다린

다.(옷에 물을 뿌리고 저쪽에서 옷을 잡아당겨고 이쪽에서 옷을 잡아당겨서 옷을 삭삭 쓸면서 다렸다. 옛날에는 돌이 아니면 옷을 다리지 못했다. 후라이팬 닦은 것에 숯불을 넣어서 다린다.)

(5) ㄱ세 - 가위

(6) 골메 - 골무

(7) 바농쌘지 - 바늘쌘지

ㄱ세영 바농이영 골메영 담아 두는 거.

(8) 안반, 마께

안반에서 마께로 두드렸겨.

6. 기타

(1) 질빵

짐 질 때 쓰임.

(2) 찻세기

비올 때 쓰는 모자로 새로 만든 것.

(3) 털볼립

비올 때 쓰는 모자로 소털로 만든 것.

(4) 남신 - 나막신

비올 때 신는 신으로 나무로 만든 것.

(5) 밀낭퍼랭이 - 패랭이

보릿대로 짠 모자로 일할 때 씀.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6) 후약/휘양

방한용으로 귀와 목을 가림.

(7) 감티

휘양과 비슷한 것이나 귀와 목을 기리지 않음.

(8) 얼래기 - 머리빗

(9) 색경 - 거울

옛날 할망들, “색경 어저 오라. 나 얼굴 보져.” 경 해났져.

(10) 명지 - 명주

누에 질루왕 명지 뺏져.

(11) 메네 - 목화

V. 동 물

1. 가축·가금

(1) 물 - 말

※ 색깔에 따른 명칭

말이 다섯가지라. 일 청총, 이 가래, 삼 적대, 스 유마, 오 월래랜 현다.

① 가래말 : 검정말

② 청총이 : 흰 꺼럭에 검은 꺼럭 섰터진 말이 이서(흰 털에 검은 털 섞어진 말이 있다).

③ 적대(말), 유마(말) : 붉은말. 말의 갈기가 붉으면 적대 갈기가 검으면 유마.

④ 월래(말) : 독지 2른 디는 허영하고 몸뚱인 벌경허나 거멍헌 거 보고 월래

랜 한다(어깨 부위는 하얗고 몸뚱이는 빨갱거나 검은 것을 보고 월래라고 한다.).

- ⑤ 먹충이 : 청충이 안에서 검은 털과 흰 털이 섞여 있어도 검은 털이 많은 말
- ⑥ 백마 : 하얀말

※ 나이에 따른 명칭

- ① 금승매 : 한 살
- ② 이수매 : 두 살
삼승매 사승매영은 잘 안허여. 췌니(송곳니)가 나기 시작하면 다섯 살. 나이가 많아지면 '물 쪽도라져' , '저 물 쪽도라부러져.'랜 한다.

※ 기타 명칭

- ① 간쟁이 : 콧대가 흰 말
- ② 어록말 : 얼룩말
- ③ 태성배기 : 이마에 흰점이 있는 말
- ④ 코칸제기 : 이마에서 코까지 흰색
- ⑤ 좁매/좁매 : 암컷
- ⑥ 웅매 : 수컷

(2) 췌 - 소

※ 나이별 명칭

- ① 금승송애기 : 한 살 ② 다간 : 두 살 ③ 사릅 : 세 살
 - ④ 나릅 : 네 살 ⑤ 다습 : 다섯 살 ⑥ 여습 : 여섯 살
- 일곱 살부터는 '습'을 안 붙인다.

※ 기타

송애기 - 송아지

上·下裏里 學術調查報告

(3) 개 - 개

강생이 - 강아지

(4) 고양이 - 고양이

(5) 닭 - 닭

① 병애기 - 병아리

② 닭새기 - 달걀

③ 암탉 - 암탉

(6) 도새기 - 돼지

산도새기 - 멧돼지

(7) 염송애기 - 염소

2. 곤충

(1) 만축 - 메뚜기

(2) 불란디 - 반딧불

(3) 두메기 - 풍뎅이

(4) 재열 - 매미

크면 왕재열.

(5) 공중이 - 귀뚜라미

(6) 벌 - 벌

* 사상벌 : 굵고 벌경현 거.

(7) 밥주리 - 잠자리

① 왕밥주리 ② 조팝주리(노랑헌 거)

(8) 퍽리 - 파리

① 쉬퍽리 ② 똥퍽리

(9) 주냉이 - 지네

(10) 누내눈이 - 하루살이

(11) 모기 - 모기

※ 종글레비 : 모기유충

(12) 거미 - 거미

(13) 벼룩 - 벼룩

(14) 니 - 이

(15) 빈데 - 빈대

(16) 부구리 - 진드기

(17) 거머리 - 거머리

(18) 게우리 - 지렁이

3. 기타 동물

(1) 돌뱀이 - 달팽이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① 집 어신 돌벙이 ② 집 지순 돌벙이

(2) 갈개비 - 개구리

※ 맨주기 - 올챙이

(3) 두꺼비 - 두꺼비

(4) 배엽 - 뱀

① 셋배엽 - 실뱀 ② 구렁이 - 구렁이 ③ 물뺨기 - 독사

(5) 종이 - 쥐

(6) 토끼 - 토끼

(7) 식 - 삶

고냉이 닭은 거.

(8) 노리/노루 - 노루

(9) ㄷ람쥐 - 박쥐

(10) 맹마구리 - 맹꽁이

(11) 독다구리 - 도마뱀

(12) 족제비 - 족제비

(13) 참새 - 참새

(14) 히바리 - 종달새

봄에 공중에서 삐비비비비 우는 거.

(15) 가마귀 - 까마귀

(16) 주꾸리

독수리 곶이 생긴 거(독수리 같이 생긴 것).

(17) 까치 - 까치

(18) 꿩 - 꿩

① 암꿩 ② 숫꿩/장꿩 ③ 꿩빙애기 - 꿩새끼 ④ 꿩똥새기 - 꿩알

Ⅵ . 지 명

1. 상모리 지명

진동산 : 동산이 김.

도롱곶 : 진동산 동쪽. 나가는 쪽에 길들이 보문 좁다구.

불란동산 : 놀래왓 위쪽. 일본인들이 화약을 태워부난 풀이 잘 안나.

매아진돌 : 매같은 날짐승이 앓음. 예전에는 매 앓은 형태와 비슷.

아홉동산 : 동산이 아홉 개라고 해서. 동산이 조질조질해서 많음.

장굴(골) : 긴굴(골 : 습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진 곳). 동산 밑으로 골경 길게
나감. 골체 모냥.

중녀쉬는동산 : 상모 사람들이 사계바당에 해녀 허다가 오고가는 도중에 쉬는
동산.

와우리(회우리)동산 : 쉼 누운 형태.

진지기(진제기)동산 : 안전공업사 앞에. 지금 예배당 있는 디.

개쟁이왓 : 개쟁이는 나물인데 겨울에도 죽지 않아그네. 국거리 참 좋은 거여.

즈베기왓 : 굵어서 발만 거정이시른 뭇헐꺼라. 즈베기 흔 사발 주니 발 하날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쥐부렀주.

큰동산 : 동산이 큼.

팡 묻은 동산 : 빼다귀 형태.

들매기 : 상모에 처음 설립된 곳. 설촌지역.

이교동 : 이월동이랏다가 왜정 초엽에 다리가 두 개 있어서.

알엉밭 : 엉밭 동산. 아래 있는 엉밭(엉 : 큰들, 바위).

대동 : 상모리 중앙에 있음. 전 상모리를 지배하던 지역.

조개(기)동산 ① 조개를 많이 캐다 먹고 많이 데미니까. ②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일하러 감.

솔대왓 : 활을 쏘았었음. 대동 노인당 근처.

문서왓 : 비행장 근처.

절란이못 : 절란이 하영 나.

만다리 : 절란이못 옆(북쪽).

불래낭굴(골) : 도량 이름.

마진골 : 말이 나가는 곳.

정지논 : 긴 논.

논짓골 : 논이 김.

반생이 : 팡곳 아래.

물 묻은 부리 : 비행장 남쪽. 옛날 먹는 물이 있었다. 왜놈들 거기왕 물 질러 가니까 먹지 못하게 메어부렀주게.

어우왓 : 동산덜 양 트멍에 해가지고 밭 하나가 이시난. 산 트멍이라는 말.

용다리창 : 만다리 위쪽. 이제 보초 사는 동산 바로 앞이. 바당이 깊영. 파도가 청 들어가면 큰소리가 나.

물잡은목 : 송악산 안. 산방에 고동달이가 대정지경을 순찰하러 와서 산방 앞이 왕 보니, 거기서 장수가 날 거거든. 하이고 그냥 뒀다가는 중국을 틀러 먹겠다 해서.

굴동산 : 웅기 만들던 곳.

절왓 : 대정고 앞 군부대 부근.

절울이 : 송악산.

절잔개 : 도량 이름.

- 진주록돌 : 겨울에 아무리 추운 비름와도 거긴 비름 한점 어성 뜨셔.
부시리덕 : 자리 잡는 곳(덕 : 동산).
돈바리기경 : 괴기 낚는 장소(기경 : 절벽)
가매왓 : 놀래왓 안에 있는 밭.
갱굴왓 : 도량 이름.
고내물 : 옛날 조그만 물이 이서난 디. 이젠 다 메와 분디. 우체국 서넢편.
대난굴 : 비행장 남쪽. 일본이영 싸움 해보젠 해난 디.
도넛 : 산이수동.
동거문머들 : 모슬봉 꼭대기 동녘 옆드레.
문드릿골 : 비행장 동우녘 동산. 양 트망에. 남쪽에도 동산 우녘쪽에도 동산인 디 좁아노니까 문 돌암직 허덴.
꼭발 : 문딱 동산인디, 가운데 움막하게 밧 하나 이신 거.
반생이 굴왓 : 반생이(도량 전체) 서넢 옆에 습한 디(쳐져서).
개다리구석 : 송악산 서넢. 개다리 모양으로 오그라짐.
농남못 : 산이수동 동쪽. 원래는 용안못(용눈 두 개).
살채기목 : 쉼나 밑 못 들어오게 살채기 돌아난 곳(목 : 곳, 장소).
알오름 : 놀래왓 동녘 오름.
염소굴 : 비행장 남쪽으로 동편. 도량 이름.
붉은봉 : 진주록돌 들어가는 옆이, 조그만한 오름.

- | | | | | |
|-----|------|-------|---------|------|
| 놀래왓 | 집터왓 | 고개왓 | 금산봉 | 팡곶 |
| 염개골 | 춤이동산 | 자구낭동산 | 막왓(막루왓) | 시구왓. |
- 부남코지(코지 : 끄트머리)

2. 하모리 지명

- 앞곽 : 앞곽이 상·하모리 경계선이주. 제일 모슬봉을 꼭대기서 중심으로 해서 남쪽드레 죽 가서 동쪽은 상모, 서쪽은 하모주. 꼭대기로부터 앞곽이 제일 꼭대기지.
분체왓 : 분체왓이랜 현 건 앞곽 바로 앞이. 부체 아자난 밧이랜 현거주. 부체

上·下羣里 學術調查報告

아진굴, 부체아진굴 허주게.

비깨왓 : 비깨왓이랜 현 것이 도랑 지명이주. 놀 비(飛)자에 벗어날 해(解)자난. 무사 경해신딘 모르주.

술대왓 : 읍사무소 신 디로 좀 동드래. 술대왓이 뭐인줄 아나. 술대왓이랜 현 건 옛날 건국시대에 활 쏘는 과낙. 지금 말하면 무과급체할 때 활쏘는 그것이 술대왓이라. 술대를 세워서 거기서 활 쏘아서 과낙을 마치고 하는 연무장. 요새말로 연무장이지. 요새 훈련장인가.

사기창 : 사기장이라실 거라. 사기 만드는 장.

조개못동네 : 조씨가 살아난 거 닷다.

홀탄밭(홀탄밭) : 홀탄밭동네. 막 홀타져난 모양이라.

상뒗동산 : 묵을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을 마라. 에 뒗꼬 요새는 리사무소가. 그때는 집이 어슨 때니까 그 동산에서 모여서 회의도 보꼭하는 곳이 상뒗동산이지.

섯가름동네 : 서쪽에 사름들이 살았으니까 섯가름동네.

문칩동네 : 문씨들만 죽 살았으니까 문칩가름. 문칩가름 허주. 축협으로 알래로 죽 내려가든 옛날엔 술질이 있어났주게. 지금은 질 커브렸주만 그디 옛날질엔 동섯골로 문씨들만 죽 살아났주게. 사름 사는 디 마라 가름이랜 허주게.

구두리왓 : 섯가름 다음에 시녕물머리, 구두리왓은 밧이름이라.

물룣동산 : 물룣을 그서 숲아나난 물룣동산이주.

살채기뭇 : 정밭 옆이 살채기뭇이 서나서. 옛날 그 소나 말들이 자유로 돌아나니까 살채기 돌아났주게. 살채기 돌아양이네 문 더꺼붙면 물들이 가지뭇하고 소도 가지뭇하고 경 허주게. 살채기랜 현 것은 나무로 정문을 맨드는 거라. 정문을 맨들앙 열었다 돈았다 하는 거라.

문세왓 : 무수물 동네부터 저 남쪽으로 가는 거주.

베락밭 : 축후소 옷트론 베락밭. 옛날 베락쳐나난 베락밭이랜 허주.

기상곶 : 기상곶이 어디나든 변전소 우쪽.

포켓동산 : 운진항드레 가는 디.

금뭇루동산 : 도서관 앞이 마라 금뭇루랜 허주. 건 땅 지형 이름이 금뭇루주.

산인물 : 사름이 먹는 물.

삭시물 : 시녕물 저편이 서. 시녕물 남쪽에.

- 갈매물 : 갈매물이란 건 남저중학교, 조금 동쪽으로 가면 요샌 물이 어서저브
러서 문 집들 짓고 허난. 갈매물이란 현 건 하동 감제공장 이신 디고.
- 망동산 : 산인물로 조금 서편이 가든 당 세워진 거기가 망동산. 망알이랜도 허
고 망동산이랜도 허여. 옛날에 돌로 싸가지고 바다래 망을 봤주.
- 연대왓 : 무수물 저쪽에 이신디. 무수물은 운진항허고 모슬포항 사이. 망동산에
서 망을 봐서 적어 나타났던 신호치면 연대왓에선 낮엔 연기를 피와 밤에는
불을 피우고, 게난 요새말로 허면 전화나 무선역할이주.
- 알원(알세원) : 세원동네도 웃세원. 알세원 두개라.
- 실네못원 : 신영물 바로 밑에난.
- 빚진여 : 방파제 신 디가 빚진여주게.
- 거끄리여 : 운진이 서쪽에 여막은개 안쪽에 ㄹ라 거끄리여랜 허주. 여막은개랜
현 곳은 모슬포 동편에랑 은진이항 사이를 더분지코지랜허고 그 아래편을
여막은개랜 허주게.
- 고참봉목다리 : 고참봉이 그 땅을 점령허면 물 막 내리 들어오면 목다리에 그
물 쳐놔당 멜 잡고 해놔주게.
- 광대왓 : 바닷쪽으로 죽 가든 저 멜케는 디.
- 머리뿌리 : 머리뿌리랜 현 것이 운진항이주게. 요샌 운진항 해부난 코지가 어
서저부럼주게. 코지랜 현 것은 바닷가에 돌덜을 죽 해논 것이 코지주게. 이
젠 운진항 해부난 방파제 뒤투러주.
- 중이모살 : 중이모살은 매립지 뒤투난 어서저서. 오일장 안에 매립지.

세원	마을원	소로기원	가막수리원	운진이원
광대원	적은개원	더군지코지	독다리왓	남선밭(남선밭)
우중마루	솟은밭(솟은밭)	장갈목	비석거리	숨굴왓
노롱고지	진계동산	푸삿동네	마질맛동네	당밭동네
머구낭굴	예진물동네	산인물동네	신영물동네	무수물동네
정밭(정밭)	갈매물동네	연디왓	정드마루	소머리동네
굴못동네	광대원동네	적은개동네	질친밭(질친밭)	
염소골	동골동산	제석동산	헛개동산	고개동산
예지물	신영물	무수물	그신태물	장갈목

노롱고지 늦못거리 걸매물 벨켓물 적은개물

Ⅶ. 기 타

1. 신체 명칭

- (1) 다간이 - 머리
- (2) 임댕이 - 이마
- (3) 양지 - 볼
- (4) 삐암 - 뺨
- (5) 낫 - 얼굴
- (6) 야계기/모계기 - 목
- (7) 툃가리 - 턱
- (8) 풀 - 팔
- (9) 풀고분자 - 팔꿈치
- (10) 홀목 - 손목
- (11) 귀 - 귀
- (12) 췌고냥 - 췌구멍

(13) 꺾자락 - 꺾불

꺾자락 좋으면 잘 산다 한다.

(14) 눈썹 - 눈썹

(15) 불뻐 - 광대뻐

(16) 독지 - 어깨

(17) 등땡이 - 등

(18) 상괭 - 척추

(19) 젓 - 젓

(20) 젓고고리- 젓꼭지

(21) 오목가슴 - 명치

(22) 허벅지 - 허벅다리

(23) 동무럭 - 무릎

(24) 주술 - 종아리

(25) 구마리 - 복숭아뼈

(26) 발창 - 발바닥

(27) 잠지패기 - 엉덩이

上·下草里 學術調查報告

(28) 첫깽이 - 겨드랑이

(29) 니엄 - 잇몸

(30) 입바우 - 입술

(31) 세 - 혀

(32) 꺾니 - 송곳니

(33) 니빨 - 이빨

(34) 배- 배

(35) 머리꺼럭 - 머리카락

※ 허운데기 : 땡겨들멍 메여사 허운데기.

(36) 배똥 - 배꼽

※ 주네배똥 - 배꼽이 나온 거.

(37) 손등땡이 - 손등

(38) 발등어리 - 발등

(39) 발뒤치기 - 뒤꿈치

(40) 가메 - 가마

어멍 두 개민 쌍가마 난다고 했져.

(41) 이메 - 기름마

(42) 옛갈리 - 갈비뼈

(43) 지미 - 기미

(44) 쉬엄 - 수염

(45) 녹데쉬엄 - 구레나룻

(46) 흰머리꺼럭 - 새치

(47) 비듬 - 비듬

(48) 웃천장 - 웃하늘

(49) 간세터럭 - 잔털

(50) 꾀리침 - 주근깨

(51) 심줄 - 힘줄

(52) 콧고냥 - 콧구멍

(53) 보조기 - 보조개

(54) 목꾸레/목꾸레팡 - 성대

(55) 사막 - 점

(56) 손가락

① 엄지손가락 - 엄지손가락 ② 안주웨기 - 검지손가락

上·下臺里 學術調查報告

③ 상손가락 - 가운데손가락 ④ 버그메 - 새끼손가락

(57) 손그릇 - 손금

① 아기그릇 : 엄지손가락 쪽에 연하고 잘게 난 그릇

② 민그릇 : 손바닥 위에 반달모양의 그릇

③ 밧그릇 : 손바닥 가운데 두 갈래의 그릇

2. 친족 호칭

(1) 성님 - 형님

(2) 아시 - 동생

큰놈(-년) - 셋놈(-년) - 말젓놈(-년)

큰놈(-년) - 셋놈(-년) - 큰 말젓놈(-년) - 족은 말젓놈(-년)

(3) 넋하르방, 넋할망

① 넋하르방 : 손자가 할머니의 자매나 그들의 남편을 부를 때

② 넋할망 : 손자가 할머니의 형제나 그들의 부인을 부를 때

(4) 하르방 - 할아버지

(5) 할망 - 할머니

(6) 아방 - 아버지

(7) 어멍 - 어머니

3. 산열매·풀

(1) 줄갱이

바나나 비스듬(비슷) 현 거라. 열어갈 때는 초록색이랴다가 익으면 회색되어.

(2) 멀리 - 산머루

(3) 삼동

먹으면 입 주위가 꺼멍해지는 거(까맣게 되는 것).

(4) 동애불

삼동에 이 한철기에 나. 초여름에 난다.

(5) 보리탈

빨간 딸기 곱은 거.

(6) 감은탈

까만거 이서. 모양새는 보리탈 같고, 색깔만 까만 거.

(7) 개불/개삼동

밭에만 있지 산에는 어서. 풀에 습종 나면은 이거 따당이네 닥닥 뽕상이네 소금이영 섞여으네 허물난 디 딱 붙이면 낫는다. 이걸 약이라. 경허고 열매는 까맣게 익으면 먹어. 까맣게 익은 개삼동.(밭에만 있지 산에는 없다. 팔에 습종이 나면 이거 따다가 찢어서 소금을 섞어서 허물난 곳에 붙이면 낫는다. 이것은 약이라. 열매는 까맣게 익으면 먹는다. 까맣게 익으니까 개삼동이라 한다.)

(8) 하늘네기

다리가 뺄떨어지거나 거꺼지거나 허문 하늘네기 뿌리 과당이네 닥닥 뽕상이네 싸매른 좋아진다. 하늘네기 열매는 감기 걸린 디 숲아 먹으면 좋고, 열매는 잘 익으면 노랗게 굴색깔 되어. 모양도 굴 비슷하여.(다리가 뺄떨어지거나 꺾어지거나 하면 하늘네기 뿌리를 찢어서 아픈 곳에 싸서 매면 좋아진다. 하늘네기 열매는 감기 걸리면 숲아 먹으면 좋다. 열매는 잘 익으면 노랗게 굴 색깔 된다. 모양도 굴과 비슷하다.)

(9) 제쿨

밭에 강이네 검질 매당이네 골갱이로 쪼상 피가 날 때는 제쿨이랭 혹은 풀이 이서. 그거 딱 그치른 젓이 나와. 그걸 피난 디 톱 부치른 피가 멈춰.(밭에 가서 검질 매다가 골갱이로 손이 다쳐 피가 날 때는 제쿨이라고 하는 풀이 있다. 그것을 꺾으면 젓이 나와 그걸 피나는 곳에 붙이면 피가 멈춘다.)

(10) 숙 - 쑥

아이가 머리가 까지나 어떻허든 급헌 약 어실 때는 숙허든 피가 멈추주.(아이가 머리가 다치거나하면 급헌 약 없을 때에는 쑥을 쓰면 피가 멈춘다.)

(11) 보릿대

어릴 때 보릿대로 뻗뻗 소리내멍 땡겨났져.

(12) 새겹

새 연헌 걸로 행이네 이빨로 지근지근 씹으면 파란 물이나. 경허든 벌 쏘인 디 탁 브르면 금방 나사븐다.(새 연한 것으로 이빨로 지근지근 씹으면 파란 물이 나온다. 그렇게해서 벌 쏘인 데 바르면 금방 낫는다.)

(13) 질란이/질란지 검질

벌을 쏘이나 주냉일 쏘이나 헐 때 박박 부병 브르면 금방 사라져.(벌이나 지네에게 쏘일 때 그것을 주물러서 바르면 금방 부기가 사라진다.)

* 독사는 사람을 물어 동으네 땅드레 강 그 배염이 헉을 먹어분데네. 헉 먹기 전에 확허게 하늘 베리멍 물 세 번만 좁아먹어 불면은 독이 어서져 분덴 해라.(독사는 사람을 물어서 땅에 가서 그 뱀이 흙을 먹는다고 한다. 흙을 먹기 전에 빨리 하늘을 보면서 물을 세 번만 손으로 떠 먹으면 독이 없어진다고 한다.)

(14) 옛귀

길죽허게 나는 거. 아즌 것도 있고 큰 것도 이신디. 큰것 ㄹ라 고치냥이랭 호고 아즌 것 ㄹ라 옛귀랭 ㄹ른다.

(15) 검질 - 김

- ① 절란지(절란이) : 많이 나누게. 보리 헐 때는 안나는 거.
- ② 데우리 : 보리영 곶이 크는 거.
- ③ 얼리
- ④ 숙 - 쭉
- ⑤ 풀
- ⑥ 췌비눔 - 쇠비름
- ⑦ ㄴ랏
- ⑧ 엇귀 : 박한 밭에 잘 남.
- ⑨ 진풀 : 보리밭에 잘 남.
- ⑩ 소앵이 : 가시 돌아.
- ⑪ 진풀

제보자

강경용(남·70세)	강경직(남·73세)	강상근(남·73세)
김성우(남·64세)	김하월(여·76세)	김홍옥(남·70세)
나경호(남·67세)	문신봉(여·67세)	유봉구(남·71세)
유순선(여·77세)	양춘오(남·73세)	지봉수(남·73세)
진순미(여·75세)	허세만(남·68세)	허영식(남·56세)
황보희(여·71세)		

民 謠

목 차

- | | |
|-------------|------------|
| 1. 밭 불리는 소리 | 7. 뭇 뜨는 소리 |
| 2. ㄴ래 ㄴ는 소리 | 8. 차장가 |
| 3. 검질 매는 소리 | 9. 시집살이 노래 |
| 4. 방아 찧는 소리 | 10. 동요 |
| 5. 물 모는 소리 | 11. 창민요 |
| 6. 노 젓는 소리 | |

1. 밭 불리는 소리

밭불림이란 여름철 씨앗을 파종한 후 마소와 남태로 밭을 밟는 것을 말한다. 이 지역의 토양은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바람에 흩날려 버리거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 밭아가 잘 되도록 밭불림을 해야 한다. 보리 수확이 끝나고 좁씨를 파종할 때면 여기저기에서 밭 밟는 구성진 노래가 들려온다.

1) 밭 불리는 소리①

-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오후
- 제 보 자 : 김축생 할머니
- 조사장소 : 하모3리 방파제 앞

어려 ~ 어려 ~ 어려

산천초목은 푸릿푸릿 쭈어 가는데

시들어진 이내 몸은 어느 때나 봄이나 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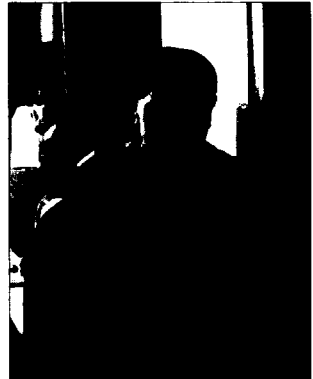
어흐 ~ 어려려려

요몽생이¹⁾ 저몽생이덜 대정몽생이 죽아도²⁾ 으망진다
 어허 ~ 어러 ~ 어허 ~
 어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 ~
 요몽생이들 신난데³⁾ 없이 즈근즈근⁴⁾ 뵘아나 보저
 어 ~ 어러러러 ~ 어 ~ 러
 어 ~ 허 ~ 어러 ~ 어러 ~

2) 밧 불리는 소리②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오전
- 제 보 자 : 이춘옥 할머니
- 조사장소 : 이춘옥 할머니 댁

어러 ~ 어러 ~ 어 ~ 허 ~ 아라
 요송아기덜 저송아기덜
 간덜가곡 온덜오라
 잠깐전이 불러보자⁵⁾
 어러러러러러 ~ 어러러러 ~ 아라
 일락서산 해는 저가는다
 잠깐전이 불러보자
 어러러러 아 어러 ~ 어 ~ 허 ~ 아라
 신나게 말앙 열십자로
 간덜가곡 온덜오랑
 잠깐전이 걸어보자
 어러러러러러 ~ 어 ~ 허 ~ 아라
 아바님이랑 잡시나 때곡



이춘옥 할머니

1) 몽생이는 망아지인데 몽아지, 몽생이라고도 한다.
 2) 작아도.
 3) 아직 안 밝은 곳.
 4) 자세하고도 차례가 있게 일하는 모양. 자근자근.
 5) 밝아보자.

上 · 下 稟 里 學 術 調 查 報 告

어머님이랑 방애나 두드립서

어 ~ 허 아라

요몽생이 저몽생이덜 싹지말앙 들랑돌랑⁶⁾ 걸으라

어려려려려려 ~ 허 ~ 허 ~ 아라

3) 밧 불리는 소리③

밧 불리는 소리는 앞에서 말을 모는 사람이 선창을 하고, 다른 이들이 뒤따르면서 밧을 밟아주며 후창을 하기도 한다.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저녁

· 제 보 자 : A-정연춘 할머니, C-정순녀 할머니

· 조사장소 : 정순녀 할머니 댁

A.C : 어려 ~ 어려 ~ 어려 ~ 호야 에헤헤 오호 ~ 하야

C : 요 마씨⁷⁾야 저 마씨야 높은디나 걸리어 디디멍
어서어서 걸엄시라 보게동

A.C : 어허 ~ 호 ~ 하야

C : 너희 구실이 무언 구실이나 여름 석돌 가을 석돌 먹을 분랑
매일허는 노래허맨

A.C : 어러러 ~ 러 어허 ~ 앙 에헤헤 호 ~ 하야

어려 ~ 어려 ~ 에헤야 ~ 어려 ~

C : 이 망아지야 저 망아지야 흔저흔저 보닥보닥 허게 말앙
흔걸허게⁸⁾ 돌아보자 도나

A.C : 어려 ~ 어려 ~ 어려 ~ 오호 ~ 하야

A : 앞발간디 뒷발가곡 뒷발간디 앞발가곡
높은 동산이나 볼르멍⁹⁾ 골라그네

6) 말걸음거리의 의태어이다.

7) 마소, 말과 소.

8) 한가하게.

9) 밟으면서.

A.C : 어려 ~ 려 에헤헤 호 ~ 하야

2. ㄹ래 ㄹ는 소리

1) ㄹ래 ㄹ는 소리①

-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오후
- 제 보 자 : 김부선 할머니
- 조사장소 : 김부선 할머니 댁



김부선 할머니

이여 ~ 이여 ~ 이여 ~ 이여 이여 이어도허라
 이 ㄹ래야¹⁰⁾ 고이나나라 이여 이여 이어도허라
 흔저 굴아지라¹¹⁾ 이여 이여 이어도허라
 나 인심이 얼만 현고 유월 달에 혼자나 굴리
 이여 이여 이어도허라

2) ㄹ래 ㄹ는 소리②

-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오후
- 제 보 자 : 김축생 할머니
- 조사장소 : 하모3리 방파제 앞

이여 ~ 이여 ~ 이어도허라
 고랑조뽕씨 어 ~ 허 어 ~ 허 이여
 고들배¹²⁾ 지엉¹³⁾ 저녁이나 붉은데 하자
 이여 이여 이어동허라
 검은오 ~ 롬 강당장침의¹⁴⁾ 식콜뱅이 새 글럼더라¹⁵⁾

10) 맏돌아.

11) 갈라져라.

12) 쉬지않고 자꾸.

13) 짚어서.

14) 강堂長宅에, '당장'은 書院에 딸린 下隸를 말한다.

15) '짜이 맞지 않는 모습'을 가리킨다. '세콜 방아 사이가 틀렸더라'라고 풀이한다.

上·下裏里 學術調查報告

3) ㄹ래 ㄹ는 소리③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오전
- 제 보 자 : A-김희중 할머니, B-정연춘 할머니
- 조사장소 : 정순녀 할머니 댁 앞

(1)

이어 이어 ~ 이어도 허라

이어 이어 ~ 이어도 허라

A : 요 ㄹ래 곶양¹⁶⁾ 저녁때 뉘건

범범허영 이야기덜 살랑¹⁷⁾

이어 이어 ~ 이어도 허라

B : 강남 땅은 보리나 좋아

일천 간장 다녹이더라

이어 이어 ~ 이어도 허라

(2)

A : 이어 이어 ~ 이어도 허라

석콜방애 새글러 온다

석콜방애 새글러 온다

이어 이어 ~ 이어도 허라

4) ㄹ래 ㄹ는 소리④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오전
- 제 보 자 : 이춘옥 할머니
- 조사장소 : 이춘옥 할머니 댁

이어 ~ 이어 ~ 이어도허라

어느 날랑 요 ㄹ래 저 ㄹ래 다 곶으로

16) 갈아서.

17) 살리어서.

이어 ~ 이어 ~ 이어도 ~ 허라

5) ㄹ래 ㄹ는 소리⑤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저녁
- 제 보 자 : 정연춘 할머니
- 조사장소 : 정순녀 할머니 댁

이어 ~ 이어 ~ 이어동허라
 가시오름¹⁸⁾ 강당장집에
 식롤방애 새글럼더라
 이어 ~ 이어 ~ 이어도허라

3. 검질 매는 소리

제주도는 토질 특성상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보리와 조 농사가 대표적이다. 김매는 작업은 농사작업 중에서 가장 고된 작업의 하나이다. 한 여름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세 벌씩이나 김을 매야 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이것은 주로 여인네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해지고 이 작업과 더불어 불린 노래가 노동요인 제주도의 <밭매는 소리>, 곧 <김매는 소리>이다. 이 노래들은 선창과 그에 이은 후창의 반복적인 후렴을 통해, 힘든 작업이 반복되는 지루함을 줄이고, 일의 능률을 올리고 통일성을 기하는 데 기여했다.

1) 검질 매는 소리①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오전
- 제 보 자 : 이춘옥 할머니
- 조사장소 : 이춘옥 할머니 댁

검질¹⁸⁾ 머영¹⁹⁾ 앞명에²⁰⁾ 가게

18) '加時里' (지명)를 가리킨다.
 19) 밭에 난 잡풀 또는 짚과 같은 것.

뒷명에랑 무~너가고 앞명에랑 들어오라
어기여롱 사대²⁰로구나
어느날랑 요검질 머영 앞명에나 들어오라
어느제랑 요검질 문²¹ 매코
어서어서 사대불렁 잠깐전이 머여보게
어기여롱 사대로구나

2) 검질 매는 소리②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저녁
- 제 보 자 : 정연춘 할머니
- 조사장소 : 정순녀 할머니 댁

어기여차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도나가라
검질매영 앞명에가자
앞명에라도 들어나오라
뒷명에라도 나가나가라

4. 방아 짚는 소리

방에소리는 말방아(말이나 소의 힘으로 돌리는 연자방아)를 돌리며 부르던 노래이다. 말방아는 정미소가 없을 때 곡식을 탈곡하고 정제하던 곳으로 비가 오는 날이면 동네 아이들이 노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오전
- 제 보 자 : 이춘옥 할머니

-
- 20) 매다. 밭의 풀을 뽑다.
 - 21) 이랑의 양쪽에 가로놓인 두둑.
 - 22) 사대 : '스대', 四大六身(팔, 다리, 몸둥이, 머리)을 가리킨다.
 - 23) '모두'를 가리킨다.

· 조사장소 : 이춘옥 할머니 댁

이어도 ~ 허라 이어도 허라 ~ 이어동 허라
어느 날랑 요 방애²⁴⁾ 지엿²⁵⁾
석콜방애 새 글르지 말라
이어동 허라 이어동 허라
가시오름 강당장집이
석콜방애 새 글럼더라
이어동 허라 음 ~ 음 ~
이어동 허라 이어동 허라



김태화 할아버지

5. 물 모는 소리

· 조사일자 : 1998년 8월 2일 오후
· 제 보 자 : 김태화 할아버지
· 조사장소 : 송악산

(1)

허 ~ 워러러러 ~ 어러 ~ 에 양
에 ~ 헤 ~ 양 ~ 아 ~ 양 어러러러 ~ (이 놈의 새끼)
어 ~ 러 ~ 러 ~ 어러러러 ~
허 아 ~ 아 ~ 허러러 ~ (허)
어 ~ 러 ~ 령 ~ 아 ~ 량 ~
아라라라라 ~ 령 ~
어러러러 ~ 헤 ~
이도저 처처처 ~ 어러 ~ 워 ~ 물물물 아 ~ 량 오로로로
일 년 ~ 열 두달 종질어단 오늘날
요 발이나 뜨끈뜨끈 열라보자 이 똥생이들

24) 방아.

25) 찢어서.

어 ~ 려 ~ 하 ~ 아 ~ 량
요 발이나 저 ~ 발 작업을 자근자근
헛 되지 말앙 요 발디 굴러진 돌을 날라게
이 몽생이들 구름이 볼르지 말앙이네 조근조근 불러보라
어려 어려 ~ 허 ~ 하량

(2)

어 ~ 허 ~ 어려려 ~ 어 ~ 룡 ~
어려 ~ 어려 ~ 어려령
어 ~ 도루루루 ~ 어려량
혜 ~ 하 ~ 어려려
녹수청산 흐르는 물에 혜 ~ 혜혜
초저녁 요 처녀들 오늘날 몰아보던
요런 발 몰린 적에 구경이나 허영들²⁶⁾ 가십서고저
어려 ~ 어려려 ~ 루루 ~
에 ~ 혜 ~ 우루루루 ~
이 발 저 발 굴러진 발에 자숙²⁷⁾이나 나건들랑그네
굽은 사람 물럼서라 속히 속히 낳으네
아기들 멕이멍 공부시켜허여 가멍 험시다
어 ~ 려 어려려 ~ 어려 ~ 령 ~ 에이 ~ 에이 ~ 양
우리 저기 해당봐도 서산에 가는 혜에
요 발을 허당 남으면 어떻게 허느냐
이 몽생이들 오늘날 이 시간을 가져그네
이 발을 든든하게 불러 땡²⁸⁾ 갑시다
어러러러 에 ~ 어 ~ 려 ~ 하 ~ 량
하늘은 거뭇거뭇 이 발을 오늘 두 줄 좋게 허영
요 발에 굴러진 조나 나게 허여 줍써 하늘님

26) 하여서.

27) 자식.

28) 밭아 두고.

어쩔니까 백성들이 허당봐도 모든게 부족합니다마는
이걸로써 천만 농사꾼을 알아그네²⁹⁾ 허영줍써
어려려려 ~ 어 ~ 허 ~ 어 ~ 영 ~ 하 ~ 양

6. 노 젓는 소리

1) 노 젓는 소리①

- 조사일자 : 1988년 7월 31일 오후
- 제 보 자 : 김부선 할머니
- 조사장소 : 김부선 할머니 댁

이어서나 이어서나 이어서나 이어도사나
 요목조목 훑던 목가 열두고개 넘든고개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우리어명 날 날적에 어떤 날에 나를 낳고
 요목동이³⁰⁾에 손에 썩이~손에 뻥 근살~을 박으려고 날 낳던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저어라 저어라
 이어도사나 이어서나
 젊은 기심 놓았다가 밭을 사나 집을 사나
 죽어지면 씩어갈 몸 젊은 때에 놀려보자
 이어서나 이어서나 이어도사나
 이어서나 이어도사나
 이물~배 앞~에랑 이사공아 고물~배 뒤~에랑 고사공아
 허리때 밑에 화장하영 물 때 점점 늦어나간다
 어서지고 어서가서
 구제기³¹⁾ 좋은 여³²⁾ 끝딜로 전복 든 굿머을³³⁾로

29) 알아서.

30) 손목.

31) 소라.

32) '여울'을 가리킨다.

33) 바닷가에 돌이 많은 곳, 또는 돌무더기.

뱃머리를 돌려나 주소

이어사나 이어사나 이어사나

저어라 저어라 저어라 저어라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뱃또롱을 하늘을 뵈우고 영지팍³⁴⁾을 놀리면서

지영가게 지영가게 이어사나

요물살은 썩었지만 스무남은 설라무네

요내야 상창³⁵⁾ 버릴 소냐 어서지고 갈디가세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요내야 상창 부러나지면 한라산에 쭈대야 나무가 없을 소냐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저어라 저어라 저어라 저어라

어서지고 갈디나 가자 이어사나

해다지고 날저문날에 어서지고 어서가서

우는 아기 젖을 주고 정든 남편 밥을주자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지당³⁶⁾보난 배도 고프고 힘도 떨어지고 못지키여

이어사나 이어사나 이어사나

우리어멍 날 날적에 요내 상창에

손에 썩이³⁷⁾를 박으려고 날 낳던가

이어사나 이어사나 저라 저어라

어서지고 갈디가게 저라 저어라

2) 노 짓는 소리②

·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저녁

34) '영딩이'를 가리킨다.

35) 노의 뒷부분, 즉 손잡이를 가리킨다.

36) 짓다.

37) 못.

- 제 보 자 : 이순철 할머니
- 조사장소 : 이순철 할머니 댁

이어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고물³⁸⁾에는 고물사공 이물³⁹⁾에는 이물사공
한장에는 하장하야 물때점점 늦어나가네
이어져라 저라 저어
요만 지엄⁴⁰⁾ 아니나간디 얼마나 지루허영 배가가려
진도바당 한굴⁴¹⁾ 로나 가렌말가
지어라 저라 저라 저어
요내 밴들대⁴²⁾ 그쳐나지면 인천항구 없을소냐
요내 상착 부러지면 부산항구 곧은 낭기⁴³⁾ 없을소냐
지어라 저어 저라 허니
고동⁴⁴⁾ 생복⁴⁵⁾ 좋은 들로 건너나 가자
야세야시

3) 노 젓는 소리③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오전
- 제 보 자 : 김희중 할머니
- 조사장소 : 정순녀 할머니 댁앞

이어도사나 이어사 이어도사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위마라

-
- 38) 배의 뒤쪽.
 - 39) 배의 머리쪽.
 - 40) 저어.
 - 41) 한꾼, 한가운데로.
 - 42) 밴드래코, 노의 고리.
 - 43) 나무.
 - 44) 소라.
 - 45) 전복.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내년 춘삼월~ 돌아오면 앞도피고 꽃도피고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는 만무로다

이어사 ~ 이어도사 ~ 이어사

우리어멍 날 날적에 무신날에 나를나서

대하바당 호미들르고 비창* 차곡

요 배에 뇌젓으멍 요 흘목⁴⁶⁾ 저 흘목

냉겨가멍 살렌 날나신가

이고라사 후라도사이

훈뽕지고 지고가자 젓고나가자

이어사 이어사 이어도사 ~

요만하민 집이갈만이 뇌도젓고

집이가건 밥먹고 저녁되건 물질허래 오라사켜

이어사

4) 노 젓는 소리④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오전

· 제 보 자 : 이춘옥 할머니

· 조사장소 : 이춘옥 할머니 댁

이어도 사나 ~ 이어도 사나 ~ 이어도 사나

어기여려 ~ 어기야라 ~

어느날랑 저덜가코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목저목 훑던 목은 ~ 어떻게나 ~ 지나가코

이어도사나 ~ 이어도 사나

우리배는 썩은 놈의 덕들이 ~ 배라도 ~ 잘도나간다

출락출락 ~ 잘도나 간다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46) 전복을 떼는 칼.

47) 손목.

요물아래 은과금을 길렀건만 ~ 나 이손이
 바빠지려 ~ 못날리라 못날러 ~ 라 ~ 못날리라 ~
 이어도 사나 이어도사나
 설운어멍 날 날적인 ~ 요런생활 ~ 허시라고
 날이나 납데가
 이어도사나 ~ 이어도사나
 물로 뱅뱅⁴⁸⁾ 돌아진 섬중 삼시⁴⁹⁾ 굶으멍 요 물질 허영~
 혼푼돈도 돈일러라 두푼돈도 ~ 돈일러라~
 매와사 금전 정든님 술값도 부족이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 이어도사나
 어떤 사름은 복이나 좋앙 고대강실 높은 집이
 정동화리에 불피와 놓고 오손도손 사는 거도 ~
 요내년은 복도어성 그런것도 못내허고 ~ 살암구나
 우리어멍 날 혼시 안 나시민
 요런생활 아니허영 살아보컬
 억울허고 칭원허영⁵⁰⁾ 몬살러라 ~ 몬살러라

5) 노 젓는 소리⑤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저녁
- 제 보 자 : A-김희중 할머니, B-정연춘 할머니, C-정순녀 할머니
- 조사장소 : 정순녀 할머니 댁

A : 어기여라 어기여거라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 사 이어도 사
 우리는 제주도 의 가이없는 해녀들 비참헌 살림살이 세상이 없구나
 이어 사야

B : 이여사

A : 이어도 사야

B : 이여사

48) 잇달아 여러번 도는 모양.

49) 세 끼니.

50) 칭원하다. 분하고 억울함을 들어 말하다.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 | | |
|--|--------------|
| A : 이어도 사야 | B : 이어사 |
| A : 하루종일 버스나 ⁵¹⁾ 버슨 것은 | B : 이어사 |
| A : 기가 막혀 이어도 사야 | B : 이어사 |
| A : 이어도사야 | B : 이어사 |
| A : 이어도사 | B : 이어사 |
| A : 하루종일 버스나 | B : 이어도 사나 |
| A : 버슨 것은 | B : 이어사 |
| A : 기가막혀 | B : 이어사 |
| A : 이올싼 대마도로 | B : 이어사나 |
| A : 돈벌이를 | B : 이어사나 |
| A : 갑시다 시 | B : 이어사 |
| A : 이어라사야 | B : 후라도사이 |
| A : 이어도사야 | B : 씨끼고 자라 |
| A : 이어도사야 | B : 고라고라 |
| A : 한 뭉지고 | B : 한 뭉지영 |
| A : 요목저목 | B : 요목저목 |
| A : 흘턴목을 허리알로 갱겨나들멍 ⁵²⁾ 저성가자 ⁵³⁾ | B : 이어사 이어사나 |
| B : 저 산천에 풀잎새는 해년마다 피건마는 이어사 | |
| B : 한 번은 가면 | A : 이어사 |
| B : 다시올 줄 | A : 이어사 |
| B : 모르는구나 | A : 이어도사나 |
| B : 이어라사야 | A : 후라도사이 |
| B : 이어도사야 | A : 치고자라 |
| B : 이어도사야 | A : 넘어나간다 |
| B : 이어사 | A : 이어사 |
| B : 이어사 | A : 이어사 |

51) 기본형은 벌다.

52) 갱겨 들멍. 감기어 들면서.

53) 저어서 가자.

- B : 이어사 요목저목 홀턴 목을 한 번지고 어서가자
 B : 이어도사 A : 이어사
 B : 이어사 A : 이어사
 A :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워말어
 내년 춘삼월 돌아오면 너희꽃은 피건마는
 요내 몸은 한 번 가면 다시 보기가 만무로다.
 A : 이어도 사나 B : 이어사
 A : 이어도 사나 B : 이어사
 A : 이어도 사 이고라사이 치고자고 너머나 가자 이어사 이어사 이어도사나
 C : 산이 높아 골수기 깊으지 자근만한
 A : 이어사 C : 우리가슴
 A : 이어사 C : 여자가슴
 A : 이어사 C : 열마하나
 A : 이어도 사나 C : 지뿔슨가⁵⁴⁾ 이어사
 A : 이어사 C : 이어사
 A : 이고라사이 C : 이어사
 A : 이어도사 C : 이어도사
 C : 바다바다 넓은 바다 둥둥터오는 저 구남아
 C : 나는 널 보면 A : 이어도 사나
 C : 한숨 이래 A : 이여 사나
 C : 너도 날 보면 한숨이다. A : 이어사
 C : 한숨 끝에 A : 이어사
 C : 가시던 낭군 A : 이어사
 C : 피서 때나 A : 이어사
 C : 돌아올까 A : 이어사
 C : 삼시 굶영 A.B: 이어사
 C : 물질 허영 A.B: 이어사
 C : 흔착⁵⁵⁾ 손에 A.B: 이어사

54) 깊을 손가.

55) 한쪽.

上 · 下 華 里 學 術 調 查 報 告

C : 태왁 ⁵⁶⁾ 짚어	A,B: 이어사
C : 혼착 손에	A,B: 이어사
C : 비창심곡	A,B: 이어사
C : 혼질두질	A,B: 이어사
C : 내려가니	A,B: 이어사
C : 별 같은 놈이	A,B: 이어사
C : 두개 시개 가져오니	A,B: 이어사
C : 요 낭군 술 값이	A,B: 이어사
C : 만중허다	A,B: 이어사
A : 이어라사나	B : 이어도사
A : 이어도사나	B : 이어도사나
C : 바다바다 넓은 바다	B : 이어사
C : 둥둥트는	A,B: 이어사
C : 저군남아	B : 이어사
C : 너도 날 보면	A,B: 이어사
C : 골수지영	A,B: 이어사
C : 너도 날 보면	A,B: 이어사
C : 간지밀씩 이어사	B : 이어사
C : 이어도사나	B : 이어도사
C : 해너해너 햐경도 처너	A,B: 이어사
C : 맹태장수 나가전만	A,B: 이어사
C : 맹태 풍탕이 풍풍 묽엉	A,B: 이어사
C : 부산연랑 떠나간다	A,B: 이어사
C : 어기여라	A,B: 어기여라
C : 상사디아	A,B: 이어사
C : 어기야고라	A,B: 이어도사나
C : 넘어나간다	A,B: 이고라사.
C : 나가 너를	A,B: 이어사
C : 뚝 떠릴 적에	A,B: 이어사

56) 해너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갖고 가서 타는 물건.

- | | |
|---------------------------|----------|
| C : 아프라고 | A,B: 이어사 |
| C : 때렸을까 | A,B: 이어사 |
| C : 사랑에 넘쳤 ⁵⁷⁾ | B : 이어사 |
| C : 똑 떠렸으니 ⁵⁸⁾ | B : 이어사 |
| C : 조금도 미안히 생각마라 | B : 이어사 |
| C : 이어사나 | B : 이어사나 |

7. 멜 뜨는 소리

현지에서는 멜을 거리는 소리라 한다. 멜은 멀치 종류를 의미한다.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오전
- 제 보 자 : 이춘옥 할머니
- 조사장소 : 이춘옥 할머니 덕

이여라 저여라 ~ 둥겨보자⁵⁹⁾

개코남저 개코남저

훑어 둥기라 둥기라

저눔덜 드리라 드리라⁶⁰⁾

8. 자장가

자장가는 어른이 어린아이를 잠재우기 위해 부르는 전승동요로, 때에 따라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에 의해서도 불리기도 하지만, 주된 창자는 어른이다. 전승동요의 경우, 가창의 주체는 대부분 어린이들로서 어린이의 의식과 정서를 투영시킨다. 이와는 달리 자장가는 어른들의 정서와 의식이 동심의 세계와 결

57) 넘쳐서.

58) 때리다.

59) 땡겨보자.

60) 때려라.

부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전승동요와는 유별되는 특이한 동요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자장가①

-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오후
- 제 보 자 : 김부선 할머니
- 조사일자 : 김부선 할머니 댁

자랑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은자동아	금자동아	
어서자라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나라에는	충성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왕이자랑	왕이자랑	
일가친척	화목동아	
형제간에	우애동아	
자랑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흔저자리 ⁶¹⁾	
흔저자사	저녁에 밥도허영	
나가먹고	느도먹고 ⁶²⁾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우리야기	착천야기	
어진야기	흔저자라	
할마님이 이 자손 머리말이 들어상		
어름쓸멍	재와줍서	

61) 어서 자라.

62)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착한아기	잠들엄구나	자랑자랑

2) 자장가②

-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오후
- 제 보 자 : 김축생 할머니
- 조사장소 : 하모 3리 방파제 앞

왕이자랑	자랑자랑	자랑
우리아기	재와도라	
느네아기	재와주마	
왕이자랑	자랑자랑	
놈의아기	고치 ⁶³⁾ 먹언	우는 소리
우리아기	둔밥먹언	자는 소리
왕이자랑	우리아기	아니 재와주민
질긴질긴	총배 ⁶⁴⁾ 로 묶엉	
천지소 ⁶⁵⁾ 에	들이청내청 ⁶⁶⁾	허는구나

3) 자장가③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오전
- 제 보 자 : 이춘옥 할머니
- 조사장소 : 이춘옥 할머니 덕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애기	둔밥맥영	둔좁 재와줍서
왕이자랑	왕이자랑	

63) 고추.

64) 말고리의 털로 만든 배.

65) 꾸부러진 깊은 못.

66) 들이쳤다 내쳤다.

上 · 下 裏 里 學 術 調 查 報 告

왕이자랑	왕이자랑	
올지마랑	돈좁 재와줍서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애기	돈밥맥영	돈좁 재와줍서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저래가는	검등개야	
우리아기	재와줍서	
우리즈순	재와줍서	
올지마랑	돈밥맥영	돈좁을 재와줍서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4) 자장가④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저녁
- 제 보 자 : 정연춘 할머니
- 조사장소 : 정순녀 할머니 대

자랑자랑	자랑	왕이자랑
엄마품에	폭안겨서	
칭얼칭얼	잠노래	
그쳤다가	또하면서	
새근새근	꿈나라로	
저녁~노을	사라지며	
돌아오는	밝은달이	
우리아기	잠든얼굴	
곱게곱게	비취주네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자랑
일가방상	화목동이	좁을 자라
왕이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白鹿語文 第15輯(1999. 2.)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자랑자랑	자랑
동네방상	화목동이	좁을 자라
웁이자랑	우리아기	잘도 잔다
자는것은	좁소리요	
노는것은	놈소리요	
웁이자랑	자랑자랑	웁이자랑
아이고	흔저자라	
흔저올지마랑	제게 자리 ⁶⁷⁾	
흔저밭디강 ⁶⁸⁾	일도허곡	
웁이자랑	웁이자랑	
흔저누웁자라	웁이자랑	
시녕물 질어당	밥도 허영먹고	
흔저자라	어는제랑	

5) 자장가⑤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저녁
- 제 보 자 : 김화중 할머니
- 조사장소 : 점순녀 할머니 덕

금자동아	좁을자라	
옥자동아	좁을자라	
웁이자랑	허여주저	
자랑자랑	허여주저	
자랑자랑	자랑허저	
우리아기	자랑허저	
우리아기	자는소리	좁소리여
노는소리	놈소리여	

67) 빨리 자거라.

68) 밭에 가서.

上 · 下 臺 里 學 術 調 查 報 告

왕이자랑	왕이자랑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아기	좁을 깐다	
왕이자랑	왕이자랑	허여주저
멍멍개야	짚지마라	
우리아기	좁을 깐다	
자랑자랑	자랑자랑	왕이자랑
우리아기	자랑허저	

6) 자장가⑥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저녁
- 제 보 자 : 정순녀 할머니
- 조사장소 : 정순녀 할머니 댁

자는것도	좁소리여	
노는것도	놉소리여	
금자동아	누윙자라	
옥자동아	누윙자라	
어서 자랑	허여주저	
설운아기야	무사울멍	
좁도자게	아니허영	
이영울만	허염디	
할마님이	이즈순을	
머리전에	사그네	
은같은	손으로	금같이 쓸어줍서
금실같은	손으로	은실같이 쓸어줍서
설운아기	아프게도	말아그네
곱게곱게	물외 ⁶⁹⁾ 크듯	
밤자나건	어웃어웃	키와줍서

69) 오이.

할마님이 머리전에 이즈순을
사근히 아자 천리사 ~만리
이즈순을 곱게곱게
물외크듯 키와줍서
할마님 손으로
못헐일이 무슨일이 있으리까

9. 시집살이 노래

-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오후
- 제 보 자 : 김축생 할머니
- 조사장소 : 하모 3리 방파제 앞

성님성님 스춘성님
시집살이가 어떡데까
아이고 야야 말도나 마라
시아버님 도련반에⁷⁰⁾
수제 걸치기가 어렵더라
성님성님 스춘 성님
시집살이 좋음데가 구집데가⁷¹⁾
아이고 야야 말도나 마라
암퉁닭은 시어멍에
족제비닭은 시누이에
솔치⁷²⁾ 닭은 서방에
고치장⁷³⁾ 단지가 맵다고 해도
나 시집살이가 정말 맵다

70) 둥근 밥상.

71) 나쁜니까.

72) 솔치(어류).

73) 고추장.

10. 동요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저녁
- 제 보 자 : 정순녀 할머니
- 조사장소 : 정순녀 할머니 댁

(1) 여러명이 다리를 엇갈리고 앉아 손으로 하나씩 두드리며 하는 노래

한다리 인다리 거친개
시자 노자 범~개
어 장자 구나구나
아롱 다롱 돌각 세근

(2) 1부터 12까지 세면서 부르는 노래

한나 인나 곤들 만들 철상 백상 고드레 따지 바외 진각 들래 물축

(3)

저산에 꾸뻑꾸뻑 헛거 뭐꼬
민분재기⁷⁴여 민분재긴 흰다
회민 하르방이여 하르방은 등굽은다
등굽은 쇠질맷 가지⁷⁵여 쇠질맷 가진 니구냥난다
니구냥⁷⁶나믄 시리⁷⁷여 시린 겁나
검으믄 가마귀여 가마귀 늙딘다⁷⁸

74) 미뻑쟁기, 역새꽃.

75) 쇠질매가지, 쇠, 길마.

76) 네 구멍.

77) 시루.

78) 기본형은 '늙든다' 이고 날뻐다의 뜻이다.

79) 무당.

놉디민 심방⁷⁹⁾이여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⁸⁰⁾여 철생인 좁진다⁸¹⁾
좁으민 강이⁸²⁾여 강인 붉나
붉으민 대추여 대춘든다
돌민 엿이여 엿은 훑은다
훑으민 지러기⁸³⁾여 지러긴 보리먹나
보리먹으민 쇠여 쇠 뿔돋나

(4)

오라 낭⁸⁴⁾허래 가게
배아판 못가켜⁸⁵⁾
무신 배 자라배
무신하늘 청하늘
무신청 대청
무신대 왕대
무신주시 꿩주시
무신꿩 장꿩

(5) 심방말축(메뚜기) 잡고 하는 노래

춤추라 정의대정 굿구경 가게
춤추라 정의대정 굿구경 가게

(6) 즐넘기 할 때 부르는 노래

80) 대장장이.
81) 집는다.
82) 계.
83) 지렁이.
84) 나무.
85)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

큰 기러긴 앞으로
작은 기러긴 뒤으로
사이 좋게 날아라

(7) 5월 비온 후 땅에 구멍이 패인 것을 보고 하는 노래

수열 제열 내려오라
쇠똥범벅 개똥범벅 해여주마
수열 제열 내려오라
쇠똥범벅 개똥범벅 해여주마

(8) 기타

들에불라 산에불라
앞 밭이 평독새기 열 개 나시매
느 하나 먹곡 나하나 먹곡
남은건 뒷집이 어정가곡⁸⁶⁾ 앞침이 가정가곡

11. 창민요

1) 김축생 창

-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오후
- 제 보 자 : 김축생 할머니
- 조사장소 : 하모3리 방파제 앞

(1) 큰 애기 풀이

다리송당 큰애기들은 피방아 지러만⁸⁷⁾ 나가고



김축생 할머니

86) 가져가고.

87) 찢다.

청수당⁸⁷ 큰아기들은 삼동타러만 나가고
조소낙천 큰아기들은 지름 장수로만 나가고
조천해변 큰아기들은 망기천으로만 나가고
설개자물개 큰아기들은 가마촌으로만 나가고
모록밭⁸⁸ 조다니⁸⁹ 큰아기들은 숫장수로만 나가고
동광서광 큰아기들은 물뚱 주스레만 나가고
구엄리 신평 큰아기들은 용기장사로만 나가고
동서일과 큰아기들은 소금 장수로만 나가고
상하모리 큰아기들은 물룣장사로만 나간다

(2) 베틀가

베틀을 노세 베틀을 노세 옥난간에다 베틀을 노세
에이야 베틀은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노라 수심만 지노라
주야장차 베틀만 짜면 어느 시절에 시집을 가보나
에이야 베틀은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노라 수심만 지노라
주산백동 칠성포요 시절에 강계 육성포라
에이야 베틀은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노라 수심만 지노라
반공중에 걸린 저달은 바지장단에 다넘어간다
에이야 베틀은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노라 수심만 지노라
꽃이 피면 오신다던 님이 낙엽이 떨어져도 왜 아니 오시나
에이야 베틀은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노라 수심만 지노라
낮에 짜면은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월광단이다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어느새 시절에 시부모나 위해나 볼까
에이야 베틀은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지노라 수심만 지노라

2) 조영화 참

·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저녁

88) 모록밭, 안덕면 상천리.

89) 덕수리, 서광리, 동광리.

上·下裏里 學術調查報告

- 제 보 자 : 조영화 할머니
- 조사장소 : 조영화 할머니 댁

아 ~ 아양 에 ~ 예요
 한라 ~ 산 중허리에 실현개 훈쌍 날았으니
 아 ~ 아양 예양 에 ~ 양
 하지마 ~ 한 옛 금요일에는 잠이나 들똥 말똥
 아 ~ 아양 예양 예양 에 ~ 양
 한라 ~ 산 중허리에 오백 장군이나 놀고노니
 아 ~ 아양 에 ~ 예요
 한라 ~ 산 봉우리에 선녀가 열두성제⁹⁾나 놀고노니
 아 ~ 아양 에 ~ 양 ~ 어양
 서귀 ~ 포 칠십리에 물새가 울고우니
 아 ~ 아양 에 ~ 양 어 ~ 양
 송악 ~ 산 바다에는 유람선이나 놀고논다
 아 ~ 아양 예양 어양 어양

3) 김화중 창①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오전
- 제 보 자 : 김화중 할머니
- 조사장소 : 정순녀 할머니 댁 앞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우리인생 한번가면 또다시 올줄은 만무로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자 좋네
 아니 놀 ~ 지는 못하리라
 나도 널 믿고 못살사정 너도 날 믿고나 못살 사정
 없는 금전은 탄식을 말고 깊이 든정을 변치마라



김화중 할머니

9) 열두성제

얼씨구 좋네 ~ 지화자자 좋다 ~
아니 놀지는 ~ 못하리라

4) 정연춘 창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오전
- 제 보 자 : 정연춘 할머니
- 조사장소 : 정연춘 할머니 덕 앞



정연춘 할머니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고구춘 ~ 명 이른 흥해에 부산에 등실은 높이
나쁘고

양국 ~ 에 처진함은 월봉 ~ 으로만 날아나들고
여장 ~ 춘에 개가 죽고 우현봉 구름이 높이나 떴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해도 설위마라
명년 ~ 춘삼월 돌아오면 꽃도 ~ 피고 앞도나 피어
만발이 충선이로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아
아니 놀지는 못하리로다

아니 ~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낙양 ~ 산 십리허에 높고낮은 저 무덤은
영웅 호걸이 몇몇이나 절세 가인이 누구던가
우리네 한번 죽어지면 저기 저모양 또 되련만
살아생전에 임과야 함께 버들거리고 놀아나보자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좋다 지화자자 절씨구 좋아요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5) 김화중 창②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저녁
- 제 보 자 : 김화중 할머니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 조사장소 : 정순녀 할머니 덕

아라아라 방아로구나

아 ~ 아야 에 ~ 에헤요

노세 놀아 저디 놀아 저디 절망 놀라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살라

아 ~ 아야 에 ~ 에헤요

아무리 살아도 단 팔십이로구나

아 ~ 아야 에 ~ 에헤요

노스나노나 짧어서 놀시다

아 ~ 아야 에 ~ 에헤요

늘고 병들면 못 노른다

아 ~ 아야 에 ~ 에헤요

저기로 가는 것 우리님 아니나

아 ~ 아야 에 ~ 에헤요

천하도척 아니거든 날 돌아나 보세요

아 ~ 아야 에 ~ 에헤요

6) 정연춘 창②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저녁

· 제 보 자 : 정연춘 할머니

· 조사장소 : 정순녀 할머니 덕

늘고 병들면 못 노나니 달도 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인데 아니 놀고서 뭐들하리

아작작 범나비 성사 날 좀 생기신 버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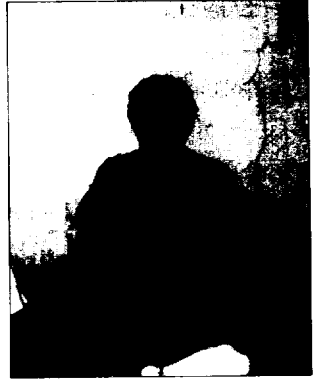
날 쥐생길 버러지도 짝을 지어서 다닌건마는

언자면 우리 이 몸도 유정님 만나서 솔짝 끼워 놀어

서월이 좋다해도 임만 없으면 적막강산

어쩌다 이내몸이 시꾸한생 이내몸이나 되어

시프런 밥 못 먹구요 기쁜 한숨이 좀 못이뤄
가지랑 가실적만정 정한 가지만 두고나가소
어려서 글 못변^ㅁ 죄로 슬렁서이 몸이나배영
벗서정 너른 터에 연기 꺾구서 누웠으니
밤중에 긴 땀담소리 가슴이 드르르르
헤헤 친구가 남이런만은 어이 그리도 유정하누
보면은 반가와지고 몬 보면은 그리워라
아마도 유정무정은 사귄탓이 아니든가



정순녀 할머니

7) 정순녀 창

- 조사일자 : 1998년 8월 1일 저녁
- 제 보 자 : 정순녀 할머니
- 조사장소 : 정순녀 할머니 댁

강변 봄바늘 이미 떨어진 가지다가
모정세월 앞뭇이룬 앞머리를 진진허게 베어나볼까
에헤 ~ 요 봄брь름도 못 믿을 이루 ~ 다
걸으는 저기 저 물만 흘렁흘렁
노래마다 밝은 자주 만고풍상 비바람에
맨며 지씨나 지었는고 에헤 ~ 요 봄보들도 못 믿을 이루 ~ 다
흐르는 저기 저 물만 흘러 흘러서 가누나

說 話

목 차

- | | |
|------------------|-----------------|
| 1. 조사경위 · 제보자 | 18) 귀신이야기(1) |
| 2. 자료 | 19) 마라도 전설(2) |
| 1) 문씨입도설화 | 20) 여우이야기(1) |
| 2) 금장터 이야기 | 21) 옷 잘못 입은 이야기 |
| 3) 효자, 열녀 이야기 | 22) 도채비 이야기(1) |
| 4) 원형방(1) | 23) 귀신이야기(2) |
| 5) 강백년(1) | 24) 마라도 전설(3) |
| 6) 오좌수와 신영물(1) | 25) 귀신이야기(2) |
| 7) 오찰방(1) | 26) 강백년(2) |
| 8) 막산이와 정훈다(1) | 27) 도채비 이야기(2) |
| 9) 무남뱃 좌수 | 28) 지명유래(3) 모슬봉 |
| 10) 지명유래(1) 모슬 | 29) 오좌수(3) |
| 11) 지명유래(2) 대정 | 30) 향장의 유래 |
| 12) 날개 잃은 두 아기장수 | 31) 오찰방(3) |
| 13) 산방댕이의 눈물 | 32) 막산이(3) |
| 14) 이좌수(1) | 33) 귀신이야기(3) |
| 15) 막산이(2) | 34) 귀신이야기(4) |
| 16) 오찰방(2) | 35) 마라도 전설(4) |
| 17) 마라도 전설(1) | 36) 마라도 전설(5) |

1. 조사경위 · 제보자

제1일(1998년 7월 31일)

12시 경이 되어서야 간단한 짐정리를 마친 뒤 앞으로의 조사계획을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상·하모리를 두루 조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으나, 전년도 조사지

역인 일과리와 근접해 있어 많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은 탓으로 하모리는 저녁에 조사하기로 하고, 1차 조사는 우선 우리가 목고 있는 대동노인회관이 있는 상모2리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도로변의 가게 앞에 앉아 있는 몇 명의 노인들로부터 이 동네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할머니를 소개받았다. 그래서 먼저 그 분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 허갑생(여·86세, 상모2리) : 몸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자녀들과 함께 산다고 하였으나, 아들 내외는 보이지 않고 할머니 혼자 있었다. 연로한 탓으로 발음이 분명치는 않았다. 그러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비교적 소상히 해 주었고, 조사자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답변하였다. 사전 조사한 바로는 이 지역에 마라도 전설과 해녀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고 있다 하여 조사자들이 이야기를 유도하였지만, 제보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며 생각나는 다른 이야기 몇 가지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나 제보자의 몸이 불편한 듯 하여 긴 시간의 조사는 무리인 것 같았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나와 사전 답사 때 약속이 되었던 허성순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그러나 댁에 계시지 않아 하는 수 없이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허갑생 할머니께 들은 자료를 토대로 전사작업을 하였다.

저녁 식사 후 반원들은 제보자들에게 이야기를 유도하는 과정이 미숙함을 서로 지적하고, 2차조사에 현승환 교수를 모시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차 조사는 사전 답사 때 소개를 받은 고춘언 할아버님께 가기로 하고, 현승환 교수를 모시고 하모리로 향했다.

○ 고춘언(남·73세, 하모2리) : 제보자는 노인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고, 인근에서는 학식이 높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4·3 항쟁 등 여러 가지 취재에 응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매우 적극적으로 조사에 답변해 주었다. 지금은 자녀들이 모두 분가하여 두 내외만 살고 있었다. 정규 교육은 보통학교까지였으나, 한문을 스스로 공부하였고 항상 책을 읽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책장에는 대정읍지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서적들이 가득하였으며, 사회, 문화, 이 지방의 역사 등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제보자는 표준어 구사에 능하였으며, 세 시간 여에 걸친 긴 조사에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자세한 이야기들과 함께 자신의 소견 또한 빼놓지 않고 말하였다. 시간을 보니 10시가 한참 지나 있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양해를 구하고, 따라서 부족한 것은 다음 조사에서 제보하겠

다는 약속을 받고 숙소로 향했다.

제2일(8월 1일)

3차조사는 인근에 있는 상모리 노인회관을 가기로 하였다. 회관 안에는 여러 노인분들이 있었으나, 뒷날 섬 문화 축제에 단체관람을 하기로 하여서인지 행사 준비에 바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반원들은 우선 1, 2차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사작업을 함과 동시에 4차 조사계획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으고, 대동노인회관으로 돌아왔다.

4차 조사부터는 반원들이 2개조로 나누어 활동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상. 하모리를 두루 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반원들 모두 같은 생각이 있는지 흔쾌히 동조하였다. 4차 조사에 1개조는 어제 약속이 되어 있던 허성순 할머니 댁으로 향하고 1개조는 대동노인회관에 남아 노인회장님과 함께 오기로 한 제보자를 기다렸다.

○ 허성순(여·66세, 상모2리) : 어머니가 해녀였다고 하며, 최근까지 본인도 직접 물질을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토바이 사고로 몸을 다쳐 요즘은 가사로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우리가 찾아온 것을 매우 반가워 하며 고맙다는 말을 여러번 하였다. 남편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 정년퇴임 하였고, 슬하에 3자녀분을 두고 있었다. 아직 미혼인 아들이 있으며, 우리에게 선배들 중 좋은 신부감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농담을 하는 등 매우 쾌활한 성격이었다. 그리고 나이보다 매우 젊어 보이는 외모였고 표준어 구사에도 능하였다. 또한 어촌계에 종사하며 7년동안 해녀회장을 한 이력을 가진 분이였다. 한라문화제 때에는 마라도 전설을 연극으로 만들어 출연하였었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경험도 있어서인지 매우 수월하게 자료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 또 이야기 중간에 수박을 썰어 내놓는 등 조사자들에게 신경을 써 주었으며, 조사가 끝나자 전날 방문했던 고촌언 할아버님과 가까운 친척이라며 그 분을 찾아가 볼 것을 권하는 등 여러모로 조사에 도움을 주려 애쓰는 것이 보였다.

5차 조사는 저녁을 먹은 뒤에 이루어졌다. 1개조는 직접 대동노인회관을 방문한 강필봉 할아버지를 만나기로 하고, 1개조는 노인분들이 저녁때 많이 모인다는 게이트볼 장소로 향했다.

○ 강필봉(남·78세, 상모1리 3036번지) : 20세부터 향교에 다니기 시작하여 지

금까지 57년간 다녔다고 하며, 대정향교의 전교로 있다고 하였다. 제보자는 손짓, 몸짓을 해가며 열심히 이야기해 주었는데, 조사자들의 얼굴표정까지 하나 하나 살피는 등 매우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 말할 때의 어투를 “~했어요” 등의 표준어를 사용하려고 하였다. 사투리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자, 버릇이 되었다고 하며 웃음을 지었다. 이 분 또한 이 지방의 역사, 문화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진 듯 하였으며, 조사자가 물어보는 이야기마다 여느 제보자에게 듣던 것보다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치아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고, 나이보다 젊정하게 보였다. 자신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산다는 말을 하며, 이번 학술 조사에 매우 깊은 호의를 보였다. 조사자들이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도록 궁금한 사항들이 없나 간간히 확인하는 등의 호의적인 태도로 조사에 참여하였다.

제3일(8월 2일)

아침식사 후 조사계획을 짜기 위해 간단한 모임을 가졌는데, 하모리에 대한 조사가 상모리에 비해 미흡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6차 조사에서는 하모리에 대한 조사에 1개조가, 상모리 조사에 1개조가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7차 조사부터는 2개조가 모두 하모리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1개조는 어제 게이트볼장에서 약속된 분들을 만나러 가기로 하고, 1개조는 노인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하모리의 정익보 할아버님을 만나기로 하였다.

○ 정익보(남·64세, 하모리) : 전화를 걸어 자택으로 찾아가겠다며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찾기가 어려울 테니 직접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오자마자 할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쓴 사람이 누구냐며 자신은 제주대학교 졸업생이므로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편하다며 웃음을 지었다. 10세 때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제주대학 법학과를 4회로 졸업하였다고 한다. 표준어를 많이 사용하며, 발음은 매우 정확하여 전사에 어려움은 없을 듯 하였다. 또한 이제까지의 제보자들이 古談, 우스갯소리, 귀신 이야기 등을 ‘히여뜩한 얘기’라며 꺼려한 것과 달리, 어서 책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하며 조사자들을 격려했다. 형제분이 없이 중학교 3학년때 결혼을 하여 가족들과 함께 산다고 하였다. 조사자들이 들으려는 얘기에서 벗어나는 적이 없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만을 이야기 해 조사가 매우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점심 때 친지의 환갑 잔치에 사회를 보기로 하였다는 이야

기가 생각나. 인사를 하고 조사를 마쳤다.

점심식사 후 7차 조사에는 반원모두가 하모리로 가서, 2개조로 나누어 두루 돌아다니며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1개조는 해수욕장 근처로 가고, 1개조는 길가에 있는 커다란 나무 밑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노인네들에게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 김춘옥(여·68세, 하모리) 외 4인 : 주위에 시어머님과 동네 할아버님,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꺼려 하였다. 모두 아는 것이 없다고 했지만, 체보자만은 대체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었다. 이야기를 잘 하는 분이 오늘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으나, 가장 나이가 젊고 조사에도 관심을 보였다. 다른 네 분도 옆에서 가끔씩 거들기도 하였다.

7차 조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8차 조사를 의논하였으나, 상모리는 연로하신 분들을 거의 만나보였고 하모리도 7차 조사때 두루 돌아왔으므로 7차 조사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8차 조사 때는 자료에 있는 신영물, 오좌수 비석을 촬영하였다. 이것으로 모든 조사를 마감하였다.

2. 자 료

1) 문씨입도설화

제 보 자 : 고춘언(남·73세)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고춘언 할아버지댁(하모2리)

요약 : 중문은 옛날에 정씨와 문씨가 들어와서 '정문'이라고 하다가 '중문'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데 어느날 그 문씨집에 스님이 와서 쌀을 얻어 가려는데 그 집 아들의 인상을 보면서 '단명하겠다' 라고 말을 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스님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아들이 오래 살까요?' 하고 물어보니 부자지간에 얼굴을 보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대정골 임씨를 신부로 맞이하고 대정골 가까이 집을 지어서 살게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진마공감으로 원나라에 가게 되었다. 진마공감으로 가면 살아서 돌아오기가 어려웠으므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떠날 생각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된다. 아들이 아버지가 진마공감으로 떠나게 된 것을 알고 대정원에

가서 아버지 대신에 자기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대신 떠나게 되어 대가 끊길 줄 알았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태기가 있어 서너달 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 후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도 죽게 된다. 문씨의 내력이 이와같이 해서 유복자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아서 하나는 일과리 쪽, 다른 하나는 하모리 쪽에 살았다고 한다.

정씨하고 문씨가 들어올 때 중문리(서귀포시 중문동)로부터 셋동네 중문리가 사름 안 사는 아주 그 꽃밭, 밀렵지대였던 모양이라 중문리가, 계난 문씨(文氏)가 어떡하였냐면은 남평(南平) 문씨가 육지서 입도(入島)혼 지가 맏 대(代)냐면 십스 댕가 십오 댕다. 정문이, 정문이 허다가 이제는 중문이엔 허주마는. 전인 정문이 정문이, 정씨(鄭氏)하고 문씨가 들어왔다 해서 어 정문이 정문이. 이제는 중문이로 된 거지. 중문이.

겐디(그런데) 그 문씨가 글로(그리로) 들어왔는디, 아마 그 아버지가, 그 옛날에는 멧석 알지? 덕석, 덕석을 마리(마루)에서 덕석을 짜는디,

“권재(시주) 줌서, 권재 줌서.”

중이 와서 목탁치면서 해가니깐, 아버지가 그 아덜은 서당에 댕이는 호생(學生)이었던 모양이라, 아마 혼 여나쁜 솔 나신고라.

“야, 권재 줘볼라.” 하니까,

그 중한테는 그 저 뭐꼬 이 거지 동냥바치 거지보다는 낮게 대접헌단 말이여, 아 쏘을 듬뿍 혼나 겨려당 준 모양이라, 잘 췌던 모양이라, 하니깐, 옛날 쏘이 그 근방에 어려운데 혼 사발 갖다 주니까, 중이 상당히 고마워 뵈여, 그 어린 호생이 준 거 보니까, 가만이 인상을 보니깐,

“에이, 거 참 단명(短命) 허겠다.”

꼭 단명홀 기상이라, 아 참 뭍음씨는 좋고 하영 주고 하니깐, 아방 ㄹ만이 ㄹ치고 잠깐 들어보니까,

“에이, 단명 허겠다.”

ㄹ라두언 그 중이 나가볼엇단 말이여, 아덜 보고,

“이리 오라.”고,

“아까 그 중 뭐엔 해니?” 하니까,

“뵈이엔 안 ㄹ릅데다.”

“아까 뵈이엔 안 곤덴?” 허난,

“단명호켄 ㄱ릅니다.”

게난 그 외아덜이라. 그게 또 겐디 아버지로서 단명호겠다는 말 들을 적에 얼마나 섭섭홀 거라. 그 중 어디갔넨 호니까.

“저레 갑데다.”고 호니깐,

막 뛰어가지고 중ㄱ라,

“이레 오라.”고,

막 오랜 허난. 옛날에는 중을 천헌 거. 중이어서 양반네 집이 이 방안에 들어오도 못호여. 중은. 아주 아주 그만시 멀시당홀 때라.

그러니깐 중ㄱ라 막 올라오라고 호니깐 ㄴ시 안 올라왕. 아 올라오라고 막 추운 날이고 호니깐 올라오니깐,

“아이 게, 스님이 아까 우리 아덜한테 뵈이엔 ㄱ랐나?” 호니까,

“안 ㄱ라수다.” 호는 거라.

“그래도 ㄱ른 말이 있지 않느냐?”고,

“제발 스님이 아까 ㄱ른 말 얘기해 달라.”고.

하도 간청을 해가니깐, 중이 호는 말이,

“이 아이 단명호쿠다.”

아이, 경 ㄱ르니까, 부모 입장으로 단명호켄 들으니깐 얼마나 속상홀 거라.

“스님! 어떻호냐고. 스님이 단명호 줄 알면은 장명(長命)호 줄도 알 게 아니냐. 스님 이 아으 목숨 질게 호는 방법을 이야기해 달라.”

하도 모릅니덴 호당도 하도 경 얘기 호난, 그저 하나 얘기 호쿠덴. 부자 간에 상면(相面)을 마십센.

“얼굴을 상면호지 마십서.”

“경호민 장수호니다.” 했다 말이여.

“아, 그러민 멀리 떨어지면 뵈겠느냐?”

거 아버지가 이제는 그 말 들으니깐, 아, 얼굴 상면 말젠 호민 먼 디 부즈간에 갈련 살아야겠다 해서, 중문리. 신부를, 어디곤 호민 대정골. 임씨를 구혼 거라. 대정은 중문리서 먼 디거든. 임씨를 구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중문인 아방 살고, 그 아덜은 ‘들메기’엔 현 디. 그자 단산(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나지막한 산. 바굼지오름)호고 모솔봉 소이라. 대정골 어느 남쪽이고 현디 거기 집을 지쳤

어. 거긴 집도 처음이라. 집을 지서서 대정골 가까이서 살고, 이녁은 멀리 떨어져 면서, 아들 얼굴을 아이 보젠 하니까, 그니깐 무슨 ㄱ를 말 이시민, 요새 같은민 전화로 ㄱ라시메 얼굴 안 상대해도 통화할 수 있는디. 옛날에 전화가 었을 때니 까 아들이영 말 곤쟁해도 얼굴 상면하게 돼니까, 아방이 중문서 걸영 오랑 집밖 이 사둡서(선 채로).

“애야, 애야.”

부르면, 메느리가 집 밖에 나강 메느리한테 얘기하여. 아들은 얼굴 상델 안 하여, 메느리한테 얘기해 가곡, 또 메느리가 보기 싫으면 통역(通譯)은 메느리가 강 호곡해서, 애비 아덜 상면을 맺 해 동안 안 했다 말여, 안했는디.

아 흥번은 아방이 이제 아덜을 꼭 만나야 홀 거라. 건 어찌 했느냐면 진마공감(進馬貢監), 우리 다 학생들 알 거라. 원(元)나라가 제주도를 이제 딱 점령해가지고 말을 여기서 목장에서 말 키우민 군마용(軍馬用)으로 원나라에 바찌는 거라. 건 다 알암실 거라. 학생들.

〈조사자 : 예.〉

그것이 진마공감, 말을 진상(進上) 올린다 하여. 진마공감은 여기 사람이 말을 시켜서, 옛날 그 저 나무배에 그 배로 시켜 가지고 저 몽고에 가져가민, 그 아득한 거 아니라게, 몽고에 가서 물을 바찌는 거라. 이 바다로 해서, 그거는 열 개 감시민 하나 사나마나 헐 거주게, 그것이 해당뎨면은 죽을 걸 각오해야지게, 겐디 그 아방, 문씨 아방이 진마공감으로 대정원에서 딱 지적한 거라.

“너는 물을 바치라.”

그 명령을 하니깐, 그 저 뭐 어디 명령이라. 건 죽어도 가야된다 말여. 가게 돼니깐.

“나는 이제 죽었다. 살앙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막툑(마지막)으로 아들안티 온 거라. 그때 아들 만나지 말아시민 될 걸, 아들안티 와서, 만나서.

“나는 진마공감으로 원나라에 가니까, 널랑 집이서 어머니 잘 모시곡, 조상에 산소 잘 호곡, 기일제사(忌日祭祀) 잘 하라.”

신신당부로 유언을 한 거라. 어퍼행 어느 밧이랑 어떻하고 어느 건 어떻하고 어떻하고 …… 이제는 보통 뎨 상면까지 아이 호다가 막 죽게 그렇게돼니까 홀 수 없다 해서, 그분 아덜안티 말하니깐, 아덜이 아마 열 대여섯살 난 모양이라.

上 · 下 幕 里 學 術 調 查 報 告

“아버지 안됩니다. 아버지가 가서 안 됩니다. 저가 가겠습니다.”

“안된다. 내가 가야지. 넌 젊은 거난 남아야 한다.”

“아닙니다. 저가 가겠습니다.”

부자간에 이제 막 다투는 거라. 아덜은 나이 많은 아버지가 감보단(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젊으난, 제가 가겠습니다.”

아방은,

“아니다. 나는 다 됐으니까 가도 좋고, 너는 살아야 한다. 여기서.” 흐는다.

아덜이 대정 관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빼고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어찌 만리 타국에 거친 바다를 갈 수가 있습니까. 안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흐니까,

아 이 대정관에서는,

“기특하이. 효자다. 이것이 참 네가 참 효자다. 늙은 아버지를 빼고, 거민(그러면) 너가 가라.”

그때는 부인이 아기가 유태(有胎)된 때라. 유태해분디 게니까 아버지는 항시에 말려도 아들놈이 교체돼분 거라. 게니깐 아덜이 그 물을 실러가지고 문 가부니까, 간 메기지. 거야 뭐 거 살 리가 있나 말이며, 그러고 바다에서 수장(水葬)행 거 메기니까 대가 끊어져야 될 건디, 마침 거 유복(遺腹)子. 부인이 얘기 뵈 때 아마 서낙달이 뒹눴던 모양이라. 그러니깐 뱀편이 간 후제 소식 어신 후제도 난 건 보난 아덜이라. 아덜이니까 유복자(遺腹子)란 현 건 대를 잇은 거주게. 게난 그때부터는 육지서 멧 대에 온 차례도 몰라 불고(제주도에 멧 대 조상이 들어온 지도 모르고), 그 하르방도 후에 아들 소식을 알고 죽어 분 거라. 또, 내가 무사 만나지레 간고, 아들 만나지 마랑 내가 줌증행 가볼 걸.

게서 대(代)가 그차지니까, 어디 그 아덜 하나 나서 장개가서 아덜이 형제 나서 하모(下幕)에 왔다가 흐나는 일과리(남제주군 대정읍의 한 마을) 가고, 흐난 여기 산다 이거여. 그것이 그 중 예언이 백중(百中) 맞은 거라. 부자간이 상면 말 아시민 아덜이 살 건디(살았을 것인데), 그 때 그만 막톡(마지막)에 아덜을 만나 부난 아덜이 그 저 효성에 감복해영 가부난 아덜이 죽어분 거지. 게난 단명한 거 지게. 거 결과적으로, 후(後嗣)는 서도, 이런 그 문칩의 내력이 이와 같이 해가지고 유복자가 나아서 자식 두 개로 해서 하모하고 일과리가 아주 대벌족(大閥族)

이라.

〈조사자 : 경호영 그 유복자가 나중에 결혼 했어네.〉

게, 아들 형제 난 게(아들 둘 나서) 일과리에 하나 가고 이디 하나 남았다. 게 니까 아주 별죽이라. 잘 돼서. 그걸로 보더라도, 그 중의 예언이 백프로 맞았다.

〈조사자 : 예언이 맞았으니깐 그렇게 된 거지. 그러믄 그 뉘평 문씨들은 여기 와가지고 입도(入島) 몇대나 하는 걸 모르는 거네 양?〉

몰라. 몇대 모르니까. 여기 오건 지가 몇던지. 산[墓]이 중간에 몇대가 어서져 부니깐, 추모비(追慕碑)를 요 흔 삼년 전이 중문이 강 세운 모양이라. 게난 몰라 분 거주게. 그 유복자로 나노니깐, 또 하르방도 죽어볼고 해노니깐. 뭐 메느리렌 해도 저쪽으로 잘 모르곡. 메느리 하자 마자 얼마 어성 먼 죽어부난.

2) 금장터[禁葬地] 이야기(1)

제 보 자 : 고춘언(남·73세)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고춘언 할아버지 댁(하모2리)

요약 : 비양도는 처음 떠와서, 혹은 날아와서 생겼다고 하여 이름을 비양도라고 한다. 군산은 생길 때 며칠 동안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바다에서 솟아났다고 한다. 또한 군산은 영산이라서 남몰래 묘를 쓰면 비가 오지 않는데, 이처럼 가뭄이 들 때면 누가 몰래 묘를 썼다고 하여 이를 찾아내 파 내면 비가 온다고 한다.

〈조사자 : 여기 군산(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감산리, 대평리에 걸쳐 있는 산. 굴메오름) 있지 아니하우파? 군산.〉

응. 군산.

〈조사자 : 군산에는 그디 금장터 잇젠 하는디 양. 그런 말 들어봐수광?〉

나도 거 전설에 들은 말이지. 뭐, 갑자기 저것이 솟아났다.

〈조사자 : 그거는 어떻게 생겼젠, 저 군산은 어떻게 생겼젠 말 들어나수가?〉

처음엔 그 산이 으셨다가 아마 내가 보건대 폭발행 올라 온 거주. 산이 어디 바다로 밀려왔다. 어디서 터 왔다 하는 것은 비양도(飛揚島, 북제주군 한림

上·下裏里 學術調查報告

읍 협재리 앞바다에 있는 섬)라는 것은 섬이 터왔다곤 해서 비양도란 거라.

〈조사자 : 그거 흠뻑 돌아줍서(말씀해 주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

아니 비양도엔 흔 건 우리가 듣기에는 난데어시(난데 없이) 흐룻밤 자고 나니까, 아! 비양도가 쑥 올라오명 그 몰래(모래)를 자락 밀려부니까, 그 섬지 방이 왕 몰래가 많이 밀려왔다. 저것은 떠온 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飛) 재에 돌아왔다 경해서 비양도렌 이름을 지엿덴 흐는 거라.

〈조사자 : 놀앙 오당 어떻 흐영 그디 멈췄덴 험니까?〉

아니, 섬이 어디서 돌아왔다 이거지. 누게 뭐 그 시상 사람이 전설로 내려온 말이지. 누게 기록헌 것도 아니고 …….

〈조사자 : 바당에서 영(바다에서 이렇게) ……〉

응, 그렇지.

〈조사자 : 어떻 뭐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

응, 거기 저 군산은 메틀동안(며칠 동안) 안개가 드러 졌다. 안개졌다는 거 볼 때는 땅으로 분화구가 서 그 연기가 솟아올랐지 아니 흐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디, 저건 아마 근처에서 폭발한 것 같아. 오래지 아니헌 역사같아. 군산은.

〈조사자 : 언제쯤〉

나도 건 확실허 연도는 모르뻬, 근처에 와 저 산이 됐다는 것은 아는 거주게.

〈조사자 : 또 다른 데서 보면 저기 저 군산 금장터 만이 아니라, 터를 이제 풍수지리상에서 좋은 터를 봐 봤는데, 거기 강 부친이나 조부님이나 이렇게 묻젠 흐영 보든 비둘기가 날아가부러가지고 ……〉

아! 그런 것은 이 산방(山房山)에도 이서서. 날이 막 ㄹ므라서(가물어서) 비가 아니온다. 경 흐른 산방에는 어디 보면은 산 쓰면은 비가 아니온다 해서, 막 초치레(찾으러) 땡겨났다. 이런, 그런 일이 많이 중간에 이서난 모양이라.

〈조사자 : 아〉

경 흐민 거기 파불민 뭐 비가 온다.

3) 효자 열녀 이야기

제 보 자 : 고춘언(남·73세)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고촌언 활아버지 댁(하모2리)

요약 : 무릉2리에 문씨 효자가 있었는데, 집안이 몹시 가난했다. 한양에 경복궁을 지을 때 부역을 가서 노래를 잘 불렀다. 그것으로 상을 받게 되자 먹지않고 싸 두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제주에 있는 늙은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자 진정한 효자라며 집으로 돌려 보내주고 큰 상을 내렸다 한다. 또한 문씨의 사촌도 유명한 효자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려 하자 혈수를 먹여 살려내었다 한다. 그리고 신평리에 오열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집을 가서 얼마 안되어 남편이 죽자 동네 청년들의 유혹도 물리치고 수절해서 나라에서 열녀비를 세워 주었다 한다.

〈조사자 : 이, 저 효조, 열녀 얘기 알아지는 거 이시믄 골아줍서.〉

열녀, 효조, 아, 우리 지방에 가장 옛날로부터 그 효조, 효조 하는 것은 아주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 비석을 근거를 삼아야지. 그 전, 효조는 근거 어성 모르는다, 저 무릉2리 가면은 문소저 문소저 효여, 문효조(文孝子)지. 그 문효조는 어떻효영 효자가 났느냐 효면은, 예, 사춘(四寸) 하나, 여기 막 흥년이 드니까, 스춘들 데령 육지 가그네 효다그네 보리나 익으믄 또 들어오꼭 효주게. 옛날엔 살기가 곤란하니까 그디 강 얻어먹었는데,

가다가 아마 서울까지 올라간 모양이라. 서울가서, 경복궁 짓으믄디 아마 가니깐 나라에 큰 역서(役事) 헌다니깐, 가면은 점심은 잘 주니까, 가니깐,

“내 흥번 소리나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그 집터 다리젠 하민 막 그 역공(役工)들이 모다들었 이렇게 막 터를 다리는디(다지는데),

그 문씨가 소릴 잘 배운가(배웠는지), 소릴 하니까,

“어허 궁성 달구로다.”

다른 사람은,

“에헤 불사 당구로다.” 하는다,

이 사람은,

“어허 궁성 달구로다.” 효여가명 말하는 것이다,

아! 이놈이 어떤 놈인고 해서,

“너 어디냐?” 하니까,

“제주돕니다.”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제주서 어찌 이디 왔느냐?” 하니까,

“나라에 큰 역술(役事를) 혼다니까 내 봉설하래(봉사하러) 왔습니다.”

거. 얻어먹으려 가도 그랬다고 하니까,

“아, 그러냐?”

아. 이 사람 잘 뒀었젠. 맛좋은 음식주니까 음식을 먹지 아년 똥똥 싸.

“너 먹지 아년 왜 싸느냐?”고,

“저의 집엔 늙은 노친(老親)님이 계신데, 이런 나라가 주신 좋은 음식을 제가 어찌 목 아래 느려가겠습니까? 제가 이걸 노친님안티 갖다 올릴랍니다.”

“너 이놈아, 제주도에 이 음식을 ……”

그 당시에는 요새말로 멧 돌 걸려사 제주 올 건디. 너 이놈 어째서 그걸 제주 가경 가젠 하느냐?

“씩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제 이 목 알로 느려가지 못하겠습디다.”

아. 경 하난, 아 이놈이 효자라고. 아. (웃으면서)

“너 어디 살고 누구누구냐?”

하니까,

“어디 어디 삽니다.”

하니까, 아 이거 진짜 효자라고.

“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것이 바로 효자 충신이다.”

게서 그 효자(?) 관두고 멧 달 동안 어디 얻어먹엉 댕기당 완 베려보니깐, 집 이는 효자관문(孝子官文)하고 큰 나라에서 상을 내려온 거라. 요새말로 운전하고 해서 내려오니깐 자기도 상 초릴 줄 몰라난 모양이라. 아! 이거 아주 효성이 지극하다. 옛날 제주목사(濟州牧使)로 해서 대정현(大靜縣)으로 해서 이 사람을 이 거 갖다 주라 해서. 저들이 효자 맡은 것이 유명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 스춘이 이서.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셔 가니깐. 옛날엔 갖은 약과 모든 걸 해 봐도 그 나순(나은) 게 엇곡 하니까, 이 손가락을 영 놔 가지고 작두로 탁 끄차, 상손가락을 끄차가지고, 피를 이제 그 아버지 입더래 영 노니까 그 피를, 혈수(血水)엔 맥이니까 아버지가 살아났어. 하. 이거 참 효자라고 해서. 경 하니까 스춘 형제가 효자관문이 나 가지고, 저, 이제 저디 세웠어. 저, 사계(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서 들어가젠 호민 인녕이(남제주군 대정읍 무릉2리 인

향동)엔 흐 다. 저 고린다리(지명)엔 흐 다. 이것이 우리 효자로. 여기 이 고장에
서 큰 효자랜 일컬어 오고.

〈조사자 : 어디 들어가는다 마썸〉

인냉이레 들어가든 뒤어. 저 고린다리.

〈조사자 : 무릉2리마썸?〉

응.

〈조사자 : 인향동 마썸?〉

응. 인향동. 입구에 큰 비석 두개 새겨지고.

또 신평(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에 가든 오열녀(吳烈女) 오열녀 흐는 할망이
흐나 있어. 오열녀. 그 열녀 할망 흐나는 오씨 할망이다. 우리 얼굴도 알아져. 늘
중간에 그, 신평 동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있주게. 크게 흐나. 이제 비 흐나 세와
전 서.

그 할망 살아셔도 이제 백 이십 여세 된 할망이다. 그 할망이 아마 그 시집을
가 가지고 뽀편이 얼마 못 살아서 죽어본 모양이라. 게난 아기도 아니 나 보고
흐난. 경 험 동네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 할망 접근해가니까. 아 목매여 가
지고 죽을라고 흐는 거라. 죽어서 뽀편하고 같이 갈라고. 경훈 것을 사람들이 들
켜서 그걸 클러서(풀어서) 못하게 해서 흐니까. 이것이 진정한 열녀라. 해서 오열
녀 할망 비석이 세와전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또 그 외에 이러저러한 열녀.
효자. 효부덜이 많이 있는디. 내가 노인회장 흐면서 열녀. 효부 나도 멧 사름 해
뤘는다.

요디 오신선(이수생?)이 할망이라고 요든(여든) 난 할망이다 이제 살아이서.
내가 향교에서 이런 걸 발굴하젠 해 가지고 막을 대정읍 전채에서 적합한 사름
을 골라봐도 요디 할망이 가장 대표적이라나서. 할망신디(할머니에게) 가서 내
영 정(이리 저리) 해서 열녀를 흐나 보고홀려 흐니깐 뜻이 어떻습니깐. 흐니깐
하이고 날ㄱ뜨(나같은) 건 해당되지 않는다 흐니깐. 아니 시대가 말을 곤는다 요
새는 그정도민 뒤니깐. 이걸 오늘 간단이 생각 말고 이 삼일동안 잘 의논하고. 동
네사름이나 조캐덜광(조카들 하고) 의논해 봐두민 이 삼일 후제(뒤에) 올테니깐
잘 생각행 봐 둥센 해팅 난 와 부뤘단 말이여.

삼일 뒤연 가니깐. "아 우리 조캐덜토 히여만 지민(할 수만 있으면) 열녀 흐렌

上·下裏里 學術調查報告

하고 우리 오라바님도 하여지걸랑 하여만지민 하렌 경 모두 찬동하더라고.”

그러면 호적초본 하나 띠고 사진 몇 장만 청 놔 둬서 했거든. 아 쟁 사진찍으
렌 하고 그것을 하젠 하민 행적설(行蹟書를) 꾸며야 하여. 그 사람의 효행에 대
한 것을 행적설 써서 보고해야 심사훈단 말이여. 계행 그 할망한테 차초지종을
몰어 보니까, 열 아홉에 시집을 가서 스물 셋에 과부가 들었는데, 딸 하나 데리고
있는데, 스고무친(四顧無親) 집안이라. 그 집안이. 아무도 었는 집에, 친족도 없곡
아무도 없는 집안이다. 씨어머니 있고 딸 하나 데려오고, 제스(祭祀)할 때도 친족
이 없으니깐 그 과부가 혼자 제스도 지내고 명절(名節)도 혼자 지내. 친족이 아
무도 없거든. 산(묘소)에 조상 벌초(伐草)도 혼자 하고, 아 이렇게 한다는 거라.
아 계서, 그 사실을 써 가지고 올렸더니, 제주도 전체 놔 가지고 심사하는 건디
인정이 돼서, 합격돼서. 아, 향교에 가서 상을 타젠 하면은 친족들이나 누계가 같
이 가서 좀 봐 줘야 할 건디 이거 안 돼겠다 해서, 조름(뒤)에 친족이 없어. 친정
조카가 서너넛 있는데. 조케덜안티 얘기하고 “저 삼춘 상타레 가젠 할 때는 ㅁ찌
따라가곡 가서 좀 봐야한다. 사진도 찍고 좀 봐야 한다고. 또 마을에 가서는 이
부락 마을에서 부녀덜도 가고 청년덜도 가곡 해서, 하루 이 할머니 아덜 뉘고 딸
뉘고 해서 좀 하라.” 하니깐, 아 건 좋수다 하면 택시 대절하면 청년회장하고, 부
락 동장하고 할망 모션 향교에 가서 건사하게 상을 탄. 부락에 와 가지고 대환영
대회를 했어. 부락에서, 바로 프랑카드 내붙이고. ‘이수생 할머니 열녀 대 환영’
하고, 꽃다발 하고 뭐 하고, 부락에서 다과회 다 하고, 부락 전민(全民)이 모여가
지고 그 할망 뉘 하는다. 경과 보골 내가 했다 말이여. 이 할머니에 대한, 효부 열
녀 상을 탄 경과보고를 내가 했다 말이여. 그 걸 들으면서 모두가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모두가 거 잘 했다. 잘 해 줬다고 했지.

4) 원형방(1)

제 보 자 : 고춘언(남·73세)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고춘언 할아버지 댁(하모2리)

요약 : 대정현의 한 좌수가 잠을 자는데,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살펴보니, 전

에 죽은 원형방이 있었다. 원형방이 자기의 제사집에 갔다가 아들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자를 화로에 밀쳐 넣어 화상을 입게 하였다고 했다. 다음날 좌수가 그 집에 가 보니 원형방이 말한 그대로여서 아들들을 야단치고 약초를 뽑아서 손자의 다친 손을 치료해 주었다. 그 다음 해에 원형방이 다시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하자 좌수는 자신의 임종 일을 물어보고, 시간이 흐른 뒤에 목욕재계하고 옷을 단정히 하고 죽었다고 한다.

응. 경허난 내 그것에 비행 나도 하나 곧주(말하지). 아까 ㄹ른 그 무남뱃 좌수란 이가 중문(서귀포시 중문동)인디. 그 열리(서귀포시 예래동)에는 그 원가(元哥), 그 원씨, 원형방(元刑房). 옛날엔 현감(縣監) 아래에는 형방이 있곡 이방(吏房)이 있곡 좌수(座首)가 있고 허는디. 형방이렌 혼 사름이 요새 곱으민 공직에 있는 사름이지. 근디 옛날엔 관료라 행 좀 천하게 봐. 옛날엔 월급 받는 사람을 천하게 봐. 이방이민 요새 곱으민 뤼이랄까. 아. 군청같으면 내무과장 님은 거지. 총무과장이나 뤼는디, 근디 그때는 거 아전이라고 헤났는디.

헤났는디 원형방이란 사름이 산 때 무남뱃 이좌수한테 아주 근친(近親)하고 잘 지내는디. 허루는 잠더니(잠을 자고 있는데), 아,

“좌수님, 잠수광? 잠수광?” 허난, 아,

“누구냐?”

밤에(?) 원형방이 나타난. 아,

“자네는 돌아갔는디(죽었는데) 어째서 나타났는넌.” 허니까,

“나 오늘 제습니다. 제스니까 제스보레 간 보니까 이놈들이 켜(제사는) 두루쳐 두고(제껴두고) 막 성제끼리 싸움만 하고 있길래, 이 새끼들 기차 부에나곡 허근테(화가 나길래) 손지 하나 화리레(화로에) 밀려뤼네(밀쳐두고) 허니까,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거라.

아, 경해도 내 너무 억울 허니까 내 좌수님한테 원정 들으레 오랑 감이우덴(와다가 가는 것이라고). 허난,

“아, 그러냐.”고,

“내, 게민, 내, 강으네(그러면 내가 가서) 알아듣게 잘 야단 허겠다.”고,

“가그네 그 저 ㄴ말 뵤사그네 츠매른(채소를 뽑아서 썬매면) 좋은덴 곱아뵤썬.” 경 했거든.

“그 자네 그, 아 영 오랑 가는디, 너무 혼 거 아니넌.”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나 다음이랑 또 만나쿠다” 헐, 경해동 금방 사라정 없어.

‘이거 진짜 원상방이 오랑 가신가?’ 헐당 보나네, 원형방 아덜신디 아덜네 집이 강 보니까, 식계(제사)는 들째두고 아은(아이는) 막 그 손에, 화룻불에 손 짚어 죽어가멍. 왁왁하고 이서. 아, 헐는 거 보난 원상방 ㄱ른 말이 맞아. 손지 하나 영.

“언치낙 제사 해 나시넌.”

“제사해났덴.”

“언치낙 너네덜 싹지 안 헤시넌?”

아. 귀신골이 알아 .

“아으 이거 저 손 화룻불에 다쳤지?”

“예.”

아. 곁는 거 보난 딱딱 맞아.

“너희들 언치낙(어젯밤) 정성을 잘 못 해부난 너희 아방은 응감(應感)도 안 헐 연 가부렀다.”고.

“명심헐영 잘헐라.”고.

아.

“경 헐고 저 아으라그네(아이는) 저 ㄴ말 뻘사그네 츄매라.”고.

아. 경해동, 와부런. 뒷해엔 또 원상방이 나타나가지고,

“좌수님, 잠수광?”

또 원상방이라.

“갱 어뎡 헐영 또 영 완(어떻게 또 이렇게 왔느냐)?”

헐난 아,

“덕분에 오늘 저녁에는 잘 출려십디덴. 덕분에 잘 응감행 감수덴.”

헐난에, 무남밭 이좌수가,

“계난 난 어느 제쫘 내가 저승에 가게 뉘 있넌?”헐니까,

“내 가그네 ㄱ르쿠덴. 강 오랑 내 알으켜 드리쿠덴.”

헐는 걸 보니깐,

“아무날 아무시에는 모욕단장헐고 잘 행 이십센.”

계난 그 모친이 살아있던 모냥이라. 그 무남밭 이좌수가. <조사자 : 예!> 아. 어머니안티 인사헐고 하직 인사헐고. “나는 아맹해서(이리저리 해서) 가게 뉘수덴.” 해그네 모욕 다 헐고 웃 다 출령 영 아쟝당. 그자 아. 죽어분 거라. 갱해니까 그

원상방이 무남뱃 이좌수하고 서로 약속 대로 딱딱 맞아. 그 무남뱃 이좌수가 보통 사름이 아니고 이인(異人)이랴주, 이인.

그런 이인이니깐 구신하고도 상통천문(上通天文), 하달지리(下達地理), 서로가 통했지 아니했겠느냐? 그런 말은 있주마는. 건 근거가 확실한 말덜이라

5) 강백년(1)

제 보 자 : 고춘언(남·73세)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고춘언 할아버지 댁(하모2리)

요약 : 동일리에 강백년이라는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저승사자의 착각으로 한 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른 강백년이 며칠 뒤에 죽었다.

(앞선 원형방 이야기에 바로 이어진 설화이다.)

그리고 이 동네 이런 사람이 하나 이서. 죽어가지고 한 이틀인가 있당 살아난 사람이 있단 말이여.

〈조사자 : 아, 저승갔다 온 얘기구나.〉

응. 강백년이런 헛 하르방이 하나 이섯는다. 아 죽어도 날 걸어네(맞지않아서) 대렴을 못헛 이섯는다. 이 할으방이 갑자기 살아났어. 살아나더니 이쪽에는 성 강(姜)자 강백년인디. 이 하르방이 죽더니 또 동일리 편안 강(康)자 강백년이 죽었어. 경 하니깐 일름이 바파전. 그니까 어땡행. 그 하르방 깨와보니까,

아 그디 강.

“너 일름이 뭐이나?” 혼난.

“강백년이우다.” 혼난.

영 봐서, 문세[文書] 봐 가지고,

“아, 이건 잘못 잡아왔다고.”

잘못 잡아오니까. 이것이 아니고 편안 강자 강백년이 잡아오랜 혼난.

“성 강자 강백년이 잡아오지 아니 호였냐고. 널랑 나가랜”

혼난 강아지 하나 내주명.

“이 강아지 따랑(따라) 가랜.” 허난.

강생이 조롭(뒤)에 조찬 따라 드리 우에로 가난 아 강생이가 물젠, ‘왕’ 허게 대드난 바락 겁난 짐(김)에 깨났덴 허는 거라. <조사자 : 모두 웃음> 경 허영 그 것이 확실헌 건가 허연 간 보난, 동일리 사름이 죽었어. 보리 비례 간 오랑 츠낙 먹당(저녁을 먹다가) 죽어비였어. 게난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이디 강백년이 살아 나고 저디 강백년이가 갑자기 죽은 거 보민 이것이 맞지 아니훈가. 영 생각도 허는다.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가고 죽고 살고 허는 것은 뭐냐 허면, 그 강님츠사(강님 差使)라고. 저승허고 인간에서 사름을 오가면서 잡아가는 것은 강님이가 잡아간 다는 거라. 그 강님츠사가 수백년 수천년 돼니깐 이제 늙어불고 허니깐 활동이 모지랜(모자란) 것 같아. 계연 그 사름이 이제 활동력이 모지래니깐 사름을 잡아 가진 못허고 임문(임무는) 불어나고 허니까 칠십 팔십 구십 백 난 사름이 동네마다 막 하(많아). 옛날에는 착착 잡아내영 허나 버청 빠 버리기도 했는다. 이제 강님이가 저승, 옥황상제한테 나 늙어불고 이제 활동을 못허니깐, 버천(부처서) 못 허쿠덴 해가니까, 체시[差使] 둘일 더 보충홀 테니까 어떠냐. 허연 체시 들을 더 보충해 준 거라. 어떠행 그 체시 둘이나 허민 도시에는 교통체시, 농촌에는 농약 체시 둘이가 더 나왔어. 게난 강님이가 늙은 활동을 못해도 체시 둘이 보충웨연, 게니깐 교통체시가 이제 강님일 강 술술 득올려(꼬여), 매일 보민 스고나. 거, 농촌총각 젊은 놈덜은 기차 허민 약 먹영 죽어. 게니까 강님이 허나 허던 걸 교통 체시도 담당허고, 농약체시도 담당허고 허니깐, 이제는 쓱쓱쓱 잘 가고.

<조사자 : 모두 크게 웃음>

허허허. 이제 알암서.

6) 오좌수와 신영물(1)

제 보 자 : 고춘언(남·73세)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고춘언 할아버지 댁(하모2리)

요약 : 일본 사람들이 대정에 들어와서 자꾸 행패를 부리자 마을 청년 다섯명이 모

여 일본 사람을 혼내주다가, 큰 싸움으로 번져 한명이 죽고 나머지 네명은 중상을 입었다. 대정현에서 그 사실을 알고 다섯명 모두에게 좌수의 벼슬을 내렸고, 1996년 대정연합회 청년회에서 오좌수비를 신영물 옆에 세웠다.

〈조사자 : 뭐, 오름 이신 동네에 가면 예, 막 옛날 이야기들 막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런 거들 막 전설 오름에 얽힌 전설이나 오름에 전설들 한 가지 뭐.〉

아까 일본 사람들 말하니까 한 가지, 여기 가면 신영물(대정읍 하모리 소재 샘물)이라는 물이 있어. 요 신영물, 신영물 오디 가면 그 옛날에 상모나 하모나 전부 그 물 먹었 식수 해난 건디 이젠 수도 걸어신디. 신영물이라는 건디. 오좌수에 관한 거 나 하나 말하주. 오좌수는 뭐이나.

〈조사자 : 예.〉

성이 오씨가 아니고 다섯 오채(五字), 좌수라, 오좌수, 다섯 사람이 좌수다. 그 어찌행 좌수냐 하면, 아까 70년대로 일본 사람들이 그 항구에 지금 말하면 포구에다가 기계선을 여나무(여나무) 척 이상 영 하나, 일본 사람이 한 척에 보통

7~8명 썩 타니까 7~80명 오라서 모두 여기 사는다. 일본 사람들 습관이 여름이 나면 이 뺨스를 안입어. 이 후루시 하나만 영 해영. 이렇게 줄루고(줄라매고) 이거 하나만 영 가리지. 옷을 딱 벗어 다니지. 우리 나라의 풍습에는 여자라는 것은 치마 안 두르면 올래 밧곳딜(바깥에) 나가지를 못해서. 그런 케케묵은 그 봉건시대에 일본들은 벌겍게 벗은 놈들이 백주 대낮에 활보행 다녀가민, 이디 사람들은 가다가 확 무시행 다 도망가불어. 그 신영물에는 가면은 여름철 나면 부인들이 모욕(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물도 질어(길어)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본놈들이 이렇게 후루시 하나만 입고



오좌수 행적비

벌거벗은 놈들이 목드르 담넙엉 물 질어서 간단 말이며. 이디 주민들이 겁을 내 가지고 다 도망간단 말이며. 여긴 옷통도 아이 벗고 여자가 이 알몸만으로도 텅 기지 않해나서. 옛날에는 꼭 치마를 입고 꼭 하는 시상에 그 일본놈들이 그러니 얼마나 겁이 나고 그럴 거여. 자꾸 그런 일이 생겨가니깐 그 놈들도 재미만 막 냥. 이디 부녀자들도 겁난 돌아다녕 재미만 막 나니깐. 일본놈들이 막 다올린단 (쫓는다는) 말이며. 경해가니깐 우리 지역 사람들이 물 질레 가는 걸 아주 무섭덴 하고 꺼리거든. 아이고 어찌 이 왜놈들이 와 노니까 살지 못해서 안돼겠다.

이 막을 짧은이들이 청년들이 다섯 사람이 이 “에이 일본놈들 때려 눕히자!” 해서 몽둥이 들른 사람을 또 가만히 잠복(潛伏)헛당이네, 일본인들이 그 물질래 온단 말이며. 그 때 그놈들 잡아 내 두들긴 거라. 몽둥이로 “이놈의 새끼, 왜국놈의 새끼들이 와 가지고 우리 부녀자들이 겁내고, 이놈들 나쁜놈들!”이라고. 막 두드리니까, 이놈들이 삼시에 다섯 사람들이 몽둥이 가져서 기습작전으로 잡아 내 들어가니까 맞아가지고 물도 못 질엉 배에 돌아갔다. 일본 사람들은 다 이쁜도 칼들도 다 창(창서) 나와가지고 그 다섯 사람들신디 싸움붙엉 하니까. 그 몽둥이 가진 사람이 칼 들은 사람하고 싸움 붙어져? 헛 사람은 거기서 직사(즉사)해. 어, 직사하고 칼 맞아서. 너이는 막 칼 맞아노니까 모두 자빠정(쓰러져서). 근데 가보니까 그 뭐 당가. 이름을 당에엔 헛지 옛날엔, 돌치엔 헛지. 당가에 낭(나무)으로 행이네, 것 다 들러다가 치료행 너이는 목숨살고 사람은 죽었다는 거라. 그것이 우리 관(官)에, 대정현관에 보고헌 이가 알아가지고 일본놈들이영(일본놈들하고) 싸운 걸 수고했다 해서 좌수벼슬을 그 다섯 사람에게 준 거라. 좌수 그것들이 그 직함이지, 벼슬. 그러니까 그게 외좌수영도 하고 오좌수엔 곱아. 다섯 사람이 좌수니까 오좌수. 성이 오씨가 아니고 오좌수. 이렇게 해서 요즘같으면 그 사람이 아마 보훈대상에서 지금 연금을 받아야돼주게. 일본 사람하고 투쟁하다가 죽었으니까 죽고, 그 사람들은 아마 몇 년 동안 강경해서, 일본 칼로 내후리니까, 죽진 안해서, 살아는 왔지만은. 이것이 나라에서 그 노력준다는 것이 좌수벼슬한다는 거지. 게니까 오좌수지.

말만 들어오다가, 삼년 뒤실 거여. 어, 96년, 96년도에 대정연합회 청년회에서가 이 오좌수라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잊어선 안 돼겠다 해서 오좌수 비(碑)를 세웠어. 이 신영물에, 이 신영물도 멀지 안해. 이 시내에 내려가면 요기라. 음료수가 아주 좋은 곳이다. 그래서 오좌수라는 벼슬이 거기서 나가지고 작년, 작년, 재작

년이 오좌수비를 세웠다. 이것이 가장, 훗사람들 오늘 사람들이 오좌수네를 몰라. 이것이 정해년(丁亥年)이난 백 호 17~8년 전이 현 일인다.

7) 오찰방(1)

제 보 자 : 고춘언(남·73세)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고춘언 할아버지 댁(하모2리)

요약 : 오찰방의 아버지가 오찰방의 누이를 배었을 때는 부인에게 소를 12마리를 잡아 먹였고, 오찰방을 배었을 때는 9마리를 잡아서 먹었다. 오찰방이 어렸을 때부터 힘이 세어 아버지가 때리려 하면 날아서 피해 버렸다. 어느날 오찰방이 역모에 걸릴 것을 염려한 아버지가 오찰방에게 술을 먹이고 인두로 거드랑이 밑의 날개를 지저 버렸다. 오찰방은 커서 씨름판이란 씨름판에서 항상 일등을 하곤 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 지고 말았다. 집에와서 알아보니 그 사람은 남장을 한 오찰방의 누이었다. 나라에 큰 도적이 들어 아무도 잡지 못할 때, 오찰방이 나서서 그 도적의 목을 베었다. 대궐로 들어가는데, 개신장군이면 끝까지 말을 타고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오찰방은 중간에서 내려 걸어서 들어가고, 나라에서는 찰방이라는 보잘 것 없는 벼슬을 내리고 말았다 한다.

여러분 알카? 여기 오찰방이라는 게 이서, 오찰방. 찰방이라는 것은 계급이라, 그건 무가[武科]에 해당하는 지금은 사단장급 되는 거지. 오찰방이라, 그 오찰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대정골, 대정골서 양반인다. 이 양반이 어떻게 사(어떻게) 힘이 세고 용력(勇力)헌디 그 오찰방네가 옛날부터 부자집이었던 거라. 처음에 부인이 유태를 하니까 소를 열 두 마리 잡아서 산모(產母)를 맥였다 이거라. 낳고 보니 딸이라. 다음은 소를 아홉 마리를 잡아서 먹은 거라. 그 산모가. 다음은 낳고 보니 아덜이라. 아덜이 얼마나 용력하고 힘이 세고 했는지, 아버지가 무슨 일로 뜨리자고(때리려고) 하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남사시러워서(남 보기 부끄러워서) 저 바금지오름을 앞으로 올랐다 뒤로 올랐다 헌단 말이여. 자꾸 영해가니까 거 이상하다. 이놈이 또 필연 무신(무슨) 일이 나면 나라에서 큰 화가 당하지 아니할까 해서 아덜을 아마 열 몇살 난 때, 강 술을 막 맥인

上·下事里 學術調查報告

모양이라. 먹영이네. 그 술에 막 취했 자니까. 놀개가 돋켰다는 거라. 놀개가 돌아 나니까. 이거 잘못하면 나라에서 큰 역적 모의를 해서 우리 산적으로 몰릴 거라 해서 그 윤디. 영 옷 다리는 거. 윤디 알지?

〈조사자 : 인두마쌈?〉

윤디로. 윤디. 윤디 것에 불 붙여서 놀개 맨든 걸. 영 두 개 다 지저분 거라. 놀개 크지 못하게. 지저분한. 아 깨고 보니깐, 놀개가 금방 다 몽스라져부렀단(망가져버렸다는) 말이야. 아 근데 탄복할 일이 어떻게 힘이 세고 용력한지 아주 제일 천하 대박이라. 어디 가도 씨름판에 가도 일등하고 하는데. 한 번은 씨름하는데 일등을 거의 할 무렵인데. 어떤 남자가 하나 들어와서 씨름을 붙었던 말이야. 아. 오찰방이 졌어. 지니까.

“아. 이 세상에 날 이길 사람이 어디 있는고, 어디 있는고?” 해서.

집이(집에) 가서 부에난(화가 나서) 누워있더니. 누님이 물허벅 정 오다가.

“오라방 씨름에는 어떻 하면?”

“어떤 놈이 썩고 와서 날 눌러붙영 시상(세상)에 날 이긴 놈이 다 있나?”

“그 일등한 패관이 이거.”

“계매, 누님이나 날 이기지.”

누님이 더 썩었다는 거라. 천하무적으로 기운이 썩 양반이다. 그 때에 영조(英祖) 땐가 나라에 큰 저. 뭇고, 도적, 지금 말하면 이적이 하나 나와서 잡지 못했던 말이야. 하, 이놈이, 동이 번쩍 한번 잡젠해도, 원래 썩 놈이라 잡진 못하니까. 나라에서 큰, 요새말로 아마 공고를 헌 모양이라. 이것 잡는 자는 큰 벼슬을 주겠다. 이 도적을 잡는 놈. 에이 그 책임 내가 하겠다 해서, 그 오찰방이 군수를 거늘영 나가가지고 그 도적이고 맞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그 도적의 모가지를 그차가지고 상투를 풀어서 풀랭이(말 꼬리)에 돌아매서 물을 타고 이젠 서울 장안에 영 들어와가니까, 아주 개선장군이지게. 물 타고 적을 하나 잡안 오라가니까, 대궐 안에 들어가는 놈들이 아, 대궐에도 물 탕 감다가는 저놈 크게 혼다 하니까, 대궐엔 들어가니까 물을 느렁가니까 저놈 개선장군이면은 도도하게 들어와야 장군이랜 할 건디 저 놈. 섬 놈은 혈 수가 아서. 참 찰방 벼슬 하나 쥐서 쫓아분 거라. 큰 괴수(魁首) 이날 잡아서. 그런 양반이 그 대정 지방에 얽힌 전설이 하나 있고.

8) 막산이와 정훈디(1)

제 보 자 : 고춘언(남·73세)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고춘언 할아버지 댁(하모2리)

요약 : 막산이는 안덕면 창천리 사람으로 종의 신분이었다. 하루는 주인이 수해를 입은 밭을 갈라고 하자 혼자 50명분의 점심을 먹고 일을 끝냈다. 이를 눈치챈 주인이 막산이를 먹여 살릴 수가 없음을 알고 막산이를 내보냈다. 갈곳이 없던 막산이는 굴속에 숨어 살면서 주변의 소들을 잡아먹고 살았다. 대정현감이 백성들의 피해를 듣고 정훈디에게 막산이를 잡아오라고 시켰다. 정훈디는 막산이에게 가서 며칠 동안 지내며 안심시킨 후 쇠몽둥이로 두팔을 때려 못쓰게 한 뒤 막산이를 잡았다고 한다.

이 대정(大靜)이라 호민 사름이 특수헌 인물이 많이 나. 특수한 인물이엔 호민 과거에 급제(及第)를 호거나 부자로 이름난 사름이 어서. 대정엔 울타호는(힘이 세고 말썽을 잘 피우는) 사름이 많이 나와. 대정엔 용력, 요셋말로 쿠테다 그런 센 뤼이. 덩치는 사람 죽이는 이런 잠놈들이 대정엔 많이 나지. 큰 벼슬을 호거나 과거에 급제헌 이런 인물은 아니나. 그것이 오찰방 호나호고, 기운은 썩기로 말호민 막산이, 천하 막산이. 제주도에는 전무후무(前無後無)헌 막산이. 저디 창천리(남제주군 안덕면의 한 마을) 사름이라. 창천리, 대정 호른 저쪽은 판포(북제주군 한경면 판포리)로부터 에, 저디는 법환리(서귀포시 법환동)까지가 대정이라 호는디. 막산이가 얼마나 큰지 50명분 밥먹고 50명분 일헌텐 호는 사름이라. 창천리 배염바리 집의 종으로 있었는데, 항시 이 사름은 배가 고파. 한 번은 큰 풍수 수해(水害)가 닥쳐 가지고 논이 싹 쓸어부니까, 주인이 논을 수축(修築)호젠 호니까 사름을 빌어야 될 거 아니라.

“50명을 빌었으니까, 50명분 밥만 점심이라근에 논밭디 가져오민, 점심만 50명분 가져웁서 점심만.”

집에선 부라부라 50명분 밥을 가정 강 보난 막산인 즘을 자고 있었어.

“어느 거 놈(일꾼)이냐고 호니까?”

아 거 점심만 내비고(놔두고) 가불면은,

“아 놈은 내 잠깐 데리고 이견 오늘 다 해지기 전에 다 멍칩니다. 멍칩니다.”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아, 숨어서 봤어. 50명분 밥 다 먹고, 혼자 거 잡아 갈기고 하늘이 부영해여(부영게 흐려). 하늘이 부영하니까, '저 어떤 일고, 하 이상하다.' 그 비밀로 뒷날 아침에 가 보니까, 아 논밭이 깨끗이 정리했어. 그러니까 50명분 먹고 50명분 일하니까 주인이 '이제 안 돼겠다. 이것은 나 집에서 굶고 살았구나. 이것을 맥일 재간이 없다.' 해서, 옛날엔 종 흐른 주인이 종문서를 소화시키고 석방해야 자유로 나가지. 경 안흐른 절대 못 나가는 거주. 주인이 종문서를 스라불고(태워버리고),

"너 믿음대로 강 벌어 먹여라. 너를 맥일 수가 없다. 50명분을 다 먹는데 내가 어떻 흐영 너를 맥일 수 있느냐?"

그러고 나가니깐, 막산이가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막산이굴 흐는 것이 저 경마장드레(제주경마장쪽으로) 가당(가다가), 가기 조금 전이 막산이굴(지명)이라고 있어.

〈조사자 : 굴마썸?〉

응. 굴. 굴 소굽(속)에 강 살면서 소를 잡아 먹어, 소, 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깐 놈(남)의 소 그냥 아무 소 잡아 먹으니깐, 이 막산이 잡을 재(자)가 없어. 너미(너무) 천하무적이라부니까, 게니까, 그 이 대정현감에서가 흐는 말이,

"이거 잡을 재가 누게 있느냐?" 하니까, 정훈디라고 흐는 사람이 새계(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사람인디, 그 사람이 막산이 만인(만큼은) 못해도, 그 새계에서는, 그 지금 말흐면 삼대바지엔 흐지, 옛날에는 목선(木船)으로 해서 고기도 낚으레 가고, 자리(자리돔)도 뜨고 흐는 건디, 고길 주면 2만이 내불고 고길 아이 주면 그걸 혼자 막 등겨다가(당겨다가) 모살왓딜(모래밭에) 올려비여.

〈조사자 : 배를?〉

응. 배를 혼자, 그렇게 센 사람이야. 그런 사람 2라,

"너 강 잡을 재냐?" 흐난,

"내 강 잡으쿠다." 하니까,

아 그 사람이 막산이신디 가시니까,

"너 날 잡으래 왔지?" 흐난,

"아이고 성님, 난 잡으레 온 게 아니라, 날 하도 배고판 못 존디니깐(견디니까) 성님 이시덴 흐난 곶이 오란 배나 채우젠 왔수다."

"아, 그러냐?"고 하니까,

며뜰은 2찌 소도 2찌 잡고 2찌 묵었다는 거라. 이젠 안심헌 거라. 막산이도,

경 허영 막산이가 마구 잘 때에도 쇠몽둥이(쇠몽둥이)를 곱졌다가(숨겼다) 폴 따실(팔을) 잡아 내 두드린 거라. 폴부터 몬저 그 쇠몽둥이로 폴을 내 후리니까 이 아멩(아무리) 재어했당도(빠르더라도) 정훈이도 정훈이 만한 대박이란 말이야. 아. 경해서 그 놈을 폴다시 두 개 다 내 두드려 노니까 이 사름이 대응을 못 하는 거라. 폴을 못 쓰는 거라. 경해서 이 동네 베(밭줄)로 모가질 걸리고 외니깐(크게 소리치니까) 그디 있던 사름이 막산일 스령(使令)시경 잡았는디 그것이 정훈디도 그렇게 막강한 사람이고, 어 그 막산이도 그렇게 천하무적도 있다는 거주. 제주도에는 이런 사람이 없주. 그렇게 힘센 사름이.

9) 무남뱃 좌수

제 보 자 : 고춘언(남·73세)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고춘언 할아버지 댁(하모2리)

요약 : 증문에 무남뱃 좌수라는 동공이 두 개인 사람이 있었는데, 눈에 살기가 돌아서 눈을 감고 다녔다고 한다.

또 혼가지 대정의 큰 이인(異人). 허나는 증문에 가면은 저 무남뱃 좌수라는 인물이 이섯주. 무남뱃 좌수가 어떤 이냐 허면 눈에, 이 우리는 보통사람은 공자(눈동자)가 허난디 그 사름은 공자가 두 개라. 이 양반은 이렇게 항시 눈을 곱앙 땡기주(감고 다니지). 눈을 번뜩 떠볼문 둥(땀)골은 것도 벌벌 현다고. 광채가 나서 눈에 원래 살기(殺氣)가 나니까. 이런 특수한 인재가 있어서.

10) 지명유래(1) : 모슬(摹瑟)

제 보 자 : 고춘언(남·73세)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고춘언 할아버지 댁(하모2리)

上·下臺里 學術調查報告

요약 : 모슬이란 지명에 대해서 박용호는 모슬개(혹은 모살개)가 변해서 모슬포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고병호가 펴낸 대정읍지에 의하면, 이것은 모슬봉이 여자가 삼베 치마를 입고 비파를 트는 형국이어서 잡을 모자(攀), 비파 슬자(瑟)를 써서 모슬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슬봉 주위에 마을과 포구가 생기자 모슬봉의 이름을 따서 모슬리, 모슬포라고 이름을 지었다. 물이 나오는 곳에 먼저 설촌이 생기고 그 설촌이 커지자 위래 물 나오는 곳을 상모슬리, 바닷가 쪽을 하모슬리라고 구분하였다. 그리고 한일합방 때 '슬'자를 빼고 상모리, 하모리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상·하모리의 경계는 모슬봉을 중심으로 운전항까지 선을 그어 경계로 삼았었다. 대한제국때 해안가의 경계근무를 설 때 상모리의 범위가 너무 넓어 상모리 주민들만 괴롭자 당시 힘이 약했던 하모리에 해안가를 넘겨 주었다. 그 이후 일제시대에 하모리의 바다가 황금어장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상모리 사람들이 그 바다를 찾기 위해 소송을 걸었으나 결국은 패소해서 바닷가쪽은 하모리로 속하게 되고, 지금의 경계선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모슬포(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의 옛 이름)란 것이 어떻게 유래가 됐느냐 하면, 여러분 혹 알 거라. 대정의 학자 박용후(朴用厚, 향토사학자) 선생이라고, 그 학자가 써 놓은 걸 보면은 모슬포라는 이름이 뭐이냐면 모슬개, 모슬개 모슬개 해났다. 모살개 모살개 하다가 바람(발음)이 변해서 모슬개로 됐다. 모슬개가 모슬포됐다. 이렇게 책자에 써 놔서, 지역 …….

그 양반이 써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주장한 건 요기 저 상모리 고병오라는 대학자가 이서나서, 구한국 시대에 요디 학덕비(學德碑) 요 며칠 전에 세워졌어. 읍사무소 바로 앞이. 그 양반이 아주 훌륭하고 대학자라.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모슬봉이라. 모슬봉인디 산이 생기니깐 산에 일름을 지을려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모슬봉이라 일름을 지은 원인이 여자가 그 삼베 치마를 입고 남쪽에 들어가지고 비파를 트는 형국이라. 저 산이 그래서 잡을 모(攀)자, 비파 슬(瑟)자라. 모슬봉, 오름 봉(峯)자. 한자로 써봐. 잡을 모자, 비파슬자, 오름봉자, 모슬봉. 그렇게 산 이름이 모슬봉이런 냐으니깐. 그 후 몇 백년 후에 점점 그 옆에 마을이 설치 됐어. 마을이 차차 설치가 돼고 마을이 커 가니깐 마을이 독립됐니까, 이름을 지어야 돼지. 마을 일름, 저 오름이 모슬봉이니까 저 오름 이름을 따서 모슬랑오네 모슬리(攀瑟里)로 하자. 산은 모슬봉이고, 모슬은 모슬리. 이렇게 해서 모슬리 모슬리 하다가 저쪽 단산(簾山, 남제주군 안덕면에 있는 나지막한 산. 바글지오름)하고 모슬봉 사이에 마을이 설촌 돼 가는다. 물이 나쁘니까 옛날

에는 음료수, 물 중심으로 사름이 살다 보니까, 차츰차츰 물 있는디 가는 것이. 이 바닷가 쪽더레 밭이 빠져져 나오니까, 밭이 커지니까 밭이 두 개로 갈른 거라. 상모슬리(上摹瑟里), 하모슬리(下摹瑟里), 모을을 두 개로 갈라서, 저 원래 물 있던 곳을 상모슬리, 바닷가 쪽에 떨어진 딴 하모슬리 해서, 모슬리가 두 개로 상모슬리, 하모슬리라 된 것을 일·한 합방 때, 세부측량(細部測量) 당시에는 모슬리를 갖다가 상모슬리, 하모슬리 해서 글자가 네자 돼니까 ‘슬’자를 빼두고 상모리, 하모리 나눈 거라,

모슬포라는 이름은 뤼이나, 그 거슬러 올라가서 마을 서쪽뜨레 많이 따라오니까 마을에서 저 바다 쪽더레 나가야 한다. 어업도 해야하고 생계도 …… 그 바다에서 하게 뤼니까 옛날엔 그 저 혹시 알카? 테(테우)라고 하는 거. 나무를 이렇게 숫낱 닭은 거 묶어서 하는디, 배가 아니고, 이것이 처음에 헐 때에 그것도 개창(자그마한 포구)이 이서야 한단 말이며. 그러니까, 이때는 개창에 돌도 많고 하니 돌덜을 치우고 방파제도 맨들고, 돌도 치우니까, 개창 이름을 지어야 한단 말이며. 개창 이름을 지으니까 무슨 개창이라고 이름지어야 어디 사람덜 찾아와도 그 이름을 우리가 지어야 하니까, 저 산은 모슬봉이고 밭은 모슬리니까, 이 개창은 개 포(浦)재주게. 그 포구라는 건, 개 포재라. 계난 개창이렌 험 거주게. 옛날에 항구는 큰 거고 포는 자그마한 거주. 그러니까 산은 모슬봉이고 밭은 모슬리니까 이걸랑 모슬포 하자. 모슬포라는 것은 개창을 뜻하는 거라. 개 포니까 그래서 모슬포렌 험 건 바다에 개창 하나 맨든 것을 이름 지은 것이 모슬포니까, 이제는 전반적으로 모슬포렌 곱아. 개창 하나 맨든 것을 일름을 갖다가. 그러니깐 산 이름을 따고 밭 이름이 뤼엉. 밭 이름을 따서 개창 이름 딴 것이 모슬봉, 모슬리, 모슬포가 된 유래가 이렇게 뤼다는 것, 글재(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것이 옳다는 건디.

박교장(박용후)이 써 놓은 걸 보면 모살개, 모살개 하니까 모살(모래)이 많으니까 모살개, 모살개 하니까 모살개가 변해서 모슬개로 변했다. 모슬개를 한자로 쓰민 잠을 모재, 비파 슬재, 개 포재 해서 그런. 도저히 이론에 맞지 않는 거주. 저 산도 개민 모살에 해당될 수 있고 밭도, 저 개창이 모살개 한 것도 아니요, 모슬개, 모슬, 모재는 잠을 모재, 비파 슬재, 내 한번 한자로 …… 이것은 잠을 모재여. 애무(愛撫)현다고 아니 하여. 애무한다는 것은 서로 껴안는 거라. 애무라고 하여. 경하고 슬재. 이거 비파 슬재여. 가야금이나 비파나 악기라 이거. 옛날 이거

上·下裏里 學術調查報告

국악기(國樂器)주. 이것은 모슬봉이렌 혈 때 도 모슬리라고 혈 때는 리. 이딘 포. 이진 개 포재니까 모슬은 다 곁은 거난 모슬포. 모슬리 이렇게 쓴 거라. 잡을 모재. 비파 슬재. 비파를 잡았다는 것이 이것이 기고.

〈조사자 : 또, 모슬개. 모슬 혈 때 개창이렌 헌디. 개창이 뭐파?〉

아. 개창이렌 헌 건. 포재가 개 포재라. 개맛. 개맛이렌 하지이?

〈조사자 : 예.〉

개맛이렌 헌 건 바다에 조그마한 항구가 못된 것. 그것이 개맛이주. 개창.

〈조사자 : 계민, 이 천(川)말이팡?〉

아니. 개창. 개 포주게.

〈조사자 : 아. 그건 그냥 개창(포구)이구나. 아.〉

응.

〈조사자 : 계민 지금 상모하고 하모하고 나눈 것이 어떻 하영 나누어진 거우파?〉

아. 그것 나뉘진 것은 과거에. 모슬리 혈 때는 하나로 했다가 차차 이쪽드레 사람이 물을 따라서 많이 와 버리니깐, 그 때는 상모슬리. 하모슬리 혈 때는 경계가 저 모슬봉. 저 보일 거라. 모슬봉을 중심에 서면 꼭 중심에 질(길)이 이서. 질이. 질이 쪽 나서. 초등학교(대정초등학교)가 반절로 해서 저레(저쪽으로) 운진항(하모리 포구)까지. 일직선으로 운진항으로 잇어신디(이었는데).

구한국 때 바다를 경비초소로 해서 많이 해나니까.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초소를 지키러 가젠하민 상모리는 요. 운진항으로부터 저 사계리까지 경계선이니까 아주 구역이 막 너르주게. 너르니까. 상모 사람들은 매일 못준디게(못견디게) 하고 하모리는 아주 구역이 좁아. 바다가 좁으니까. 상모서가 하모리에 바다를 좀 떼 맺긴(말긴) 거라. 떼어 맺기면서 자기네만 괴롭고 하니까 떼 맺기니까. 우리 하모는 당시에 세력이 약하니까. 홀 수어시 저 비행장(일제시대 일본군이 만들었던 비행장) 남쪽까지 하모가 상모 바다를 떠 맡은 거라. 떠 맡아서 바다 경비하고 쪽하다가. 일·한 합방이 돼어가지고 이번엔 세부측량해 가지고 자기 막을 구역만씩 바다 꺼도(것도) 그 막을 사람만이 주체를 하고. 관리할 수 있고. 모든 구역은 마을 사람이 헌다 하니까 상모서는 원상 복구대로 달라는 거라. 이 운진항 꼬지 바다 경비하는 건 일시고 영구헌 구역은 반환시키라고 하니까 하모선 이월(異議를) 걸었던 말이여. '안된다. 돌면 숨키고 쓰민 뵈는다.'고 못준달 땐 우리 ㄱ

라 호랜 하고, 안된다. 결괄 보른 일제가 곧 시작됐니까 소송을 건 거라. 상모리 하고 하모리. 소송을 거니깐 하모리 그 당시 이장이 일본말을 하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나서 가지고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하모가 득소(得所)하고 상모가 패소당했어. 그래서 저 비행장 남쪽으로 하니까, 바다가, 하모가 지금도 엄청 많이 소유하고 있어.

저 모슬봉을 중심으로 내려와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저 운진항 가는디 저 비행장드레 가서 저렇게 경계선이 난 거지. 오늘 현재.

<조사자 : 저쪽 하모쪽에 강 물어보니까 이쪽 나뉘지게 된 지금 경계가 옛날에는 여기가 자그마한 개천처럼 물이 흘렀다. 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그것이 메워져 부니까는 경계를 잘 모르게 됐다. 개천 흐른 걸로 그 위에 상모, 그 밑에 하모>

아니, 건 모른 소리고. 이것은 애초에는 저 질로 쪽 경계선으로 했다가 하모리에 멧길라고 하니까, 바다를 떼 멧길라고 하니까 물으로도 그 바다쪽까지 쪽 그 차진(꿇어진) 거라. 거기까 그 개천이 흐른 거주, 쪽 그게, 그 일방적으로 바다 경계선까지 줄라부렀으니까, 그런 거고.

11) 지명유래(2) : 대정(大靜)

제 보 자 : 고춘언(남·73세)

조사일자 : 1998년 7월 31일

조사장소 : 고춘언 할아버지 댁(하모2리)

요약 : 대정의 이름은 원래 한골이었으나, 조선 태종 13년에 성을 축성하고 현을 설치할 때 큰 대자(大字), 고요할 정자(靜字)를 써서 대정이라고 명명하였다. 위치는 처음에는 모슬봉 기슭에 현을 열었으나 물이 좋지 않아 현재의 대정, 인성·보성으로 옮겨졌다.

또, '대정'이라는 이름은 뭐이냐. 큰 대(大)자, 고요 정(靜)자라. 대정이런 현 건, 건 어디냐 하면, 요 모슬봉 등허리에 한골이란 게 이서, 한골(지명)이런 현 지역이 있는데, 아주 넓어(넓어), 아주 으스스하고 아주 넓은 디 있는데, 여기가 태종

시대(太宗時代)에, 태종 13년에 대정골 성을 축성했다니깐, 태종 초기에 현(縣)을 어디에 했냐면 모슬봉 등허리에 한골이렌 헌디, 이 현청(縣廳)을 지었다던 말이지, 현청을 지스면은 그 고을 이름을 하나 지어야 할 거니까 여기는 크고 고요헌 디다 해서, '하다'는 뜻이라, '하다'는 것이 큰 대자라, '하다, 고요하다.' 그래서 큰 대자, 고요 정자 쓴 거주, 한골이라는 이름을 글자로 따니까 크고 고요하다는 뜻이라, 한골, 한골, 한골 헌 것이 하다는 뜻은 큰 대자를 의미헌 거고, 골이라는 것은 교요 정자, 고요하다, 크고 고요하다. 그래서 한골이라는 것을 따서 대정이렌 헌 그 처음부터 현이 그디 산 거지, 근디 거기 물이 나쁘니깐 얼마 아니 이서 가지고 현재의 대정골, 인성, 보성, 거기에 또 넘어간 거라, 거기 가서 현이 생기고 거기서 일·한 합방 때까지 현이 거기 있으니깐 한 오백년 존속했던 거주, 그래서 대정이라는 것은 경계가 어떻게 돼냐 하면 저 서귀포레 가는 디는 법환리가 경계선이고 서쪽으로 가민 판포로서 법환리로 이것이 대정에 속하는 거주, 옛날 대정현, 요새말로 군(郡)이지, 대정군, 옛날에는 현이렌 했으니까, 군이 아니고, 현이렌 했으니까, 그 어간을 대정현이렌 했었고.

〈조사자 : 아까 지나가신디 한골이렌 헌 건 지금도……〉

아! 있주, 지금도 그대로, 지금도 한골이렌 불러, 한골이라고, 그디는 이렇게 움푹해노니까(움푹하니까) 1년에 한 번 장마가 지면 대바당(큰바다)이 뚫부러, 바당이 뚫어서 그딴 농사도 못 지니까, 새라고, 초가집 짓는 때, 그걸 하는 딴디, 예, 그렇게 그 으스스하고 널른 디가 있주, 경작진 못 뚫고 1년에 한 번 침수(浸水) 당하니까.

〈조사자 : 그러면 1차로 한골에 현청을 지었다가 나중에 인성(남제주군 대정읍 인성리), 보성(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으로 넘어갔네예?〉

응.

〈조사자 : 경 하면, 한골에 현청이 있기 전이 뭐일도 이섯겠네 양?〉

응, 이섯지, 부락이 먹는 물은 지금도 있어, 그 당시 먹어난 물, 옛날엔 봉천수, 물 파서 먹는 때난, 그 봉천수 지금도 있주게.

12) 날개 잃은 두 아기장수

제 보 자 : 강필봉(남·78)

제보일자 : 1998년 8월 1일 오후 7시 30분

제보장소 : 대동회관

요약 : 옛날 이도시라는 마을에 김보선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 집안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음식을 먹지도 않고 여느 아이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하루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물질하러 가는 척하고 아이들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에게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상의를 했다. 결국은 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산을 천리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산을 천리하는 과정에서 두 아이는 죽게되고 그 집안마저 망하게 된다.

아~. 우리 대정관내에 감산이라는 데가 있어.

<조사자 : 감산이 어디마씨?>

안덕면 감산리.

<조사자 : 예.>

감산리. 감산리 앞이 이도시엔 흔 동네가 있어.

<조사자 : 어디마씨?>

이도시.

<조사자 : 이도시마씨?>

감산리 남쪽에 그 저, 오름 밑에 이도시엔 흔은 밭들이 이서. 그저 김보선이가 죽어 부렸는디. 보선이네 집안이라. 김보선이. 스삼(4·3)사건 때 경찰 수사. 음, 아, 수사계장을 이서나고 수사 이제 과장을 이서나고 현 사람의 집안인데. 옛날에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은, 아기를 둘을 낳았어. 아기.

<조사자 : 누가 나서마씨?>

소나이 둘을 낳았어. 그 집안에서.

<조사자 : 예.>

스나으(사내애) 둘이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자꾸 밥을 흐래 갖당오랑 젓을(젓을) 먹이민 요디 뉘던 안(아이는) 요래 뉘불고 바파(바피) 눅거든 자꾸 아으들이. 거난 이상스럽다.

<조사자 : 쌍둥이마씨?>

쌍둥이. 쌍둥이 아덜 성제[兄弟]를 산천(山川)으로 낳은 아들. 곧 건 들어(말을 하거든 들어).

〈조사자 : 예〉

그러니 요디 났던 아가 요디 오고 요디 났던 애가 요래오고, 서로 바꿔 누는 거라. 야! 거난 이상스럽다. 자기가 이제는 물질호래 가는 추록호고(가는 것처럼 하고) 아이덜 돌이 눅져두고(눅혀두고) 이 창구녕(창문 구멍)을 터져서 창문 고녕을 터지고 이렇게 보니 아으들이 나와서 퍼뜩퍼뜩 퍼뜩 노는 거라. 어린 아으들이 놀다가 저긴 뉘난 던가부다 영 바꿔 뉘부는 거라. 그러니 이제 시아방안디 가서.

“자 아으를 낳고보니까 날개가 돌아서 아이들이 놀고 이수다.”

거 얼마나 좋은 거라! 좋은 건디 그냥 내부러시민 우리나라 대 일꾼이 나올 게라. 큰 사람이 될 거주게. 점쟁이신디 갔어. 점쟁이 저 놈의 점쟁이덜 망침도 호고 예언도 호는 수가 이서. 헤이고 이 역적났구나. 저 아무 산[묘소] 때문에 그 아가 났다고. 거 잘봐네. 점쟁이도. 이제 시아방안티 가서.

“아무 산 미끄로해서 저 아으 놀개를 돌아났다.”고 하니깐,

“저 노릇을 어떻게 호민 좋카 마썰?”

“계민 산 천리 호게.”

산을 천리한다는 거라.

〈조사자 : 천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우까?〉

산을 이동시킨다는 거라. 여기 묻었던 것을 요디 강 물어볼라.

〈조사자 : 아 묘를 바꿔 쓴다는 거〉

이동시켜버린다는 거라. 이동시킬려고 가서. 요즘은 산 천리호는디 그대로 천리호주만은 옛날에는 천막을 쳐 놓고 하늘을 못보게 해. 그래서 시체를 묶으는 거라. 묶으는데 옛날은 천막을 치고 이렇게 히여서 이제 내세를 보게 됐어. 개판즈기 나무를 하는 황소가. 무릎을 꿇리고 황소가 무릎을 꿇이고 일어날려고 햄거든. 그냥 내버려시민 그 아으들이 얼마 어서서 대 장수로 놀아댕겨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건데. 아! 그렇지 아니 호고 계니까 이젠 그냥 팡호게 뛰어부렸어. 그 것이 하늘로 올라가 부렸어. 그 천막 터지고.

〈조사자 : 애기 둘이가 마썰?〉

아니. 황소가!

〈조사자 : 황소가〉

황소가 이렇게 굴러다가 팡호고 사방 사람들이 다 자빠지고 그 천리호래 간

사람이, 이동시키래 간 사람이 자빠지고, 그거래 튀어부렀단 말여. 뛰어부리니 집에 오란 보니 아으 둘이가 다 죽어부런. 오꼳 죽여뻬거든. 그 산 운기(運氣)로 그렇게 사람을 내었는데, 계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집이 오꼳 망해부렀어. 게서 보선이네 짐보선. 짐보선이네 집안 하르방이 거기 양재(養子) 들어가서 딸(代를) 잇었어. 그런 스실(事實)이 이서.

13) 산방댕이의 눈물

제 보 자 : 강필봉(남·78)

제보일자 : 1998년 8월 1일 오후 7시 30분

제보장소 : 대동회관

요약 : 고승욱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 얼굴이 천하일색인 여사가 찾아와 방을 빌린다. 관가에서 그 여사를 찾아가 데려가는 도중에 그녀는 산방산으로 사라진다. 그 여사는 찾지 못하였지만 그 후로 산방산에서는 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고승욱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거기서 여사가 산방에 있다가 그 집으로 가서 17세 난 여사가 화순(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에 고승욱이네 집에 가서 집을 좀 빌리시오 그러더라고. 그래도 음식ㅎ영 먹는 것도 못보고 집만 방 하나만 빌려줬지. 빌려주니 거기 살거든요. 얼굴이 천하일색이고, 아 이래서 사는데 관가는 관계 스령 이제보니 순경이지. 사람을 물을 타고 보내어서 그 여즈를 데려오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고 보니 고승욱이 집에 여사가 산다고 하니깐 이제 지금 현감이 데려오라고 하니깐 달려갔어요. 저기 저 방안에 산다고 아 문을 열어보니 고운 여사가 있거든요. 나를 잡으려 왔어요. 그 여사가. 아 그렇다고. 아 가자고. 그 사람은 앞에 나서 가따가따 조금 발로 걸어가는데, 이제 거기 스령들은, 스령은 이제 순경이지.

〈조사자 : 사령!〉

사령. 그 사람덜은 물을 타고 천릴(千里를) 가도 따르질(따르지를) 못ㅎ여. 그러니 산방(산방산)으로 올라왔어. 산방으로 산방으로 올라와 버리니 못 잡아. 신(神)이거든 신이라. 그러니 이제 그전에는 이 산방굴산에 물이 아이 났어. 아이

나다가 그 여사가 올라간 지 그 후로부터는 물이 방울씩 떨어지게 됐었어. 물이 나. 여기서 나니까 인거는(이것은) 산방탱이의 눈물이라. 그 여사는 초질 못하고 신이거든요. 신. 그 여사가 신이 돼어서 그러해서 지금 산방굴소(山房窟寺)에 절간이 세 개가 나 있어요. 세 개가 나 있는데 그 절간에서 흐르씩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곡 그 물을 먹으면은 아주 약이야. 약! 약물이라. 게해 가지고 먹은 값을 받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사계리에서도 좀 이득을 보고 있죠.

14) 이좌수(1)

제 보 자 : 강필봉(남·78)

제보일자 : 1998년 8월 1일 오후 7시 30분

제보장소 : 대동회관

요약 : 80세인 이좌수의 아버지는 정희골의 17세의 고운 여사를 보고 장가들고 싶은 생각을 갖는다. 양자로 들어온 아들에게 부탁해 보았지만 실패하고 그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 친구는 재치있는 말 한 마디로 인해 결혼을 성사시킨다. 그 사이에서 이좌수가 태어난다. 이좌수는 쌍둥자를 가진 사람으로 어렸을 적부터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느끼게 하였다. 이좌수는 제주목사의 횡포를 막는 등 여러 가지에 힘쓴다. 또 현성방이라는 사람이 죽은 지 10년만에 꿈에 나타나 자신의 제삿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이좌수가 죽는 날을 이야기해준다.

무우남밭 이좌수랜 현 하르방은 원래가 보통사람이 아니라. 왜 아니냐. 어머니가 십칠세에 난 자식인데 근본적으로 ㄱ를려고 하면은 그 말을 내가 순간 빼졌어. 처음으로 ㄱ지를 안혀고. 그러면 처음으로 ㄱ지.

이좌수 아방(아버지)이 제주시에 가서 물을 타고 자꾸 가서 돌아오다가 정의골(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옛 정의현청 소재지)에 와서 정주(慶州) 김[金] 칩이 술칩이라. 술을 풀고 있어. 정주 김씨가 보니깐 딸이 십칠세 난 여사가 고운 여사가 있어. 자기가 팔십이라. 팔십인데 십칠세난 여산디 팔십이 났거든. 팔십이니까 양쟁(養子)를 돌았어(데렸어). 양재도 손지를 든(데린) 양재를 돌았거든. 돌아오명 그 여사안티 가서 자꾸 술도 먹고, 술칩이 가서 그러니 이 여사안티 혼번 장개를 들어바시른 이런 생각이 나는 거라. 팔십난 하르방이. 아 이거 참! 이제는

양재 아들이 그리 하여도 아주(?) 좋지 않다. 빗을 잘못하면 트집만 잡고 혀. 그러니 양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님, 어떻게 빗이 분합하고 빗이 영 험니까?”

“너, 날 장가 보내줄 수 있느냐?”

하, 거기가 막히지. 그러면 어디 새각시가 있길래.

“새각시는 정희고을에 김침이 있다. 술침이 딸이다. 그거 한번 구해보라.”

두 번 세 번이나 갔자 아버님 팔십 났는데 집안에 딸 이센 말을 못 하거든요. 하여튼 들어봤어. 십오일이 돼어도 아무 소식이 어시니.

“어떻 하나?”

“말이 안 나와서 말을 못붙여 봤습니다. 술만 사먹고 왔습니다.”

그럴 거라고.

“대포(서귀포시 대포동)에 내려가면 내 친구가 있다. 그 사람 강 데령오라.”

그 사람강 데려오니까.

“자네, 자 저 장가 보내줘.”

“어디 새각시가 이서?”

“새각시는 정희골에 짐침이 십칠세난 여사가 있다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해달라.”

아, 그러라고. 벗 곤는디야 내가 얼마든지 구해내겠다. 그 사람은 벗은 와서 그러고, 가서 무슨 말을 했느냐고 하면은, 정의골에 가서 그 짐침이 가 가지고 스십이 둘, 마흔에 둘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집안은 고부(古阜) 이씨(李氏)고 이런 집안이 있는데, 이디 여자가 있다곤 하니까 문안(問安)왔다고, 아, 그러냐고, 집안도 좋고 그러면 서로 이제 그렇게 해보주. 그 할망이여 하르방이영 그렇게 해주 대답을 하였어. 계행 이제 영세를 찍영 가정왔거든. 어느날 택일하여서 그러면 요즘에는 옛날에도 경 하긴 했어요. 상객으로 가는 사람이 이녁 집안에 사람이 없으면 놀이라고 갔어. 가서 요즘은 신랑 신부가 다 얼굴을 보고 이렇게 여서 결혼식을 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러라고 하면 그걸로서 끝나는 거라. 매일 술 먹으러 오는 하르방이라. 절대 아이된다고 안 된다고 홀 건 사실이거든. 거기 상객으로 간 사람은 중매한 사람은 마흔 둘로만 알았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사모관대라고 관대를 쓰고 말을 타고 가니.

“저는 거짓말 아니 했습니다. 스십이 둘이면 팔십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라불고. 이견 못하겠다 주무십시오 해서 들어 받고 있거든. 이제 여사가 하는 말이.

“인제 아버님. 저 아이 난 폭하고(아니 낳은 것으로 치고) 시집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시집을 왔어. 모시고 왔지. 오라서 그 해에 아으를 배언(아이를 가져서) 이좌수란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을 낳단 말여. 그 아으를 낳고보니 보통 아으가 아니라. 눈을 항시 영 흐뎀(조금) 항시 곱고(감고), 영 흐뎀 떠 가면은 어머니도 무서와. 쌍동재(쌍동자)를 가져노니깐. 열설 열두설 쯤 나가니까. 보통사람 그 사람이영 상대할 수가 없어. 사람이라도 퍼쩍 텃다 흐른 턱턱 박아지고, 둥도 박아지고, 쉼도 가 봐서 눈 퍼쩍 뜨민 탁 박아져. 이런 역할을 눈으로 하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십육세에 대정 좌수로. 무우남밭 이좌수라고. 이제 손자들 살고 있어. 한 이백 오십년 됐었는데. 그래서 영웅이지. 이제 좌수로 있으면서 또 그렇게 그 여우도 그렇게 저저시키고, 이제는 제주목사가 이산방 뒷질이라고 그 저기 옷질이서. 그 저기 거 조각공원(제주조각공원) 들어가는다. 이젠 질 잘 멘드라 부렸지. 거기가 아주 지대(地帶)가 지프고(깊고) 자갈로 흐여서 예. 이제 상당히 굵게 돼이서. 그러면 대정에 제주목사가 육지서 딱 드러 오면은 마부. 물 이끄는 사람 있거든. 그디 오면은 질을 잘못 따갔다곤 해서. 풍언(風憲)이나 정민장(敬民長)이나 조민이 아 이런 사람덜 해가지고 이 제주시로 심어가서(붙잡아 가서) 막 때려버리고. 앞으로 질 잘 닦으라고. 그러니. 이좌수는 내가 한번 이런 것을 물리쳐야 돼겠다. 그 목사가 와서 이렇구 저렇구 말을 얼핏 얼핏 들려가니까.

“제주목스는 제주도민을 사랑해주는 것이 목스의 책임이요. 질을 잘 닦으니 못 닦으니 이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하니까.

“저 어떤 놈이냐.”고.

“저 이좌수라고 합니다.”

“아 그래 거 당장 제주시(濟州市)로 잡아 올리라.”고.

가서 특명(特命)을 내려 부렸어. 그 이좌수 내일은 곧 제주시로 오라고. 물을 타고 이젠 제주시로 갔거든. 눈을 딱 곱고. 그 목스 둘이가 앞으로 이렇게 간 무릎을 꿇여 앉으니,

“왜 눈을 감으냐?”

“저가 눈을 뜨면은 목사가 이제 반은 죽습니다.”

“너 떠봐라.”

그디 부하덜토 많이 있잖여. 비서덜토 서기덜토 이실 거. 그렇게 했는데 눈을 반짝 트니까, 탁 자빠졌거든. 그래 곧 죽어 부렸어. 그 이제 부하들은 아이고 목사님 죽었다고. 하 이젠 막 한탄할 게 아녀? 한탄호지.

“하 이거 죽진 아니한다고. 두고 보라고, 죽진 않힐 것이다. 한탄호지 말라.”고.

이제 눈을 감아 부렸어. 눈을 감으니 독을 깨고 살아 났어. 다시 틀 적(뜰 때)에는 다른 목사가 오라도 질을 닦았느니 못 닦았느니. 목사가 오래 살질 못했거든. 일년 아니른 두해. 잘 살아야 두해. 자꾸 바빠. 목사가. 그러니까 다른 목스가 와도 거기 와서 여기 글재에는 여기 풍연. 풍연호민 대정 여기 면장 읍장이지. 이런 사람들이 좋게 잘 살아나왔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이좌수가 이젠 좌수직도 벗어지고 연령이 늙었잖여. 혼 스십 오세. 연날엔 스십 오세 돼민 아주 늙었다고 호여. 호루 있더니. 에 현성방(玄刑房)이라고. 성방이는 이 제주도에 목스 아래 총무부장이지. 그런 사람이 죽었어. 죽어버렸는데 십년 만에 그 집일 좃아왔어. 좃아와서.

“이좌수 있습니까?”

“있다.”고.

“오늘 즈낙 제가 이제 돌아간 날인데 집이 가그네 서로 싸와 가지고 아들 시성제(시성제)가 서로 싸워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제일 말쑥 며느리, 내가 죽을 좋아하기 때문에 죽을 먹고 갑니다.”

아 이거 가만 보니 꿈도 같고, 막 이상스럽거든. 아 이것이 정말인가. 아 인제는 뒷날 아침은 종을 보냈거든. 대포엘 보냈는데. 아 이제는 그 시성제 곧 오라곤 호라고.

“너네들 아버지 너네 제스지?”

“맞습니다.”

“너네 시성제가 서로 다투왔지?”

“예. 맞습니다.”

“그러냐고. 앞으로는 다투당은(다투다가) 대정골 관가로 심어가서 영원히 너네 못살게 굴겠다. 절대 싸지 말아달라.”

上·下裏里 學術調查報告

아 이랬거든. 이래해가지고 보내었어. 뒷해 또시 그 날이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그 현성방이엔 흔 사름이 찾아와 가지고 따시 왔어.

“아 이좌수님 감사합니다. 오날은 아주 즐겁게 놀다 갑니다.”

아 이런 말을 했거든.

“너는 죽어서 십년이 됐었는데 나는 언제 가고 언제 뭘 책임을 하는가?”

“사름이 오고 가는 것을 저가 그 문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년 아무 아무 시 됐며는 내가 와서 돌아가겠소.”

아 이렇게 허거든. 이렇게 허니.

“아 그러냐.”고.

그걸 다 썼어. 깨나고 보니 꿈이라. 아 이것 참. 꿈 볼 때는 산 사름 적으로 이제 그런 때가 있잖혀. 깨나고 보니 꿈이라. 아 이거 이상스럽다. 그래놓고 다 썩 놔뒀거든. 꿈 본 것을 문짜. 어느 돌 어느 날 어느 시 됐면은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는 원래 노는 하르방들이라 옛날도 바둑을 많이 두곤 했거든. 동네 벗이 와서 바둑을 두다가 시간이 다 돼가거든. 보니 눈도 좀 얼랑얼랑 해지고 시간은. 그 문서를 딱 내 보니 시간이 다 됐거든. 빨리 마치고.

“나가 갈길이 바쁘다.”

게난 모욕을 하고 구간 예복이라고 저승호영 입어가는 옷덜을 다 입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버리고 어머니는 젊은 때 오라서 자길 나서. 젊었지. 젊었는데.

“어머님 저가 이제 갈길이 바빠가지고 일어서 갈려갑니다.”

“어딜 갈 거냐?”

“영원히 갈길로 갑니다.”

아. 이거 큰일났구나. 아. 이제는 뒤에 따라갔어. 집에 강 누니 걸로 끝이라. 죽 어부렀지. 죽어부니 문서를 닦아 놔둔 차례는(줄은) 모르고. 아 동네 사람들은 ‘아, 이 영웅이니까 자기 죽는 날꺼정 알고 죽는 시(時)꺼정 다 알았다.’ 그랜 그러했거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그 서적을 흔번 동네사람들이 흔번 더듬어보자.’ 고 흔 것이. 그것이 나타났어.

〈조사자 : 어디서 들은 얘기우깁?〉

어디서 들어? 그런 옛날 하르방들이 책들을 만들고 그렇게 행 다 이서.

〈조사자 : 예.〉

15) 막산이(2)

제 보 자 : 강필봉(남·78)

제보일자 : 1998년 8월 1일 오후 7시 30분

제보장소 : 대동회관

요약 : 강씨 집안에서 논밭을 만들려고 막산이로 하여금 일꾼 50명을 빌어 일시키는 것을 부탁했는데, 알고 보니 준비해둔 50명의 식사를 혼자 다 먹고 일하는 장사였다. 주인은 막산이에게 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 떠나줄 것을 요구했다. 막산리는 소를 잡아먹고 혼자 지냈다. 그러면서 정훈두라는 사람이 제주목사에게 막산리가 사람들을 못살게 구니 죽여야한다고 말을 한다.

〈조사자 : 막산이엔 들어봐수가?〉

막산이. 처음에는 저 배염바리칩이라고 강침(姜宅)인데 창천리(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거기서 살았어.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강침이서 동산 앞에 논밭을 만들어 불려고, 거기 생수(生水)가 나거든.

〈조사자 : 예.〉

생수, 논밭을 만들테니까 오십명 사람을 빌라. 오십명 사람. 그렇게 합시다. 오십명 사람 빌어수다. 그러믄 오십명 먹을 점심을 출력서, 점심을 출력서 다 출력서 부자집이라 출력났거든 이제는 오십명 먹을 점심을 다 지고 오십명 기구를 다 쪼어. 혼자가.

〈조사자 : 예.〉

막산이가 다 지고 갔어. 배염바리칩이 강침이 하르방은 군산 꼭대기에 가서 물을 타고 딱 보니 아무 일도 하지 않행서, 혼 시간 썸 담배 혼 대 붙이고 호끔 있더니 사방이 부영해부렀어(부영게 흐려졌어). 아 이거 뭐 아까는 일 하지 아니했는데, 벌써 이건 뭐 시상이 째째해. 아 게서 집에 돌아왔어. 돌아와서,

“너 논밭을 맨들었느냐?”

“논밭을 다 맨들었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물을 타고 혼번, 호여튼 삼백평을 혼자 다 만들어놔어.

上·下裏里 學術調查報告

〈조사자 : 막산이가 마씨?〉

응. 나무가라죽. 요새는 쇠가라죽으로 호주마는. 그 땀 나무가라죽이거든. 나무로 맨든 가라죽. 그런 거 안 봤지?

〈조사자 : 아니 봐수다.〉

그걸로 파가지고 논을 삼백평을 맨들었어. 이제 그 논이 그냥 있어. 막산이논이라고.

〈조사자 : 어디마씨?〉

군산 앞에. 논이 있거든. 그래서 호는데 이제는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힘도 썩 (센) 차례(줄)도 모르고. 이제는 저것이 배가 저렇게 고관 살려줬구나.' 그렇게 호거든. 그래서.

“소가 한 머리 너냥으로(너 스스로) 잡아먹고 떠나라.”

이렇게 해부렸어. 이렇게 해버리니 곤는 말 안 들을 수가 이서게. 그 강씨 하르방은 말을 들었거든. 막산이가 쉼 돌새기(돌맹이)로 툇 마치난 죽으난 잡은 거주. 그렇게 힘이 장사라. 소 호 마리를 다 먹었어. 먹어부러. 문딱 숲양. 이젠 떠났어. 어디 강 사느냐면 저 막산이구석 저디 강 살았거든. 제주시에 가는더레 경마장(제주경마장)으로 호뽀(조금) 내려온 디. 거기 막산이구석이라고. 거기 살면서 모관(牧安, 곧 제주도) 사람덜, 애월(북제주군 애월읍) 사람덜, 한림(북제주군 한림읍) 사람덜 못살게 굴었어. 곡식 행 뇌두면 호 짐만 저 가그네. 밧디 논 거 묵영 다 가져가부러. 계난 못살게 호난 정훈두란 사람이 제주 목사한테 말해가지고 막산이를 죽여부러야 돼지. 살면 못살겠습니까. 그래서 죽여부니. 막산이 살아난 디 막산이랜.

〈조사자 : 어떻 행 죽었덴 얘기는 못들읍디가?〉

칼로.

〈조사자 : 칼로 죽었덴 마씨?〉

칼로.

〈조사자 : 정훈두도 힘이 막 센 사람이다 예?〉

세지. 저 여섯자. 옷둑지가(上體) 여섯자. 넓이가. 크지. 키도 크고.

16) 오찰방(2)

제 보 자 : 강필봉(남·78)

제보일자 : 1998년 8월 1일 오후 7시 30분

제보장소 : 대동회관

요약 : 오찰방 아버지는 아내가 딸을 가졌을 때는 소 열마리를 잡아 먹이고, 오찰방을 가졌을 때에는 아홉 마리를 잡아 먹었다. 그러니 딸이 더 기운이 썩다. 씨름에서 진 오찰방이 기분이 상해 있자 누이는 그 사실을 말해준다. 한편 서울에 나타난 만주의 소 탄 장군을 잡을 사람으로 제주도의 오찰방이 뽑힌다. 오찰방은 작은 죄를 부려 소 탄 장군을 잡는다.

<조사자 : 그럼 누구 오찰방 애긴 들언 마씨?>

오찰방 얘기 하지. 요디 화순(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올시다. 오찰방, 거 오찰방은 힘세고, 이제 오찰방은 어떻게 됐나면 오찰방하면 맨 처음 딸을 낳았어, 오침이. 딸을 배니까, 그 둘을 뺀 때에는 소를 열마리 잡아 먹이고, 오찰방 뺀 때는 소를 아홉마리 잡아 먹었어. 그 아버지가, 경헌 이 기운이 더 세부렀지. 더 세부러서, 이룬데 씨름을 나갔어. 씨름을 나갔는데, 오찰방이,

“하 이제는 지금꺼정(지금까지) 해간(하여간) 내가 대정선(대정에서는) 일등했는디, 웬 놈이 와서 내가 지니까 밥도 아이 먹고 죽어볼겠다.”고.

“죽겠다.”고.

아 이젠 누님이 있었거든.

“밥먹으라고. 밥먹으면 내가 ㄹ라 주겠다.”고.

이젠 밥을 먹으니,

“나다.”고.

“느 나영(너 나하고) 씨름 해 보라.”고.

누이가 강 이겨부러어(?). 어렸을 때는 오찰방이 놀개를 돋았어. 양쪽으로 놀개가 돌아가지고 역적났다고 해서, 그 놀개를 베비었다고. 놀개를 끊어부러야 된다고. 점쟁이가, 놀개를 끊어버리니, 나무신 있잖혀, 나무신.

<조사자 : 예.>

나무신을 신고서 단산골 꼭대기로 퍼쩍 흐민(한 번 힘을 쓰면) 올라가고. 그 놀개가 끊어부러도, 이렇게 해서, 왜 찰방이 됐었느냐. 그런 아주 참 썩 사람이지. 이제는 우리 나라 저 서울에, 서울, 성을 돌렸거든. 나라(임금) 사는디. 성을 둘러

선 북극지방에서 북극은 저 만주지방에서 소 탄 장군이 오랑 그게 한번 쓱 하게 돌아보고 가거든. 게난 왕이.

“저 놈을 잡으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홀만한 사람이 있냐?”

해서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함경북도로 이 제주도는 제외놓고 알아봐도 쉐 탄 장군 잡을 사람이 없거든. 제주도에 오영관이라고, 오찰방 이름이 오영관이라. 성은 오씨고 이름은 영관이고.

“영관이런 현 사람이 그 사람을 곧 잡을 것이다.”

“에, 그 사람을 불르라.”

그래 조정으로 갔어. 조정으로 가서, 이제는 그 오찰방이 하는 말이.

“날쎈 말을 하나 내주시오. 나 뒤에도 군사를 오백명은 보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잡을라고 그러면은.”

담배를 대니로 하지 않여. 현대씩 현대씩 열 개씩. 열대니. 경허른 이만 크기. 등에 딱 지고 칼 이제 다 품고. 물을 타고 막 돌려도 쉐 탄장군 따를 수가 없어. 쉐 탄장군이 오랑 가가난 소릴 질러서. 막 돌려가서 따를 수가 없어 소릴 질렀지.

“앞이 가는 장군 담배 현대 붙이고 갑시다.”

가는 사람이.

“아 저거는 서로 벳홀만 하겠네.”

이런 말이 나왔어. 게난 소 세웠어. 소는 탄 장군이 오영관이가 딱 들어갔어. 들어가서.

“담배 한 대, 담배는 가지고 왔는데 칼이 없어서 썰지를 못 하겠소.”

거 수단이거든. 그 사람 칼을 빼서 쥐어불려고.

“여기 칼 있다. 이제 썰어보라.”고.

그 사람 칼을 내 주니까, 그걸 썰었지. 쓸다가 그 좋은 힘으로 휘어부난 꺾어져 부러어. 꺾어져부난, 이제는 이 쉐 탄장군이 이젠 화가 날 게 아이라. 싸움이 났거든. 이제 서로 대결행 싸움자. 그 사람은 칼이 꺾어져 부러어. 오찰방은 날쎈 칼을 품고 왔거든. 칼로 해서 싹 야계기(목)를 비어버렸어.

17) 마라도 전설(1)

제 보 자 : 강필봉(남·78)

제보일자 : 1998년 8월 1일 오후 7시 30분

제보장소 : 대동회관

요약 : 옛날에 마라도에 물질하러 갔는데 물질을 하고 오다가 해녀를 실은 배가 안개가 끼어서 못가게 되었다. 해녀들 중에 한명이 꿈을 꿴는데 한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애기업개를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그 애기업개를 제물로 바치고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전설이다.

마라도 사람이 아이 살 때 물질 강 오다가.

<조사자 : 예.>

잠녀들 실은 배가 안개가 끼서 어디 못 가니까 급하게 됐거든.

<조사자 : 예.>

뉘니까 이제 열두명 실은 해녀들 시경 그디 가니까 다시 안개 끼서 캄캄해서 길을 못 찾으니까 하루 꿈에는,

<조사자 : 꿈에?>

그 주장헌 해녀의 꿈에는 '너희들은 그냥 가지카부덴 흐느냐? 이디 너네 하나 놔둬 가야지 그대로는 못 간다. 너네 그대로 가면은 니네 못숨은 다 바친다.' 경했거든 경해서 하니, 또 배임제(배임자) 남제분네 '게메 이상하다.' 라고, '나도 이만 저만해서 이상하네 우리가 어떻 흐느냐?' 고, 우리 목숨, 처녀 그 14살 난 아이 업게(업저지)로 돌봐(따라) 갔거든. 업게로 돌봐가니까, '이 아이를 놔둬 가야지 우리 목숨을 어떻 흐느냐?' 고, 경 하니 사공하고 배 임제 저 여자하고 잘 말해가지고 테역밧디 강 서로 놀다가 아으는 놔둬 갈 거로(갈 것으로), 오라서 배에 탁 올라가지고, 그 아으보고,

"저기 뭐 내비여시니까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는.

"나 강 오기 전에 가지 말라."고 했거든.

가지 말라고 해서, 거 다 걸으니까 어느새 놀 듯이 안개도 걷으곡 듯대 두 개가 막 돌아갔거든. 경행 그제 아으는 돌아당 해녀 하나가 내중에 나우에 처녀가 벌린 것에 돌아져서, 돌아졌다가 하니까 거 여자하고 저 우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디 마라도 사람들 들어강 사니까 매해에 처녀 옷을 아이들 옷추룩(옷처럼) 행

걸고 그디 임시 간 사람도 우리 물질하래 가면은 두어 돌 살면은 오리라 해서 거기 가서 여기까지 데려와. 계면은 오는 날꺼정 감기흐나 안 걸려. 경흐난 이제 사람들 막 가도 이제 아무런 폐도 없고. 그디 사람이 상흐지 안해서 살아. 경해서 흐니까 그 처녀가 열늬술에 거기서 죽언. 할망당 모셔. 여기서 물질을 가도 거기(당)부터 가서 해녀들이 오그락 절흐여 경흐른 틀림없이 오라.

18) 귀신 이야기(1)

제 보 자 : 허성순(여·66)

제보일자 : 1998년 8월 1일 오후 2시 30분

제보장소 : 허성순 할머니댁(상모2리)

요약 : 제사 먹으러 가는데 할아버지가 자신의 제사상이 차려진 아들의 집에 제사 먹으러 가자면서 할머니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은 태평리(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라고 흐지, 이 태평리라고 흐는디 그 자제분들이 어디 있는가 흐면은 지금은 상모리. 저 그 대동경로당으로 쪽 가민 상환카드(상호)라고 이서. 거기 아들인데 거기 아버지가 옛날 경찰관으로 있을 적에, 건 우리가 들은 풍월이고, 그 할머니 뉘는 분흐고 저 우리 어머니네가 굉장히 친했거든 그때. 그 옛날에 그분이 참 경찰관으로 있을 적에 제사 먹으러 첨 가는데. 도중에. 그 옛날에는게 교통이 굉장히 어려웠거든. 참. 걸어서 다니고 집, 교통 제일로 좀 잘 사는 그 부자집에는 말이나 뭐 그렇지 않으론 뭐 왜정 시대에는 그 자전저 일중에. 다 걸어서 다니고 훌 적에. 걸다가 탁 첨 그 지금 우리 제주도 사투리로 흐민 산담(묘 주위에 돌을 쌓아 에워두른 담)에 의지해서 이렇게 좀 눈을 한 잠. 경찰관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붙이는데.

“거, 할망 이서?”

“아이고, 어떠한 하르방계?”

“오늘게 나 제사 아니라.”

제주도 말로.

“우리 식계 먹으레 가게.” 영 흐난.

“아이고 경 험씨게(그렇게 하십시오.)”

쟁 ‘아, 이상하다.’ 헝 가보니깐. 따라간 눈썰미 해주게. 따라가 보니깐 그 집에 가는 뵈이 이션.

“요 동네 누구 집에 언치낙 제사 넘어나수까?” 영 혼난.

“아이고, 요 아무게이네 집에 언치낙 식게 넘어났주게.”

쟁 그런 저런 얘기를 하니깐.

“아이고, 어제 아버지 제사 넘어나수다. 아이고 틀림어시 정말 우리 아버지네가 오셔났구나.”

쟁 그분이 침 우리도 그 동네분이고 바로 이 앞집에 스춘 시아주버님 뵈는 분이고, 난 그 얘기들언. 그런 뵈 있주게.

19) 마라도 전설(2)

제 보 자 : 허성순(여·66)

제보일자 : 1998년 8월 1일 오후 2시 30분

제보장소 : 허성순 할머니 댁(상모2리)

요약 : 마라도에 물질하러 간 해녀들이 배를 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파도가 너무 세서 오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사공의 꿈에 너희중에 하나가 희생되지 않으면 모두 돌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같이 간 사람중에 얘기업개가 있었는데 그 얘기업개에게 얘기업는 띠를 갖고 오라고하여 배에서 내리게 한 뒤에 배를 띄웠다.

마라도는 옛날에 즉 말하면은 우리 제주도 말론 혼민 마바람, 마바람, 동남풍은 불면은 동남풍, 마바람, 서남풍. 여기는 갈 적에는 미역허저, 제주도 말론 미역 해치허레(따리). 제주도는 옛날에 그 침 아주 어려운 시대에는 바다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마라도는 굉장히 그 옛날부터 그 미역 그 모든 게 좋았기 때문에, 여 우리 제주도 같이 해녀하면서도 마라도 미역을 사 먹었거든. 그때는 좋기 때문에 이 장마를 지나도 마라도 미역은 빨아도 몽개지질 안허여. 아주 꼬들꼬들 현 양 그대로 있고. 마라도 그 미역을 허러 갈라고 하니깐. 제주도 말로 얘기업개, 얘기업개를 데리고 가는데 이제 미역을 다 허고. 그 옛날에는 뚫단배거든게, 뚫단배로

上·下臺里 學術調查報告

올라고 하니깐, 파도가 파도가 씨고 남풍이 불어야 오는데, 마바람이 불어야 마라도는 이쪽으로 오거든. 계속 뭐 계절에 맞지 않게 북서풍이 분다던가 하늬바람이 분다던가 해서 자꾸 오지도 못하고, 파도가 씨니까. 사공꿈에 사공꿈에.

“너희, 적에, 하나를 여기에 희생을 안하면은 절대로 물에 (즉 말하자면 우리 육지 여기는 육지라고 봤지.) 마라도에서는 물에는 못 나간다.”

이러니깐 할 수 없이, 그니깐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주 어렵고 불쌍한 사람만 희생을 당하는 거라. 요즘도 그렇잖아. 요즘 정치에서도.

〈조사자 : 예, 예.〉

애기업개는 엄니도 아버지도 없는 애기 침 애기업개를 데리고 갔는데. 야 야, 지금 말하자면은 애기 업는 띠지. 이 그때는 우리 제주도 말로는 걸랭이.

〈조사자 : 얼랭이.〉

걸랭이.

〈조사자 : 걸랭이.〉

응, 걸랭이. 그 애기 업는 그 이렇게 뿔뿔보고 걸랭이.

〈조사자 : 예, 예.〉

야. 야. 배에 다 찼거든. 다 미역도 실코 다 모든 걸 실코. 약속은 뭐 한달이면 한달 살 걸 한달 딱 행 갔는데. 그게 그자 자꾸 남풍은 안 불고 계절에 맞지 않게 북서풍이 불고 하늬바람이 부니까. 남풍이 불어야 오거든. 마바람이 불어야 돛 단배에다 그저 마바람 바람을 타서 오기 때문에.

“아야야. 걸랭일 내부러팅 와졌져(봐 두고 왔다). 강 걸랭이나 가정오라.”

하난.

“아이고, 예 걸랭이 ㄴ져 오쿠다(가져 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배는 띄웠다 이거야. 그니깐 그저.

“날 데령갑써(데려 가십시오.). 날 데령갑써.”

올며 불며 하니까 그냥 그 느닷없이 남풍이 살살 불고 살살 바람이 부니, 일로 (이리로) 온 거라. 게니까 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거기 그냥 몇 해만에 가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있으니까. 지금 그 뼈를 거기 모셔놓고. 지금도 가면은 마라도 전설 할망당. 마라도 주민들 지금 가보면은, 애기가 아파도 밥 한 공기 이제 바룻고기(바닷고기) 하나 요렇게 해 가지고, 거기 가서 그저 저희들에게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낭군들 그저 하다못해 자릿뵈 가수다 뭐 방앗배 가수다.

잘해 줘서, 지금 마라도의 하나의 신당(神堂)으로 지금 모셔 있거든. 지금 학생들이 언제나 마라도 한번 가보문 할망당 가르켜 주십시오 호문 가르켜 줘.

20) 여우 이야기(1)

제 보 자 : 허성순(여·66)

제보일자 : 1998년 8월 1일 오후 2시 30분

제보장소 : 허성순 할머니덕(상모2리)

요약 : 한 선비가 향교에 다녀올 때마다 한 여자(구미호)가 자꾸 자기를 데려가라며 애원을 하자 궁리 끝에 개 두 마리를 잘 키웠다. 후에 그곳을 지나가다 다시 만난 그 여자를 말에 태우고 꿈꿨던 뒤에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 집 앞에 와서 그 동안 잘 키웠던 개를 부르니 그 개소리를 들은 여우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뒤부터 그곳에는 (계유백대기에는) 여우가 없었다.

옛날에 저 지금 저 안덕조각공원이, 그 우리 제주도 말론 계유백대기(지명)엔 해주계, 계유백대기. 옛날에 그다가 그렇게 사고도 많이 나곡. 그 옛날에 무슨 참아주 그 원시시절에 그 구미호(九尾狐)가 거기서 났댄 해주계. 옛날에 우리 어머님 친정 오라버님네가 그 훈정달(訓長들)이라서, 그 아주 문장달(文章들)이난, 그런 말을 행 어머니하고 저 삼촌하고 자꾸 하는 얘기만 들었지. 뭐 그런 얘기 등등 들었주만 다 잊어부렀주게. 옛날에 계유백대기엔 그런 구미호가 많이 나가지고 어느 하나 선비가 향교가 정의향교하고 대정향교는 지금 안덕 사계리 저 뭐야 바금지오름이엔도 하고 저 단산 밑에 향교가 있거든. 그 그 단산이 향교에 대정향교고 정의향교는 지금 성읍리(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가 정의향교거든. 그 니깐 대정 선비가 정의엘 갔다 오다가 보면은 지금 일주도로가 저 계유백대기 조각공원이 거기엘 오며는.

“선비님! 날 데령감썬. 날 데령감썬.” 그냥.

〈조사자 : 여자가?〉

여자가.

“선비님! 날 데령감썬. 날 데령감썬.” 호민.

“이 고안년!”

그 선비는 알았거든.

“날 데령갑써, 날 데령갑써.”

어느 사이에 그렇게 말을 타고 자꾸 해코지를 하니까, 하루는 집에 와서 참 자꾸 선비들이니까 향교는 보러 다녀야 되고 그냥 와서 그냥 참 멧 달을 개를 키웠덴. 하얀 개를 하얀 개에다 노란 개에다 개를 키워가지고, 잘 키워 참 평도 사냥해다 맥이고 잘 키워, 한번은,

“선비님! 날 데령갑써, 날 데령갑써.”

“그래 올라타라.”

올라타니깐 그냥 그 선비가 그냥 완전 준빌 행 쏹쏹 묶었던 호는 거라. 그냥 완전 그걸.

“아이고 선비님! 무사 영 햄수짱?(왜 이렇게 하십니까.) 똥 매렵수다, 오줌매렵수다.”

막 안절부절 막 호 거라. 눈치를 아니까.

“스나이 대장부 가는 길에 말을 달리면 너가 떨어질까봐, 나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쏹쏹 묶어서 집에 데려 갈란다.”

해서 그냥 말채를 쥐고 막 참 침 지금으로 말하면 올래 응 딱 정문앞에 도달하면서,

“백고(白狗)야, 황고(黃狗)야!”

하니깐, 그냥 “으앙!” 하고 무니깐, 뭐 응 꼴리(꼬리)가 멧 바리 늘어진 거. 그 때 그 여우를 잡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여우를 없애지고 그후부터는 여우가 없었던 호영. 자꾸 우리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안티 와서 느 알았다(아느냐)? 죽은누이 호민 아이고 예 그때 오라바님 영영 행 들리지 안해수가? 오, 그때 그 우리 제주도는 그, 이 대정향교호고 정의향교를 해영 대정에서 정의향교로 가고 정의향교선 또 대정이 오편 호민(豪民)이 몰 아니민 댕겨반 해시냐. 경 몰 탕 뭘 했젠 호고(하였다더라).

21) 옷 잘못 입은 이야기

제 보 자 : 허성순(여·66)

제보일자 : 1998년 8월 1일 오후 2시 30분

제보장소 : 허성순 할머니댁(상모2리)

요약 : 대정 사람이 노름하다가 돈을 모두 잃어 돌아가는 길에 향교에 있는 선비에게 옷을 잘못 입었다며 얘기하자 그 노름쟁이의 말에 넘어간 선비는 자신의 옷과 말을 그 사람것과 바꾸었다.

여기 이 동네에 저 뭐야 김녕(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큰심방(큰 무당) 오랑(와서) 살았주게. 이젠 돌아가셨저마는. 그 분한테서 자꾸 들은 말이주게. 우리 대정사람이 놀음을 허러 정엘(정의현엘) 강 돈을 흘랑 잃었거든. 흘랑 잃으니깐 침 어쩔 도리가 없는 거라. 돈을 잃고 춤 그냥 어쩔 도리가 없으니깐, 대정 그 정의향교에 분덜 선비덜은 좋은 요즘말로 봉견으로 도폭 입고 장규두고 뭐 하니까. “아, 어르신네. 거 참 옷 잘못 입어수다.” 하니깐,

아. 지나가는 고객(過客)이,

“거 뭇 소리가 그런 소리가 있는고? 우리 선비한테.”

“아이고, 모른 소리우다. 바람이 들어오민 나갈 궁기(구멍)가 이서야 사람이 그 체운을 유지해서 삼주. 거 맹주(명주)로만 입으믄 못 삼니다.”

“아, 계건 바짜줘.”

“아 이거, 이거 바꾸면 나 손헨디 마썸. 거 바꾸커들랑 몰라지 바짜썸.” 하여가 난,

“아, 저 사람 옷 벗어주고 나 게저들랑(그러면) 도복이영(도포랑) 다 벳경(벗겨서) 나 몰 탕가(타고 가).”

경 영 했는디, 다 잊어부런게.

22) 도채비 이야기(1)

제 보 자 : 허성순(여·66)

제보일자 : 1998년 8월 1일 오후 2시 30분

제보장소 : 허성순 할머니댁(상모2리)

옛날에 이건 나는 낳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긴데. 우리 외삼촌이 평

上·下事里 學術調查報告

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단아들(獨子)인데 참 외가에 부자랬젠 해주계. 저 청수(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가민 첨 제비 강침(姜宅)이라고 하면은 그 분재 청순디. 술을 먹엉 첨 제사집에 간 오당보난 불이 얼렁얼렁 얼렁얼렁 오니깐, 술은 잔 딱 하니깐 계난 술 먹으면은 정신을 바짝 출려야 하는데 술이 두글력이 생기는 거라. 불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니깐. 우리 외삼촌이 헛말을 헛 거라. 자 도채비를 불르젠 호민, 옛날엔 그, “참봉!” 이렇게 했젠 호드라게(했다고 하더라.).

〈조사자 : 참봉이랜 불렀댄 했지예?〉

어어.

“어. 참봉! 나하고 가면은 참 오늘 ……”

제삿집에 가기 전에 술을 아주 만취웨영 제삿집에 가는 길에,

“나하고 가면은 오늘 술고기도 먹고 참 좋을 것이다. 포식을 헛 거다. 불을 밝혀라 말이야.”

아이 그러니깐 그저 참 난데없이 불을 밝혀서 환하게 지금 그러니깐, 고바치(지명)라.

〈조사자 : 지금 어디엔 험니까?〉

무릉2리(남제주군 대정읍의 한 마을). 응, 거기서 청수(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까지 제사를 보래 가는 거라. 우리 외삼촌은 고바치랜 혼디, 옛날에 고바치엔 혼 디 무릉2리를 살았고. 청수까지 제사를 먹으래 가는데. 제사를 먹으래 가니깐, 깜빡 잊어버렸거든. 우리 외삼촌이, 우리 외삼촌이 인물도 잘 낫고 참 강필무라고 하면은, 참 나 낫기도 전에 돌아가셨젠 해라마는, 굉장히 참 인물이랴젠 해주계. 단아들인디, 부자였고. 제사침에 가니까,

“아이고, 형님! 오래간만이우다. 오래간만이우다. 한잔 호세, 두잔 ……”

하다 보니깐, 길 가르킨 사람은 잊어 버렸네.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조금 비워 주위에 뿌려두어야 한다는 말. 곧 고수레.), 그러니깐 요즘도 딱 어디 가서 한잔 호젠 호민. 이 제주도 할아버지들은 소주 딱 헛 때 그대로 안 먹고 요렇게 호는 그것이 바로 그거라. 아, 저 술을 먹으면 영 해 동 먹주마는 그대로 우리 외삼촌이 먹었네. 딱 집에 와 보니깐 아들 하나 있는 게 그냥 그냥 그냥 가버린 거라. 첨 말 아주 잘 타고, 다니기는 그렇게 애끼던 말이 그냥 가버린 거라. 그니깐 우리 외삼촌 허패가 다 뉘싸져본 거지(죽어 버린 거지.), 거 그걸 빌었어야 되는데, 이기켓엔 허단 보난 보라 아들 죽었젠. 첨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 다 죽었지.

아주 옛날에 잘 살다가 또 첩(妾) 얻어서 또 아들 또 죽어부렀지. 그러니깐 그냥 재산이 그냥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오빠는 주둥이 한번 잘못 노령계(놀려서), 저 술먹영 댕기명 주둥이 잘못 노령 뭘 헤시넨. 절대 사람은 헛 입 노령은 안 된다. 밤길 걸을 적에만큼은 술도 먹지 말고 정신 채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불을 꼭 갖고 다니고, 화약(火藥)이엔 현 건 괍을 말하는 거지. 이 괍 같은 거. 성냥. 성냥 같은 거 꼭 갖고 다니고, 바늘 같은 거 꼭 가정 다니고 해야지. 갑자기 뭘 일이 나면 뭘한덴. 영 우리 외가칩이 얘기가 이거라.

23) 귀신 이야기(2)

제 보 자 : 이숙열(여·66)

제보일자 : 1998년 8월 2일 오후 2시 25분

제보장소 : 하모리 노인회관

막 큰 후에, 우리 막 어린 때는 몰르고, 우리 큰 후에도 그런 저런 걸 몰랐지게. 몰른다 우리 스촌 시아주방이 순경으로 다니는디. 저 중문쪽에 순찰을 가는디. 가 단 보난 산으로(무덤에서) 히영현(하얀) 할망 하나가 - 저거 무슨 상지엔 험니까? 옛날 그 상지라(상자보고). - 떡상지(떡상자). 떡상지에 저 지물상지(제물상자)에 - 저 뭇이팡 또 그것이라 - 대바구니에 놓안 양 전에 그 산으로 양 휘뚝하게(펼쩍) 뛰어랜게. 휘뚝하게 뛰더니 조름에 아기 하나 톨랑. 또 아기도 양 그 조름에 졸졸졸 따라와랜 합디다게. 징 혼난, 거 이상하다. 이것이 어드레 가는 사름이고 헨 양. 감디(?) 먹영 조름에 막 쪼차가버런게. 쪼차가당 보난 그 사름이 양. 골목쪽에래 쑥 들어가는 것 보난, 아이고 이 집이 어떠한 들어감져. 헨 강 뵈려보난(살펴보니). 막 제사 벌려난 양 제사상 벌려와서랜게. 아이구 제사상 벌려논디. 아이구 우리 시아주방 탁 하게 강보난 제사상 벌려놓고. 그 사름은 올래(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좁고 긴 출입로) 안터레 들어오는 건 보고 아무도 못 봐랜게. 그 들어오는 사름을 못보난, 그 주인네신디(주인네에게).

“이디 아까 어떤 사름들 아니 옴데가?” 혼난.

“아이구 우리 그런 사름 못봤져.”

못봤젠. 그것이 양. 아마 그것이 진짜로 귀신, 귀신인지 그건 우리 귀신이영(귀

신이라고) 말해도 좋고, 침 그건 뭐 제스먹으레 오는 사람고라 무신 거랜 말하는 건디 모르주마는.

24) 마라도 전설(2)

제 보 자 : 이숙열(여·66)

제보일자 : 1998년 8월 2일 오후 2시 25분

제보장소 : 하모리 노인회관

요약 : 해녀들이 배를 타고 가서 마라도에서 물질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파도가 너무 세게 쳤다. 사공의 꿈에 오늘 가서 목숨하나 바쳐두고 오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꺼라고 하였다. 몇 사람이 죽느니 사람 하나를 놓고 오자고 사람들은 약속하였다. 같이 간 사람중에 애기업개가 있었는데 아기 기저귀를 갖으러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배를 띄웠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 대에는 모른다. 옛날에 가파도랑 마라도 사이에, 마라도는 막 나무가 창창 했는디 배염(뺨)들이 그렇게 많이 이서났젠. 많이 살고 경헌디. 이제 저 가파도 사람들이 자리(자리돔) 뜨레(잡으러) 거기 고기 낚으레 영 막 거길 배 노 저성 옛날에 그디 다니는디. 혼 번은 고기 낚으레 거기 가네, 고기 낚으레가 아니고 아니 침 물질하래, 해녀질하래 강 뵈려보난, 간디 이제, 막 돌앙 해녀질 하레 노 저성 간디, 바당이 삼시에 막, 막 그냥 형편없이 막 파도가 썩 거라. 경 혼난 그 사람 몽(夢)에 언치낙 몽에 뭐이라고 말헛젠 혼면은,

〈조사자 : 꿈에?〉

응. 꿈에, 꿈에 뭐이라고 말헛젠 혼면은 오늘 가면은 목숨 하나 바쳐두고 오지 아니 혼면은 사람 목숨이 없어질 거니까 그중(그렇게) 알라 행. 꿈에 시파도(보여도) (파도가) 너무 벌고(잔잔하고) 혼난, 그때는 그거 한푼 두푼 벌언 먹을 때 난 간 거라. 가네 이젠 물질을 막 해 가는디, 바당이 막 엄청어시 씨고, 아기어명이 하나 있던 모양이라. 계난 아기어명을 데리고 간 거라. 참 저 아기 데리고 가난 아기업개를 하나 아가썰 데리고 간 거라. 데리고 가난 막 파도치난 홀 수어시기냥 어머털은 계 들은 게 다 살앙 오젠 호고 그 아기업개는 옛날도 못 먹으니까

아기엽개를 간 거주게. 경 험 가네. 지난 홀 수어서 가일 너무 아깝주마는 사람 죽느니 사람 하나를 이제 놔둬 나 우리가 다 살자 험 약속허연 오는다, 뭐신 일 있었느냐민.

“어이구 아기야! 아기야! 빨리 저디 강 뵈려보라. 아기 지성귀(기저귀) 놔둬 왔져. 빨리 뛰어강 보라.”험.

흐난 그 아기엽개는 복종을 해야 돼주게. 경험 막 뛰어가는 브름에 오꽂 그 사람들은 배 띄완, 나와가간 막 잔잔 흐 거라. 잔잔흐난 바당이 막 잔잔흐난, 그 아가센 지성개(기저귀) ㄱ전 왕 보난, 배 띄완들 사람들 막 오라부렀거든게. 게난 막.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험명 막 운 거라. 막 지성개 흔들명 막.

“나 시깁감썸(태위가 주십시오). 시깁감썸” 흐난 막 울언.

경 흐단게 매칠 돼가민 배고프곡 몰라 죽을 거주게. 경흐난 그 마라도 우녉짜(오른쪽에)에 비를 세와줬는다. 그 처녀 산엔흐영(묘이라고 해서) 당으로 모션 해서. 마라도 사람들 흐 덜에 한번인가 일년에 흐 번인가 다니는다. 경 험 그저 저 전설로 이제 이어간. 그 사람들은 사람 살고, 그딘 그때 그후엔 그디 강 뵈려 보난 아가씨가 죽영 빼만 솔그랭이(덩그러니) 남아시난, 그 사람들이 가네 그디 강 문딱 그 산 험 물어준 거라. 땅 판 거험. 그것이 전설이 돼어네, 우리가 그 전설을 제주시에 간, 우리 전설 저기 마라도 …….

25) 귀신 이야기(3)

제 보 자 : 정의보(남·64)

제보일시 : 1998년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제보장소 : 대동노인회관

요약 : 어린애기 무덤이 많은 곳에 사람이 지나면 넘어지거나 죽는다. 그리고 그 곳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머리달린 말이 지나는 사람의 치마를 확 감싸가지고 그냥 차버려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한다. 옛날은 치마를 입은 할머니 들이 많아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많아 읍장님이 한 번 제를 지낸적이 있다고 한다.

上·下事里 學術調查報告

나는 절대 거긴 혼자 절대 지나지 못합니다.

〈조사자 : 지금도?〉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사자 : 왜 그럴까 예?〉

글세 그러니까 왕이자랑 왕이자랑 그 애기구덕(대나무로 만든 요람) 흥그는 소리하면서 여자가 나와서 불러 들이면은 곧바로 갔던 사람이 거기 강으네 넘어 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조사자 : 아. 아.〉

거기는 넘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많습니다).

〈조사자 : 옛날부터 경했던 마씨?〉

예. 이제도 그렇습니다.

〈조사자 : 그면 옛날에 여자가 사연이 있는 거 ……〉

예. 켜디 거기가 지대가 어린애기들을 많이 묻은 곳입니다. 묻었던 …….

〈조사자 : 아. 애기무덤마씨?〉

예. 애기무덤이 계속 있는 곳입니다. 켜데 거기는 대표적으로 과거 부지사(副知事)를 지낸 강정주씨도 거기서 당했습니다.

〈조사자 : 아.〉

바로 거기서 그냥 넘어졌습니다.

〈조사자 : 다쳤던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소리 들었던 마씨?〉

예, 그리고 이제 요기 경비대 정문 앞인데, 거기는 이제는 그런 말이 없는데, 처음에 그 개인택시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아주 오래했는데, 그게 한 육십년 대니까, 그 때 모슬포에도 그 택시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기가 그 당시에 전부 이제 좁은 2차선들인데, 거기는 4차선까지 길이 넓죠. 요기 가면은 저 남고(대정고등학교) 바로 앞인데, 그 길이 굉장히 넓죠. 이제 4차선 돼 있는데, 것이 전 군수들이 넓은 길이죠. 근데, 그 일정시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일본놈들이 주둔한 소위 대촌병사라고 해서 오무라부대라고 그러죠. 거긴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죽었는데 막 비가 오는 날 뭐하는 날은 아다마구레, 머리 달렌 말입니다. 아마다구레 아마다구레. 아시구레 아시구레, 발 달렌. 그렇게 험다고 했는데, 그 후에 교통사고 그렇게 많이 납니다. 거기서 멀정하게 교통사고 나죠. 멀쩡하게, 지나는 사람 치마를 확 그냥 감싸가지고

는 그냥 차버리는 것이야. 차가 짝 가는데 옆에 지나는, 요즘은 차매를 입는 분네가 좀 없는데 옛날은 할마님들은 거의 입었습니다. 그게 차가지고 그냥 교통사고를 당하고, 참. 그래서 우리 읍장님이 한 번 제를 지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에게.

〈조사자 : 예.〉

이런 사고를 없애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6) 강백년(2)

제 보 자 : 정익보(남·64)

제보일시 : 1998년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제보장소 : 대동노인회관

요약 : 강백년이 갑자기 죽어 영을 치르려고 하는데 입에서 거품이나고 조금씩 호흡을 하면서 3일만에 살아났다. 알고보니 강백년이 죽어 저승에 있는 열라대왕에게 갔다왔는데 동일리 강백년을 데려와야 하는데 잘못 알고 하모리 강백년을 데려온 것이었다. 그래서 하모리 강백년은 다시 돌아오고 동일리 강백년은 길가다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한다.

〈조사자 : 저기 그 강병현이라는 분이 원래 돌아가셨당 다시 이틀만에 ……〉

아, 예. 이틀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그거는 예 강백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저희들하고 이제 말로는 초등학교 동창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딸도 없고 이제 한 그 분인데, 예 이 어른이 음력 6월달에 갑자기 죽었죠. 이제,

〈조사자 : 언제 돌아가셨 마씨?〉

글쎄 그 어른이 살아계시면은 이제 백 열살 정도 됐으니깐, 살아계셨다고 하면 예, 백 열살 정돈데 그 분네가. 거의 한창 때라고 사십대라고 애길 하거든요. 근데 그 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 날이 건 겁니다. 손을 못보는 날이 있습니다. 소렴(小殮)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옷을 입히고 관에 집어넣고 이러죠?

〈조사자 : 예.〉

그래서 걸리는 날은 일체 건드리질 아니 합니다.

上·下藁里 學術調查報告

〈조사자 : 예.〉

그러면 6월달이면은 굉장히 더운 때고, 3일동안을 걸려가지고 손을 못본 겁니다. 일체를.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서 걸리느냐 하면은 예, 6월달에는 무기(戊己) 돌하고 사해(巳亥) 이 나홀은 사람 죽으면은 손을 안 대는 날입니다. 그런데 6월달에 무기(戊己)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떻하면 연 3일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조사자 : 예.〉

연 3일 그렇게 음. 그런 날이 있는데 음. 무기는 계속 붙으는 거죠. 무(戊) 다음에 기(己)니까 그 다음 여기다가 계속해서 사일(巳日)이나 해일(亥日)이 붙은 경우에는,

〈조사자 : 예.〉

뱀날과 돼지날이 붙으면은 연 3일동안은 사람이 소렴도 대렴도 못합니다.

〈조사자 : 게문 어떻게 죽으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 마씨?〉

예. 예. 그렇죠 그게.

〈조사자 : 아. 예.〉

그게 우리 전해오는 …….

〈조사자 : 그면 영을 못하는 거 마씨?〉

그렇죠. 영은 일체 못하죠. 일체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게난 그렇게 붙은 날이 죽은 거예요. 이 어른이.

〈조사자 : 강백년씨가예?〉

그렇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그거를 밝아서 셋날(새 날), 그러면 열두시, 자시(子時)가 지나야 셋날이 돼니까. 그 때는 영을 헐라고 해서 이렇게 하니깐, 아 이제 이렇게 사람을 영을 해가면 건드릴까 아냐? 그렇게 하니깐 후~ 하면서 거품이 이리 나오더라는 거여. 거품이 이렇게 나오니까 거 이상하다. 옆에 사람하고 보통 영은 두 사람이 마주하는 거주. 경하는데 그 분이 또 후~ 한 거죠. 쟁 이상타 행이네, 아 이 우리가 영을 잘못하는 거 아니겐. 게행 이제 옷을 입혀가는 거주.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니까. 아 이거 안돼겠다. 좀 참자해서 기다리니깐 또 쪼끔씩 쪼끔씩 호흡이 시작하는 거여. 게니깐 그거 만 3일동안 갔다 온 겁니다. 죽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조사자 : 예.〉

그런데 그 양반이 살아나고 보니깐, 이 등따리가 전부 썩었어. 삼일동안에. 육

창이라고 하죠. 옥창. 써었는데 이 양반이 살아나고 동일리(남제주군 대정읍의 한 마을) 강백년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쓰러져 죽었습니다.

〈조사자 : 근데 그 돌아가셨다가 깨어나신 분은 아무 말씀 안하십니까?〉

아니, 그니까 곧는 거죠. 인제 나 이제 저승에 갔다 왔다 이거예요.

〈조사자 : 아. 그분께서?〉

예. 내 저승에 갔는데 저 염라대왕안티 가니까, 그 소위 신고를 하라고 하니깐 난 하모리에서 온 강백년이라고 하니깐, 아 그 최판스(崔判事)라는 문서잡이가, “아 이거 아니다. 동일리 강백년인데 동일리 강백년인데.”

〈조사자 : 잘못 왔다고〉

아, 이게 잘못왔다고. 게니까 너 평생에 뭐 하느냐 하니깐, 아 나는 아무것도. 그 사람이 아주 순수하고 어진 사람이예요.

〈조사자 : 아. 예.〉

어. 자식 하나 늦둥이 하나 봉가서(얻어서) 이제 내할 가져 사는 분인데. 난 그렇게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하니깐. 난 아 이거 동일리 강백년이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왜 하모리 강백년이를 잡아왔느냐. 그래서 난 이제 돌아가서 뭐라고 하니깐. 게서 돌아오면서 죽은 동네 사람들 만나고 온 얘기까지 합니다.

〈조사자 : 아. 이미 죽은 사람.〉

가보니까 누구는 세태우고 있더라. 그런데 그 후손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죠.

〈조사자 : 예.〉

누구는 아 그 좀 돈 좀 보내달랜 하드라. 아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뭐 하드라. 해서 돌아오니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굶도 하는 거죠. 이제 그 들은 사람들은. 아 쟁 돈 보내젠 하든 굶해서 보내는 길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우리 민속신앙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굶도 하고 해서 그이는 그렇게 깨나가지고 그 우리가 죽었다고 할 적에는 잘 모를 때고, 잘 몰랐고 오래오래 사시다 우리가 알고서 그 후에 돌아가셨어. 예. 그 조카가 아직 하모리에 살고 있습니다. 조카가.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람이예요. 저승 갔다 온 얘기 전부합니다. 강아지가 백강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로 해서 이렇게 헛 들어갔는데, 뭐 행 가온 말. 질도 험난하고 막 행 갔는데, 그렇게 그 염라대왕이 동일리 강백년이를 잡아오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해서, 저승 그 차산데 여기선 채시 채시하죠.

저승 채시를 야단쳐가지고는 당장에 돌려보내주고, 뭐이라 해서 그래서 동일리 강백년이는 길거리 가다가 그냥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죽었고, 이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조사자 : 아, 예.〉

아마 저승 있는가? 난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얘기죠?

27) 도깨비 이야기(2)

제 보 자 : 정익보(남·64)

제보일시 : 1998년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제보장소 : 대동노인회관

요약 : 덕수에 시집간 외숙모가 밭에 가서 일하는데 밥을 하게 되면 먼저 도깨비에게 올려야하는데 시간도 없고 급해서 그냥 올리지 않고 점심구덕을 가지고 밭에 갔다. 가서 생각해 보니 잘못함을 알고 집으로 뛰어왔으나 이미 집은 불에 타고 있었다.

〈조사자 : 막 예 사람들 혼자 산길 같은데 지나가다가 예, 귀신소리 들을 때 막 성냥불 타 쾀쾀 하잖아예. 그런 애긴 들은 적 어서마씨?〉

아, 예, 그렇죠. 성냥은 화약이기 때문에. 화약.

〈조사자 : 예. 화약냄새 싫어해마씨?〉

도깨비가 화약을 싫어하는 거주.

도깨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수수떡, 돼지고기 음 요 두가지. 그런데 젤 싫어하는 것이 말뽕이다. 말뽕, 말고기. 도깨비가 젤 싫어하는 것인데. 이, 아 여러분들 아마 우리 민속공연 홀 적에 거 뭐라고 합니까? 영감놀이라는 거. 영감놀이. 영감이란 말은 도깨비 영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깨비를 영감으로 모시는 거예요. 참봉(參奉)이라고도 하고, 참봉은 옛날 관직입니다. 그래서 높여주는 거예요. 잘못 해버리면 그 집안 망하고 …….

〈조사자 : 도깨비 만났다는 사람은 안 들어 봐수과?〉

도깨비를 모셔다가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

〈조사자 : 그런 사람들 얘기는 들어신가 마씨?〉

그런 말은 많이 들었지.

〈조사자 : 들어신 거 아무거나 ……〉

음. 그것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는 덕습니다. 덕수(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산방(산방산) 뒷동네. 옛날에는 새당이라고 하여, 새당. 새당이란 말은 신당. 한문으로 쓰면은 새로 당을 모셨다 하는 애깁니다. 그것을 새당, 새당했는데, 거기를 이제는 덕수라고 하는데, 거기가 거의 거 불매(풀무), 불매질하는 거 모르겠어요? 저 옹기를 넣어서 굽고져 호민 푸욱 꾸워지는 거 있잖아요. 불무 …….

〈조사자 : 풀무질?〉

풀무질하는 것을 여기서는 불매질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채비를 모셨던 거죠. 집에, 거 안하면은 옹기가 제대로 익지 아니하니까.

〈조사자 :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배에 바당에 다니는 선박덜. 어부덜은 반드시 선왕을 모십니다. 배 앞코지 요렇게 한 데 밑에 가면은 기(旗)들토 이렇게 세와 있고, 그 밑에 선왕(船王)을 모십니다.

〈조사자 : 예.〉

그 선왕이 바로 도채비예요.

〈조사자 : 덕수에서 봤던 거 마씨?〉

덕수에서는 우리 외숙모뉘는 분네가 시집을 갔다가 거기에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개가(改嫁)해서 우리 외숙모로 왔습니다. 왔는데 임자가 경험담을 우리 안티 전해준 애깁니다. 저 밥을 하게 되면 먼저 걸 올려야 돼여.

〈조사자 : 도깨비한테 먼저 마씨?〉

먼저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밧덜(밭에) 가서 일하는 데 밥은 점심은 해서 가야 될 건데 시간은 엇고 막 급흔 브름에 그냥 거 올리진 아니하고 그냥 점심구덕 짹어지고 그냥 밧덜 가 버린 거예요.

〈조사자 : 예.〉

아.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깐 아 그거 잘못해졌구나. 아 그래서 뉘우쳐 가지고는 뛰어오다 보니까는 거 벌써 집에는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불이 완전히 게행 없어진 거여. 그래서 아 나 그 시집이 살아난 생각하면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외숙모가 직접 임자가 체험한 것을 나안티 전해준 거인디.

〈조사자 : 그게 덕수에서 ……〉

上·下峯里 學術調查報告

예. 덕수초. 예. 우리 외숙모가 덕수에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우리 외숙부한테 개가해서 오신 어른이 전해준 얘기죠. 임자가 덕수에서 시집 살 적에 그런 경험을 겪었노라.

〈조사자 : 그 동네는 원래 도깨비가 많은가보다 예?〉

이제도 소위 말하면 여기 송씨 계세요? 송도채비라고 해서 거기가 거의 송씨촌(宋氏村)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닷에 다니는 사람들도 초하루 보름 꼭 제(祭)를 지냅니다. 거기 가서, 그 배에 가서, 것을 선왕(船王)이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도깨비를 모신 겁니다.

28) 지명유래 : 모슬봉(2)

제 보 자 : 정익보(남·64)

제보일시 : 1998년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제보장소 : 대동노인회관

요약 : 모슬봉은 거문고와 비슷한 비파 모양이라는 데서 모슬이 유래된 것이라 한다.

〈조사자 : 모슬봉에 관한 얘기는 어수과?〉

모슬봉은 저기 대정고을에서 불 적에 비파(琵琶), 소위 말하는 악기. 거문고 비슷한 거엔 하는데, 그것은 저쪽에서 불 적에 비하면 비파모양이라고 그립니다. 그래서 모슬(摹瑟)이란 것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부처 아진굴이라고 하는데 옛날 부처를 와서 거기 모신 적이 있다해서 이제 그런 거구요.

29) 오좌수(2)

제 보 자 : 정익보(남·64)

제보일시 : 1998년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제보장소 : 대동노인회관

조선말기에, 이 양반덜이 그 당시는 중국에서도 에 침입해온 왜구들이 들어오는데, 왜구라는 얘기는 일본 사람들, 소위 말하면 해적을 우리 나라가 좋게 말해서 왜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슬포 밑에 가파도가 있고 마라도가 있쥬, 여기 해산물이 이제 전복, 소라 이런 것덜이 많이 나쥬, 이제, 이거를 채취하기 위해 왔는데, 바다에서 오래 살다보면은 음료수가 없으면은 안돼쥬, 음료수를 걷기 위해서는 천상 우리 육지에다가 즈간을 해서 음료수를 저가야 하는데, 막상 이 사람덜은 그 해적의 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의 땅에 들어와서 노략질해서 가기 때문에, 와가지고 보면은 그 쪽에는 그 보통 옛날에는 용천수, 바닷가에서 용천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음료수로 마시쥬, 마시는데 에 거기에는 부녀자들이 거기가 빨래를 헹다든가 많이 하쥬, 이제 여기 우리 하모리 여기서도 그 물을 먹었었는데, 하모 읍사무소로(대정읍사무소) 쪽 내려간 데 신영수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데 와서 물을 길어가야 돼거든, 이 사람들이 길르레 들어왔다가 부녀자들 만나니까 희롱도 하고 행패도 부리고 하여, 또 옆에 닭덜 같은 거 기르는 거 있으면은 닭덜도 잡아가버리고, 막 소같은 것도 이뽀도(日本刀)라고 하는데 그 일본칼, 긴 칼, 걸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깐 누가 적대를 못 는 거쥬, 그래서 행패가 아주 심했습니다. 여기가 이 지방에, 그래서 이래선 도저히 안돼쥬. 그래서 그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오좌수라는 분이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백수(白手)로, 그 상대방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방망이 하나를 가지고 덤빈 거쥬, 그래서 한 분네는 거기 희생도 당하기도 했고, 어해서 명단은 여러분들 오좌수란 명단은 아실 겁니다마는, 그 아까 얘기하는 신영수에 가면은 에 모슬포 J.C. 청년회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제, J.C. 오성찬 소설가가 글을 만들고 김태운씨가 글을 쓰고 해서 기적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방이 의분이 좀 강한 곳입니다. 에, 대정이란 곳이, 그래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절대, 정당한 거에는 백번 호응을 해주지만은 부당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를 안하는 곳이 이 지방 기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속칭 대정 몽생이(망아지) 몽생이 자꾸 그런 얘기를 니다. 몽생이는 가르치기가 아주 힘들어요, 소는 조금만 가르치면 돼는데 물은 가르치기 힘들거든, 사흘만 일을 안 시키면 옛날 버릇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몽생이는, 그래서 아주 그 조천과 대정을 제주서 특징적으로 조천관(朝天館,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풀도 안난다고 하고, 대정 몽생이들 다니는 곳을 아무것도

건드릴 게 없다. 너무나 싹싹하고 냉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대정 지방이 배운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어떠한 옳고 그른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이쪽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0) 향장(鄕長)의 유래

제 보 자 : 정익보(남·64)

제보일시 : 1998년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제보장소 : 대동노인회관

요약 : 이 마을에는 제일 연장자가 향장이 되어 마을의 잘못된 일을 판정하고 잘못된 사람을 야단치는 향장제가 지금도 남아 있다.

전해들은 얘기인데 남방이라는 것 잘 모르실 건데,

〈조사자 : 방아마씨?〉

예. 방안데 나무로 요렇게 뚱그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쥘는 거.

〈조사자 : 예. 남방아.〉

나무로 만든 것이 남방아예요. 그런데 그거를 쓰고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갓 식으로 머리에다가, 그리고 밑에는 남신을 신고, 남신.

〈조사자 : 나막신.〉

나막신. 나무로 맹글아(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달린 거. 그걸 신고 비오는 날 그거를 소위 우장(우비)이죠.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걸 뒤집어 쓰면 굉장히 큰 거쥬. 그걸해서 움직여 가니깐, 이놈 이거 사름 죽일 놈이라고, 훗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하모리는 그 향평이 아주 강합니다. 이제도 향장(鄕長)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조사자 : 그건 어떤거 마씨?〉

향장은 전직 이장을 지낸 분네에서 아주 오랜 분네, 나이가 많은 분네, 그래서 종신제(終身制)입니다. 그이는 종신제 그 이가 돌아가셔야 그 다음 번에 이장을 지낸 분 중에 제일 연장자가 향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마을에서 잘못되는 사람덜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뭐 하게 되면은, 경찰서에 가고 지서에 가

고 그렇게 없습니다. 거기서 판결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너 아주 불효했다. 이놈 너 여기와서 볼기 맞아라. 켜디 그 어른이 불러다가 이놈 너 종아리 맞고 다실랑(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멧 대 맞았다고 합니다. 맞아야 뉘꼭 후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향장이 사법권까지 전부 가지고 있어요. 거기 하모1리 하동(下洞)에 가 있는 성은 나씨 하르버진데, 아주 심센 그런 어른이 있죠.

〈조사자 : 향장제도는 이쪽 고을에만 이신 거 마씨?〉

아, 예. 하모리만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마을에도 어디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만, 하모리에는 이제도 향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31) 오찰방(3)

제 보 자 : 정익보(남·64)

제보일시 : 1998년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제보장소 : 대동노인회관

요약 : 모친이 오찰방 누이를 가졌을 때 소 아홉 마리를 잡아 먹었는데 다시 오찰방을 가졌을 때 제집애인이 싶어 한 마리 모자라게 여덟마리를 잡아 먹었다. 그래서 오찰방이 태어났는데 힘이 아주 세어 씨름판마다 판을 주도하였다. 그의 누이가 오찰방의 기를 꺾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씨름판에서 오찰방과 시합을 하였는데 누이가 이겼다고 한다.

〈조사자 : 오찰방 얘기는 들으셨마씨?〉

오찰방씨는 저 대정골 분넨데 그이도 힘센 이라고 듣죠.

〈조사자 : 예. 날개도 막 달렸었다고.〉

아, 예. 그런 여기다 놀개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그 오찰방은, 찰방이라는 것은 조선 말기의 관직이죠, 관직. 찰방은 이제 요새 걸으민 역장(驛長), 육지에 가든 역장, 역장이 찰방입니다.

〈조사자 : 역장마씨?〉

역장, 기차역 역장.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모친이 잉태해가지고 홀 적에 셋을 여덟마리를 먼저 잡아서 맥였다 그렇습니다. 맥였는데 낳고 보니까 그 딸이, 누나가 먼저 났죠. 누이가 먼저 낳은 게 이거 잉태하고 났으니까, 야 우리집이 손(孫)이

上·下臺里 學術調查報告

나오는가 보다하고 쉼을 아홉 마리를 맥여보니까, 난 것이 계집애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잉태해서 난 게 오찰방이죠. 그때는 에이 그거 맥여봤자 지집아만 나오니까 에이 그거 안 된덴. 여덟 마리를 먹었던 말이에요. 한 마리 모 자라게 맥였다 그래요. 그래서 오찰방이 태어났는데, 거 찰방 벼슬도 하면서 이제 대정현의 찰방이죠, 이제. 했는데 이 양반이 대정골에서 씨름을 하는데 나 이길 놈 이시민 나와보라 해서 독판을 잡아버린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그 누나 뉘는 이는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이거 참 놈한테다가 아무리 힘이 쎄도 두 사람 시 사람이 합쳐지면은 감당 못하는 거쥬. 그러면 욱을 당하리. 이거 안돼겠다. 해서 이놈 기를 좀 꺾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남복(男服)을 해가지고 에 남자옷을 입고서 가서,

“너 이놈 어떤 놈인디 이리 나와보라.”고,

해서 매여다가 그냥 후딱 내리쳐노니까,

“야, 그놈 썩긴 썩 놈이다. 나를 이기는 놈이 있다.”고,

깡 돌아와서,

“네 이놈아 내 너 누나다. 이놈아, 정신차려야지, 니가 독불장군 짓 하질 말아.”
그렇게.

<조사자 : 그니까 의미가 다 있었던 ……>

예.

“그러면은 니가 살아가는데 훗날 너무 독불장군 하다가는 서너 사름 모여들민 니 하나 뭐 어디 가는 것은 뭐 거저먹기 아니냐.”

그렇게 했다는 얘길 전해 들었쥬.

<조사자 : 그러면 그 얘긴 누구한테 들으신 거 마씨?>

야, 이거는 보통 전부 보통 한 육십세, 오십세 이상은 거의 알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조사자 : 그 오찰방이 어느 때쯤에 살았던 사람인지는 모르고 마씨?>

그 오찰방은 그리 오랜 사람은 아니예요. 천 팔백 구십년대 아난가 생각되는데, 한참 활동 할 때가. 거기 묘소는 이제 저 산업도로 이렇게 가다보면은 대정골 좀 지나서 왼쪽에 묘가 있는데, 이제 그 직접 후손은 없구요. 형님의 손자들인가 해서 그 후손이 있습니다. 이제.

32) 막산이(3)

제 보 자 : 정익보(남·64)

제보일시 : 1998년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제보장소 : 대동노인회관

요약 : 막산이굴이라고 하는 곳에 막산이가 숨어 살았는데 어떤 사람도 그를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막산이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 음식 같은 것을 빼먹었다고 한다.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지 돈을 빼앗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다.

<조사자 : 저 예. 막산이 얘기는 들으신 적 이서 마씨?>

아, 막산이. 막산이 얘기는 많이 흐죠. 막산이가 거 어디냐면은 여기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운전면허증 시험보는 데 있죠? 산업도로.

<조사자 : 예, 예.>

그 이쪽 이렇게 움푹한 곳이 있죠.

<조사자 : 막산이굴이런 하는 …….>

예, 거기를 여기서는 막산이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이걸 막산이굴이라고 해서 망나니란 건 사름 사형수를 망나니라고 하는 건데. 막산이는 벨놈이 붙어도 상대를 못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숨어살아가지고, 그굴에 …….

<조사자 : 어떻게 숨어살게 된마씨?>

아, 글썄 그러니깐 너무 식량이, 배가 커노니까. 막상 배는 채우지 못하면은 지나의 사람, 이 산업도로가 옛날 다니던 길입니다. 대정 고을에서, 대정현에서 모관이라고 흐거든요. 저기는 거는 목관을 얘기하는 말인데 말은 줄여서 모관, 모관 하는데, 그 제주시에 그 향배가는데, 이제 저 관덕정 옆에 제주목 현재 복구하고 있죠? 예 거기까지 가는 데는 그 길을 꼭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숨어있다가, 돈 있는 사람 뜯어가지고 어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돈은 뺏다고 안해요. 막산이, 음식 같은 거 뭐 가다가 중참(점심) 훔겨 싸고 있으면은 그걸 빼먹었다 그래요.

<조사자 : 사람을 죽이진 않고예?>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돈을 빼거나 그런 건 아니구요.

〈조사자 : 예〉

신발줄은 것도, 여기서 저기 가는 데에 일곱시간 걸리거든요, 걸어서 가는데, 가는데. 그러면은 옛날 초신(짚신)이니까 다이면은 올 때는 또 초신 갈아신고 하죠. 초신 빼거나 그런 것도 아니구요. 단지 그 먹는 거에 대해서만 빼서 그 쪽으로 숨어가지고 가서 살았다.

3) 귀신 이야기(4)

제 보 자 : 허갑생(여·86세)

제보일시 : 7월 31일 오후 1시 40분경

제보장소 : 허갑생 할머니 댁

요약 : 제삿날 세계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제보자 친정아버지께서 귀신을 보았는데 귀신이 자꾸 따라오라고 했었다는 얘기이다.

제삿날 사계 강 오다네 강 오단 보다네 오꼴 보이는 게 해영허게(하양게) 출령 영헌 앞에 어지러가난 우리 친정아버지하고 ㅁ찌 가났주게.

〈조사자 : 예〉

깡 오당 보니까, 하 이상하다. 난 그 사름이 사름신디더레 바싹 돌란 거 조름에 만 딸르렌만 하는 게라. 딸르렌만. 우리 아버지는 막 연날에도 침 글 가르치고 거시기 유식해났젠 홀디. 어떻헐디엔 호난 큰큰헌 통드래 확 기어들어 비엿덴. 그놈이.

34) 귀신 이야기(5)

제 보 자 : 허갑생(여·86세)

제보일시 : 7월 31일 오후 1시 40분경

제보장소 : 허갑생 할머니 댁

요약 : 모슬봉 뒤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대낮에 귀신을 만났다는 이야기이다.

훈 사람은 저 대정골 가네 보리 비영 여름에 보리 비영 오당 보나네, 어떤 육
짖 남즈가 보나네. 막 하게 양지만 두치 하여네. 우리 산에 걸으는디 막 사람 불
끈 심어 저 훈 세 시에 해도 높을 때,

〈조사자 : 아, 그냥 낮이마썸? 낮이 마썸?〉

낮이. 불끈 심어네. 어떠한 영 하여 보나 경헌 게 아니고, 언치낙(어제 저녁) 저
대정골 저 마누란 죽어불고, 아기들 시개(세 개) 모슬포 나네 이제 질르당으네
(기르다가). 이제 보리 비당 비다네 오단 보다네, 저 술집에 들러네 술 먹당 보나,
열 두시가 되도록 또 밤 열두시 뉘난, 계난 저 그던 모를 거라. 천안동산(지명)이
엔 훈 디. 그런 건 나나 알주게. 계난 그디 강 보나. 여자가 돌리에 담배 꽃이고
헨 많이 아자서랜. 아쟝당 그 남절(남자를) 아이고 우리영 ㅈ찌 가젠 ㅈ찌 가지
하나네, 아이고 이젠 벗 하여졌겐. 지꺼정(기뻐서) 하난 하는 거 아니? 쟁 하난
그 사람은 처음에 구짜 돌란 저 모슬봉 뒤에 큰 공동묘지가 이서.

〈조사자 : 그 모슬포 뒤에 마썸?〉

저 뒤에 …….

〈조사자 : 지금도 이서 마썸?〉

이서. 공동묘. 어. 공동묘지. 사람 하여 묻는 디. 가난 무신 거 별을 탁하게 창보
난 비석이 우트레 멜라져비어서게. 계난게. 그것부터 강 원 으서전. 쟁 하난 이젠
그 사람은 정해서 저쪽스난 그제사 무소운 줄도 알고 하난. 저 모슬봉 위에 저
군인들 살암주게.

〈조사자 : 예.〉

계난 그 군인들 돌아당에 얘기하난 어떠한 일이고 하난. 스실이 약하약하 했겐
하난. 이제까지 움출해여. 이제까지. 옛날에 거시기 겪었던 일. 겪었던 일. 옛날에
경해났주마는. 우리는 이젠 귀신이 아이나. 잊어부런.

35) 마라도 전설(4)

제 보 자 : 김춘옥(여·68세.)

조사일시 : 8월 2일 오후 2시

上 · 下 葦 里 學 術 調 査 報 告

제보장소 : 하모리 도로변 공터

요약 : 옛날에 마라도에 갔는데 귀신이 나와서 처녀를 제물로 마치지 않으면 마라도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자 처녀를 제물로 바치고 나왔다는 전설이다. 아직도 할망당을 만들어서 일년에 한 두 번씩은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옛날 얘기덜은 마라도 강 처녀도 봤댕 흥곡 경했댄 해라.

〈조사자 : 처녀 어떻마씨?〉

옛날에 그디 아무도 아이 사난 저 섬 중에 마라도, 섬 중에 가난 그 무신 마라도 강 아무도 아이 사는디 강 살단 그디 가난, 큰 이상헌 졸락헌 거 무시겨 나오난, 그거 이제 처녀 흥나 바쳐딩 가랜, 경 흥난 배 탕가당 곱딱흔 처녀 흥나 바쳐 나오랴쥬.

〈조사자 : 여기 처녀 마씨? 아니른〉

배에 탕강 제주도 처녀쥬, 어디 무신 육지 처녀라게? 옛날에, 경행 강 바찌 나오랴쥬 험게, 구신(귀신)이 나오랑 바찌 가랜 흥난게 바쳐딩 왔쥬게.

〈조사자 : 귀신이 마씨?〉

응.

〈조사자 : 안 바찌른 못보내 준댄 경 해수과?〉

응, 아이 바찌른 배가 가당 육을 보나 오지 못험게 헌댄, 오지 못험게 헌댄, 오지 못험게 흥난 꾸짜헌 처녀, 그기 강 싯건 바쳐동 오라부난, 그 사름이 그디서 죽엿쥬게, 그디서 그 처녀가.

〈조사자 : 예 아무도 안 살 때, 마라도 예?〉

응, 마라도, 경 흥난 그디 아무도 아이 살앙 죽언, 이제 ㄱ트민 제주도 말로 할망 모시쥬게, 할망당.

〈조사자 : 예.〉

모성 살았쥬, 경 들엿쥬게.

〈조사자 : 경 흥른 잘도 오래된 얘기우다예?〉

응, 사람이 아이 살 때난.

〈조사자 : 그 후에는 처녀 바치지 안험 마씨?〉

아이, 그르후젠 처녀 아이바쥬, 처녀 이젠 아이바쥬.

〈조사자 : 당만 세우고 마썸?〉

아무도 아이 살 때난 아무도 아이 살앙 그저 당만 모셨주게.

〈조사자 : 아. 예. 그럼 그 당이 지금도 이수과?〉

예예. 일레만씩 …….

〈조사자 : 그 처녀 바치랜 현 게 뭐우팡?〉

처녀 바치랜 현 게. 그디 강 저 그디 당 모시젠 호난. 그 처녀가 그디서 섬중에서 바쳤주게.

〈조사자 : 예.〉

아멩해도 아이 바치믄 보내주지 안 호켄 호난게. 뒤에 사람 오젠 호난게 배도 아이 보내주곡 어떻게. 그 사람 호나 바쳐부러사주. 몬딱 죽어블랜. 구경갓당 처녀가 죽으난. 처녀가 할망됐쥬. 연날 얘기지. 구신으로 뒤영. 그디 이제 크게 당 모셨덴 행게.

〈조사자 : 경행 할망당이랜 햐수과? 지금도 이수과?〉

싯주게.

〈조사자 : 사람들 빌고, 막 ……〉

게 빌주게. 이제도 막 떡 호고 밥 호고 아정 가주게.

〈조사자 : 예. 일주일에 한 번 마씨?〉

경 호곡 거 거시게 일렛날에. 영장 나민 못가곡.

〈조사자 : 영장 나민 못가고, 일렛날은 안가고 마씨?〉

초 일렛날. 일년에 두 번은 감실 거라.

〈조사자 : 예. 일년에 두 번. 그럼 처녀 바치라고 말한 귀신 본 사람 있던마씨? 어떤 귀신이었나. 그 귀신에 대해서는 몰라마씨?〉

36) 마라도 전설(5)

제 보 자 : 소춘자(여, 88세)

조사일시 : 8월 2일 오후 2시

조사장소 : 하모리 도로변 공터

〈조사자 : 마라도 전설 들은 거 이서마씨?〉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옛 사람덜 물질하래 갔는데. 옛날엔 풍선 돛 달앙 댕이는 거. 그것 댕경 집이 가곡 해.

〈조사자 : 예.〉

계난 아기업게를 돌아갔당 이제 그렇게 해노난 바당은 씨고 우리가 이제 못 나가믄 다 죽게 생기지 안해샤. 경 호난에 갱 아기 기정귀 호나 내려 치와 놔팅 강 그 이젠 뱃머리에 오라네. 아구게 아기 기정귀 강 아져오랜. 영헨 보내 뱀 띄 완 가부난, 그 아오는 막 울당 지천 잔 거주게.

〈조사자 : 예.〉

경 호난 거기 아기본향이라고 본향(本鄉) 있쥬. 본향 알아져? 본향. 옛 어른덜 아기덜 키우젠 호민 댕기지 안 호나? 당!

〈조사자 : 예.〉

할망당 여기 말 호는 당이 그 당이란 말이며. 계난 아기당 아기당 호주게. 계난 할망을 위호는 거쥬. 위 안호믄 안뵈니까.

〈조사자 : 이제도 제 지내마씨?〉

계. 이제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조사자 : 일년에 몇번 지내마씨?〉

정월(正月) 나민게. 정월 나민.

信 仰

목 차

- I. 개관
- II. 공인종교
- III. 신흥종교
- IV. 민간신앙

I. 개 관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하모리는 대정읍 소재지이면서, 일제시대부터 군사도시로 개발된 곳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전통문화도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지역이다. 많은 공인종교와 신흥종교 기관이 들어서서 전통신앙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적인 생업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토박이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 신앙이 아직까지는 비교적 굳건하게 전승되고 있기도 하다.

II. 공인 종교

1. 불교

1) 正覺寺

- ① 명칭 : 정각사
- ② 종파 : 태고종
- ③ 위치 :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099

上·下裏 學術調查報告

- ④ 건물 : 대지 368평, 법당 45평, 취사실 15평, 寮舍 25평, 사무실 12평. 법당에는 관음보살, 석가여래, 대자비보살 등 3존불을 봉안하고 있다.
- ⑤ 연혁 : 1953년 2월 5일 당시 西山寺 주지이던 性月 스님이 개창. 1953년 3월 3일 하모리 1099번지 대지 286평에 대웅전 25평, 취사실 15평 건축. 1967년 3월 寮舍 25평 신축. 1987년 2월 24일 1099-1번지 82평을 매입하여 대지 확장. 1987년 7월 진입로 29평 매입 개설. 1989년 8월 3일 법당 45평 중건. 1992년 9월 법당 내외 단청 불사. 1993년 3월 법당 뒤에 사무실 12평 신축.
- ⑥ 주지 : 범명은 性月, 號는 眞空, 本名은 李東權이다. 그는 19세에 세상의 무상함을 느껴 출가하여 제주시 포교당, 관음사 등에서 수련하고 원명사에서 계를 받았다.
- ⑦ 신자 : 200여 세대 500여 명.
- ⑧ 법회일 : 매월 초하루, 보름
- ⑨ 당과의 관계 : 불교신자와 당에 다니는 사람의 구별이 없다.

2) 大乘寺

- ① 명칭 : 대한 불교 법화종 대승사
- ② 종파 : 법화종
- ③ 위치 :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754
- ④ 건물 : 대웅전, 사채, 주지실, 종각. 대웅전에는 석가여래상, 동자여래상, 관음상 등 3존불을 모시고 있다.
- ⑤ 연혁 : 이 절의 창건주는 비구니 강성화이다. 1949년 강성화가 입적한 뒤에 月峰 스님이 이 절을 중건하고 1956년 11월에 법화종으로 轉宗하였다. 월봉 스님의 法諱는 正培, 字는 慧應이고, 俗名은 金泰雄이다. 1916년 한 경면 판포리 758번지에서 출생하였다. 26세에 大本山 大興寺로 출가하였다. 그는 本願을 會歸乘法華弘通으로 삼아 수도와 포교를 하였다.
- ⑥ 주지 : 광석 스님. 4~5년간 영실 암자에서 수련하였으며, 대승사에서 득도하고 은사스님이 열반한 뒤에 주지가 되었다.
- ⑦ 신자 : 150여 세대. 대부분 상·하모리 사람들이고 가끔 구역리, 서귀포, 제주시 사람들도 다닌다고 한다.

- ⑧ 법회일 : 음력 매월 24일(관음절), 4대 기념, 4대 절기
* 정각사 옆에 위치한 '서산사'는 주소가 동일리로 되어 있다.

2. 기독교

1) 모슬포 제일 교회

- ① 명칭 : 모슬포 제일 교회(개신교)
- ② 위치 :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076
- ③ 건물 : 본당, 사택, 양로원, 주차장
- ④ 연혁 : 1910년도에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로, 산남 지역에선 제일 처음 생겼다고 한다.
- ⑤ 신도 : 주로 상·하모리 사람들이 온다.
- ⑥ 대표자 : 김성산 목사님
- ⑦ 운영 : 헌금
- ⑧ 예배 : 월요일만 빼고 매일 새벽 기도를 가지며, 월·화·목·금·토요일에 친목으로 예배(기도회)를 가진다. 정기적인 모임은 수요일 밤과 일요일 낮·밤에 있다.

2) 모슬포 교회

- ① 명칭 :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모슬포 교회
- ② 위치 :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218-1
- ③ 건물 : 본당, 사회교육관, 사택
- ④ 연혁 : 1953년 모슬포 제일 교회에서 분파되었다.
- ⑤ 신도 : 약 300명 정도이며, 주로 상·하모리 사람들이 오고 일과리, 동일리 등에서도 온다
- ⑥ 대표자 : 이정훈 목사님
- ⑦ 운영 : 신도들의 헌금을 통해 운영된다.
- ⑧ 예배 : 학생예배는 주일 오전 08:50, 장년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오후 8시, 새벽 5시

上·下臺里 學術調查報告

3) 모슬포 중앙 교회

- ① 명칭 : 대한 예수교 장로회 모슬포 중앙 교회
- ② 위치 :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3829
- ③ 건물 : 본당, 어린이집, 사택
- ④ 연혁 : 강병대 교회를 다니던 민간인들이 독립하여 1977년 8월 15일에 김석관 전도사에 의해 신축되었다.
- ⑤ 신도 : 아동부 37명, 중·고등부 11명, 청년부 5명, 장년부 77명, 찬양예배 48명, 3일 예배 18명, 구역 예배 43명(총 239명)
- ⑥ 대표자 : 고자승 목사
- ⑦ 운영 : 헌금
- ⑧ 예배 : 주일 낮·밤, 3일밤 예배

4) 포도원 교회

- ① 명칭 : 대한 예수교 장로회 포도원 교회
- ② 위치 :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3942-5
- ③ 건물 : 교회, 사택
- ④ 연혁 : 1996년 5월 1일 창립
- ⑤ 신도 : 6명(50대 2명, 30대 4명)으로 이 중 3명은 육지 사람이고, 나머지 3명은 상모리 사람이다.
- ⑥ 대표자 : 이가열 목사
- ⑦ 운영 : 주로 육지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운영되며 헌금을 받긴 하나 운영에 도움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 ⑧ 예배 : 주일 아침 11시, 수요일 오후 5시

5) 모슬포 성결 교회

폐쇄된 상태이다.

6) 강병대 교회

- ① 명칭 : 모슬포 강병대 교회
- ② 위치 :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3955

- ③ 건물 : 예배당 85평
- ④ 연혁 : 이 교회의 연혁은 마당에 서 있는 건립 기념비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教會는 陸軍 少將 張道英 閣下가 陸軍 第一訓練所 第九代 所長으로 檀紀 四二八五年 一月 十日 赴任하여 國軍將兵의 精神的 糧食과 宗教的 生活를 함으로써 聖戰을 完遂할 수 있다는 굳은 信念 밑에 檀紀 四二八五年 五月 一日起工하여 全年 九月 十四日에 總一八五建坪의 建物로 完成 獻堂케 된 至誠과 血汗의 結晶임
檀紀 四二八六年 六月 十日
強兵臺 將兵 一同
- ⑤ 신도 : 주민들도 이 교회에 다녔으나 따로 교회를 마련하거나 새로 들어선 교회로 옮겨 갔다. 현재 일반인은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 ⑥ 대표자 : 지금은 중앙 교회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 전엔 김성은 목사님이 하셨다.
- ⑦ 운영 : 헌금
- ⑧ 예배 : 전에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주일 예배만 하고 있다.

3. 천주교

1) 천주교 모슬포 교회

- ① 명칭 : 천주교 모슬포 교회
- ② 위치 :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805-1
- ③ 건물 : 본당, 사랑의 집, 수녀원, 사제관, 청년회관, 교육관, 지하실
- ④ 연혁 : 강병대 교회의 소교회 건축 완공 계획으로 1954년 3월 7일 성전이 준공된다(현 사랑의 집). 성전 준공과 함께 천주교 서귀포 교회가 모슬포 공소로 편입되었는데, 당시 공소의 전교회장은 진정숙 말가리다로 대정면과 안덕면 전역을 관할했다. 1956년 4월 서귀포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모 르벨도는 모슬포 공소의 신자수 급증으로 모슬포 공소에 상주하며 모슬포 본당 신축 계획 추진에 골몰한다. 그리하여 1958년 6월 29일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본당 건축을 완성하게 된다.

- ⑤ 신도 : 약 1400명 정도이며 주일 미사에 오는 사람은 350명 정도 된다.
- ⑥ 대표자 : 윤성남 신부님
- ⑦ 운영 : 현금
- ⑧ 예배 : 주일(본당) - 새벽 6시, 오전 11시(교중), 저녁 8시(학생, 청년),
화순공소는 오전9시
토요특전(어린이) - 오후 4시(8월은 방학), 무릉 공소는 저녁 8시
평일 - 새벽 6시(월, 목), 저녁 8시(화, 수, 금)

Ⅲ. 신흥종교

1) 浴世佛堂

- ① 명칭 : 국제 도덕 협회 일관도 대정읍
- ② 종파 : 일관종
- ③ 위치 :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548-3
- ④ 건물 : 2층건물로 1층은 생활장소, 2층은 불당이다. 불당에는 왼쪽 벽으로 지장보살, 가운데 벽 중앙에 미륵불, 왼쪽에 제공할불, 오른쪽에 관세음보살으로 모시고 있다.
- ⑤ 연혁 : 본부는 서울 흑성동에 있으며, 제주도에는 제주시 연동에 처음 지부가 생겼고 1954년 김복당 前人을 대표로 지금 위치한 대정에 분파되었다. 이후 대정에서 다시 서귀포, 고산, 성읍 등에도 뻗어나가게 되었다.
- ⑥ 대표자 : 현충희(여·78세)
- ⑦ 신자 : 15~20명으로 주로 80~90세의 노인들이다.
- ⑧ 법회일 : 하루 3차례 불공을 드리는데, 새벽 5시와 저녁 6시(지금은 해가 길어 7시)에 드린다. 행사로는 석가모니 성탄절과 미륵불 성탄절이 있으며, 특별히 전도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2) 원불교

- ① 명칭 : 원불교 대정교당

- ② 종파 : 원불교
- ③ 위치 :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3182
- ④ 건물 : 교당, 원광 어린이집(대지 400평, 교당은 34평, 어린이집 18평)
- ⑤ 연혁 : 1980년에 설립되었고, 유치원은 88년에 신축되었다. 중앙 집권식으로 육지 총부에서 관리하며, 대표자(교무) 역시 발령을 받으며 옮겨 다닌다.
- ⑥ 대표자 : 조상호 교무님
- ⑦ 신자 : 20명정도이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은 45명 정도이다.
- ⑧ 법회일 : 일요일 오전

3) 통일교

대정 통일교 : 전에는 하모리 해수욕장 충혼탑 앞에 위치했었으나 운진항 도로가 생기면서 없어진 후 지금은 어디로 옮겨갔는지 찾아볼 수 없다.

4) 천지대안교

모슬포 분교소 : 찾아 볼 수 없다.

5) 제7일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일 교회

- ① 명칭 : 제7일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 ② 위치 :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865-2
- ③ 건물 : 본당, 사택
- ④ 연혁 : 1914년 한경면 신창리에 세워진 후 사계리로 옮겨지고, 다시 1952년 6월 현재 위치로 옮겨오게 된다. 당시의 대표자는 김병윤 목사님이셨다.
- ⑤ 신도 : 청·장년은 30명, 학생은 23명으로 약 50여명이다. 주로 모슬포 사람들이 오며 사계리나 고성에서도 온다.
- ⑥ 대표자 : 강인영 장로님이 맡고 계시나 예배는 서귀포에서 김수강 목사님을 모셔와서 한다.
- ⑦ 운영 : 현금

上·下臺里 學術調查報告

⑧ 예배 : 화요일 저녁 8시, 수요일·금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09:30~12:00(어른)

오후 01:30~02:30(학생)

오후 03:00~04:00(중·고등학생)

오후 04:00~05:00(학생-특별활동)

6) 천리교

대원 포교소 : 찾아 볼 수 없다.

7) 여호와의 증인

왕국 회관 : 찾아갈 때마다 문이 닫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식적인 모임때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다. 참고로 예배 및 기타 모임은 다음과 같다.

공개강연(日) 오전 10:00

파 수 대(日) 오전 11:00

신권학교(木) 저녁 07:30

봉 사 회(木) 저녁 08:30

서적연구(火) 저녁 07:30

IV. 민간 신앙

1. 포제

제보자 고춘언(남·73세)씨에 의하면 상모리는 오름 중턱에서, 하모리는 운진항 근처 높은 소나무 밭(포제 동산)에서 지냈다고 한다. 한 60년 전쯤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제보자가 포제를 보았던 것은 그의 나이 겨우 열 두어 살 때라 한다. 그러니,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다. 제차는 석전제와 비슷하였다고 한다.

포제 날짜가 정해지면 합숙하는 장소(그 당시는 향사)에만 금줄을 쳤으며, 제사 때 쓰는 물가(무수물)에는 3일 전에 금줄을 들렀다고 한다. 여자는 제장에 접

근이 금지되어 음식도 남자가 현장에서 준비했다고 한다. 제단 위에는 장막을 쳤으며 제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모두 음복했다.

2. 당신앙

상·하모리에 있는 당은 모두 세 군데이다. 하모리 '여막은개'의 '무수물당'과 하모리 서상동의 '섯산이물당', 상모리 산이수동의 '동산이물당' 등이다. 이들은 모두 할망당이다. 무수물당은 하모리에 있으나 상모리 사람들이 다닌다하여 상모당이라 불리고 있다. 이 당은 원래 알당은 여막은개에, 옷당은 대승사 서쪽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사람들이 알당을 부숴버리자 옷당에 같이 모신다고 한다. 옷당은 큰 당(큰 할망), 알당은 작은 당(작은 할망)이라하여, 큰 당엔 매 2, 작은당엔 매 1를 올렸었다. 알당이 부서진 이후 백지, 물색 등은 제를 지낸 후 모두 태워 흔적을 없앴다고 한다. 후문에 의하면 당을 부숴버린 사람들은 모두 망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무수물당이 사라지자 여막은개에 있던 다른 당으로 옮겨 두신을 같이 모셨다고도 알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섯산이물당은 하모리 큰 당으로 지금은 시멘트로 다시 지었으며, 아직도 하모리 사람들은 많이 다닌다. 원래는 2망돌에 있다가 산이물 옆으로 옮겨졌는데 4·3 이후 미신타파 운동으로 사람들이 부숴버리자 현재 있는 곳으로 또 다시 옮겨졌다. 산이수동에 있는 동산



무수물당

이물당은 개당[浦堂] 한집이며 섯산이물당에서 가지갈라 온 것으로 산이수동 사람들은 아직도 거의 다 다닌다고 한다. 주로 배 부리는 사람(어부)과 해녀들이 다닌다고 한다.

1) 무수물당

① 당신 : 신도 본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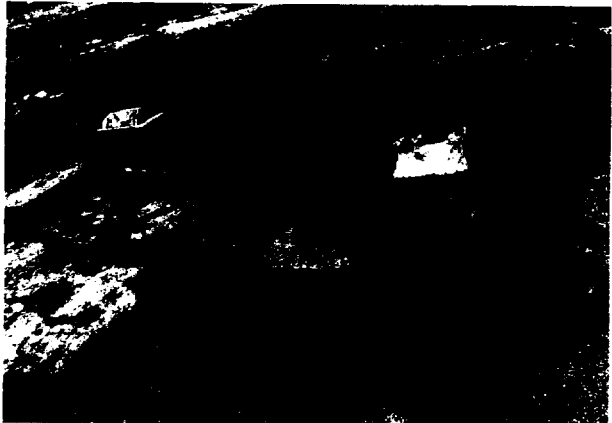
上·下臺里 學術調查報告

할머니

- ② 제일 : 정월 3일, 7일, 13일, 15일, 17일, 23일, 27일 새벽(7일은 말썽이 많아 잘 가지 않고, 17일에 제일 많이 간다고 함)
- ③ 위치 : 동축항(운진이개) 서쪽 200미터 지점의 바닷가
- ④ 당의 형태 : 반원 형태의 긴 제단에 옷당과 알당이 있는데, 옷당에는 본향당신을, 알당에는 요왕신을 모신다. 켜는 2개가 있으며 주위에는 돌을 쌓았다.
- ⑤ 제물 : 사발메 1그릇, 보시메 2그릇(옷당에는 사발메 1그릇, 보시메 1그릇, 알당에는 보시메 1그릇을 올린다. 외지에서 시집을 온 며느리는 보시메 하나를 더 준비하여 따로 고향의 본향당신을 모신다), 생선 2마리(볼락), 물새 3~4가지, 명실, 과일(복숭아 제외), 감주(쥬스)
- ⑥ 비념 : 육축 번성, 자손 번성, 오곡 번성, 어부나 해녀의 안전
- ⑦ 금기 사항 : 비린 날(장례일)만 아니면 되며, 돼지 고기 금기는 현재 어부와 해녀들만 지키고 있다.

2) 쇠산이물당(하모 큰당)

- ① 당신 : 신도 본향 할머니
- ② 제일 : 정월 7일, 13일, 15일, 17일, 23일(날이 좋으면 15일에도 가며, 17일에 제일 많이 간다고 함)
- ③ 위치 : 하모리 서상동 정각사 서남쪽 바닷가
- ④ 당의 형태 : 입구 오른쪽에 옷당이 있고, 왼쪽에 알당이 있으며, 켜는 2개



쇠산이물당

가 있다. 현재 시멘트로 깨끗이 단장했다.

- ⑤ 제물 : 메(웃당 사발메 1, 보시메 1, 알당 보시메 2), 떡(다대), 과일(사과, 배, 귤), 제주(감주, 청주, 환타, 소주), 지숙 비념, 금기 등은 무수물당과 같다.

3) 동산이물당(개당한집)



동산이물당

- ① 당신 : 신도 본향 할머니
- ② 제일 : 정월 7. 17. 27일
- ③ 위치 : 산이수동 굴이 있는 바닷가
- ④ 당의 형태 : 주위는 돌로 둥그렇게 쌓았으며 반원 형태의 제단 오른쪽에 사철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이 나무에 물색,

명실, 백지 등이 매달려 있다. 퀘는 1개가 있다.

- ⑤ 제물 : 메3, 과일(사과, 배, 귤), 지숙, 떡(다대), 지전, 명실, 소지, 물색 비념, 금기 등은 무수물당과 같다.

이상의 내용은 심방과 사람들의 증언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은 것이다. 현재 매인 심방들은 매인지 얼마 안되거나 아예 없었고, 그나마 매인 심방들도 잘 안 가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다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는 날과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가는 날을 구별하여 적었다. 그 외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 세 당은 모두 제주시 '마스락당'에서 왜정 전에 가지 갈라온 것으로 금악을 거쳐 무수물당에 온 뒤 무수물당에서 다시 가파도와 산이물로 가지 갈라 간 것이라 한다. '마스락당'은 용담동 용연 냇가에 있다. 제보자인 변심방은 '마스락

당'이라고 하면서도 용연에 있는 당이 아니라 '칠머리'에 있는 당이라 하였다. '칠머리'는 본래 제주항 동방과제 근처에 있었으나 방과제가 확장되면서 매립되어 버렸다. 그 뒤에 칠머릿당은 사라봉으로 옮겼다. 마스락당과 칠머릿당은 이미 조사된 바 있는 본풀이를 통해 볼 때 같은 신앙권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보자가 마스락당을 굳이 칠머릿당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는 듯 하다. 무수물당신은 마스락당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돌아 일과리를 거쳐 이 곳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이렇게 들어오는 도중에 일과리 장수원에 좌정한 것이 일과리 장수원 할망당이라 한다. 다른 자료에는 일과리 장수원당은 하모리 무수물당에서 가지 갈라간 것이라 하여, 혼란이 있다. 대체로 일과리가 상모리나 하모리보다 먼저 설촌되었다고 하니, 당의 설립도 일과리가 상모리와 하모리보다 앞섰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하모리에서 가지갈라 갔다는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모두 본향당으로 현재 무수물당에는 20여년 전에 변심방(변병근, 1914년생)이 매였으나 늙어서 당에는 다니지 못한다고 한다. 멩두는 윤씨한테 받아와서 현재 유씨한테 물려줬다고 한다. 첫산이물당에는 16년 전에 장심방이 매였으나 당에 잘 다니지는 않는다. 제일 처음 매였던 심방은 이씨 할머니로 새심방 할망이라고 불렸으며 두번째는 영희 할머니(제보자가 성함을 기억못함)가 매였고, 세 번째는 김옥순 할머니로, 일찍부터 파마를 하고 다녀 빠마 심방이라고 불렸다. 그 이후 장인생 할머니(1934년생)가 매이게 되었다. 동산이물당은 원래 심방이 없는 동네라 매인 심방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곳은 해에는 외지에서 심방을 데려오기도 하며, 주로 사계리에서 데려온다고 한다.

3. 가신 신앙

상·하모리에는 다른 지역만큼 가신신앙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 교회와 절이 많이 생기면서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자세하게 아는 사람도 적었다. 그 남아 있는 흔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토신제

토신제는 기르고 있는 가축이나 그해 곡식이 모두 풍성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

이다. 제보자 金興玉(남·70세)씨에 의하면 10여년 전에는 집례를 봐주러 다니기도 했으나, 현재는 토신제를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제보자 집에서는 아직도 토신제를 지낸다고하며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여 주었다.

우선 깨끗한 黃土를 구해다가 마당에 간다. 황토를 까는 것은 제장을 정화하는 의미가 있다. 그 위에 다시 깨끗한 '새'(띠)를 간다. 황토나 새는 주위에 무덤이 없는 깨끗한 곳의 것을 구해다 쓴다. 새를 간 위에 다시 '젯자리'(초석)를 까는데, 젯자리와 배석을 따로 마련한다. 젯상은 따로 있지 않고 젯자리 위에 바로 제물을 진설한다.

진설할 때는 그 해의 방위를 고려하여 젯상의 방향을 정한다. 막힌 방위가 북쪽이면 젯상은 동쪽으로 놓는다. '明堂戶土地之神位'라 쓴 지방을 젯상 뒤쪽 가운데에 놓는다. 예전에는 제물을 '稻粱黍稷'으로 놓았으나 그대로 따르기 어려우므로 '곤메'(쌀밥) 2그릇, 조메 2그릇으로 대신한다. 잔은 세 개를 올린다. 제사 지내는 차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四拜
- ② 개지(매 뚜껑) 열고 젓가락을 매에 꽂는다(수저는 땅에서 나는 '새'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 ③ 일어섰다가 다시 꿇어 앉고 첫잔을 왼쪽에 올린다.
- ④ 새로 꿇어 앉은 다음 축을 고한다(고축).
- ⑤ 1拜한 뒤 둘째 잔을 가운데 올리고 고축한다.
- ⑥ 1拜한 뒤 셋째 잔을 오른쪽에 올리고 고축한다.
- ⑦ 四拜
- ⑧ 기물을 별도로 준비하여 잡식(제물을 조금씩 뜯어 놓음)한다.
- ⑨ 술을 모두 기물에 부어 놓고 지방과 축문도 함께 소각한 다음 기물에 놓는다.
- ⑩ 기물에 폐백을 소각하여 놓는다.
- ⑪ 동쪽으로 틀고(제 지내는 방향)(?) 담 밑에 잡식한 것을 부어 놓고 묻는다.
- ⑫ 飲福(이웃 사람들에게 제물을 나누어 주지는 않는다.)

上·下幕里 學術調查報告

과거에는 들에서도 토신제를 지냈었으나 지내지 않은 지 10여년 되었다고 한다. 제사의 절차나 방법은 가내 토신제와 거의 같고 축문 내용만 달랐다고 한다.

2) 조왕제

상모리에서는 그 해의 운수를 보아서 정월이나 3월에 조왕신을 모셨다고 한다. 아궁이 위에 상을 차리는데, 제물로는 밥 3~4개와 깨끗한 물을 떠 놓았다. 수돗물이 나오기 전에는 '신영물'을 이용했다. 물이 나는 위 쪽에서 허벅지로 떠다가 메도 찌고 생수로도 올렸다. 하모리는 제사나 명절 때 떡, 과일, 메 1, '탕시'(채소:고사리), 감주(혹은 소주)를 준비하는데, 물은 '섯산이물'에서 새벽에 떠 놓았다가 썼다. 양쪽 다 문전제를 지낸 뒤 조왕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3) 액막이

닭을 던져서 액막이를 하기도 했다. 닭을 터진 방(올래)으로 던져서 한 번에 넘어가도록 하여, 넘어가지 않으면 넘어갈 때까지 한다. 한 번에 넘어간 것은 머리만 문고 나머지는 삶아 먹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물어버린다.

4) 멧감

멧감은 목축과 수렵의 풍요를 비는 것으로 여자, 남자 가리지 않았다. 묘지나 산이 없는 트인 데서 하는데 여기서는 산방산 앞에서 정월이나 3월에 하였다. 제물로는 백설기, 메 3그릇을 올렸다.

5) 불찍앗이

집에 불이 난 뒤에는 '불찍앗이'(흔히 '불찍앗음'이라 한다.)를 하였다. 지금도 '불찍앗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며, 예전에는 반드시 했다고 한다. 제물은 급한 상황이므로 메 1그릇만 차려서 하기도 했다고 한다. 반면 성주풀이는 새 집을 짓고 난 뒤 벌인다. 터진 방위(동쪽)로 상을 차리는데 메는 조상 수대로 놓고 그 외 떡(백설기), 과일(배, 사과, 귤), '지숙', 실 2타래, 종이 여남은 개, 물색(붉은 색, 푸른 색, 노란 색), 기저귀 1개, 메 1필을 준비한다. 다 지내고 나면 그 자리에서 음복하거나 가져간다. 참고로 성주풀이는 다음과 같다.

6) 구삼승념

구삼승념은 어린아이의 치병 의례의 하나로 '구삼승'은 저승의 신이요, 어린아이에겐 병을 주는 신이다. 사람들은 '독한 귀신', '아기 데려가는 귀신', '악삼승'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대개 어린아이는 살지 못한다고 한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릴 때 심방에게 키우게 한 뒤 15살이 될 때까지 살아 있으면 심방에게 값을 치르고 데려오기도 했다고 한다.

* 성주풀이

제보자가 굿에 관심이 많고 최근에 성주풀이를 했다고 하여 들어 보았다.

성주로구나. 성주로구나. 요 집 성주가 오늘이여.

아들랑 낱건 소재(효자)를 낱고 딸랑 나면은 열녀 놓라.

열씨구나 좋다. 저절씨구. 요 집의 성주가 오늘이라.

소새끼랑 낱건 황소를 나고, 돼야지랑 나건 섯을 나고, 계란을 나면 쌍계란을 나고.

요 집의 성주가 오늘이라.

오늘 오늘 오늘이여. 날도 좋고 돌도 좋고 흰 날이 오늘이여.

조손 창성 시겨 줍써. 금전 대통 시겨 줍써.

성주로구나. 성주로구나. 오늘 성주가 이디로구나.

재서(재수)대통 시겨줍써. 조손창성 시겨줍써.

굿은 일랑 재쳐 놓고, 행복 실어오는 일만 돌아 읊써.

제보자

김재선(1921年生)

변병근(1914年生)

이경순(1929年生)

이의철(1921年生)

이춘옥(1915年生)

임경득(1910年生)

장인생(1934年生)

그외 마을 사람들



변병근 할머니